

한눈에

보는

미래유물전

201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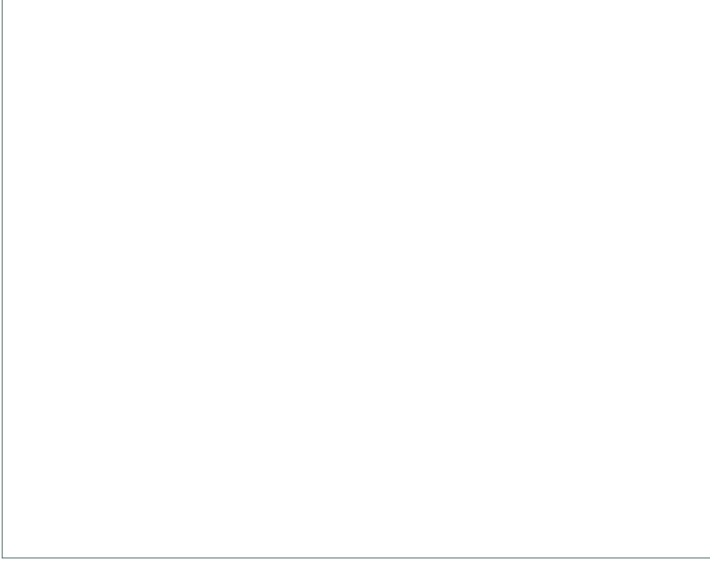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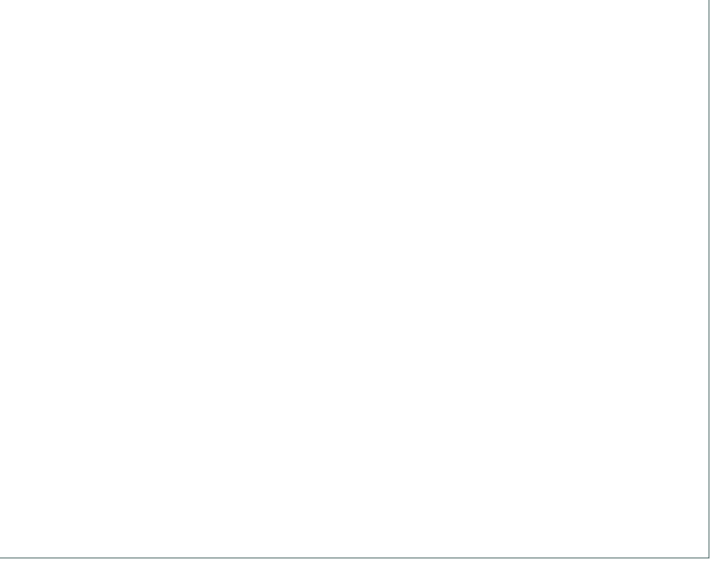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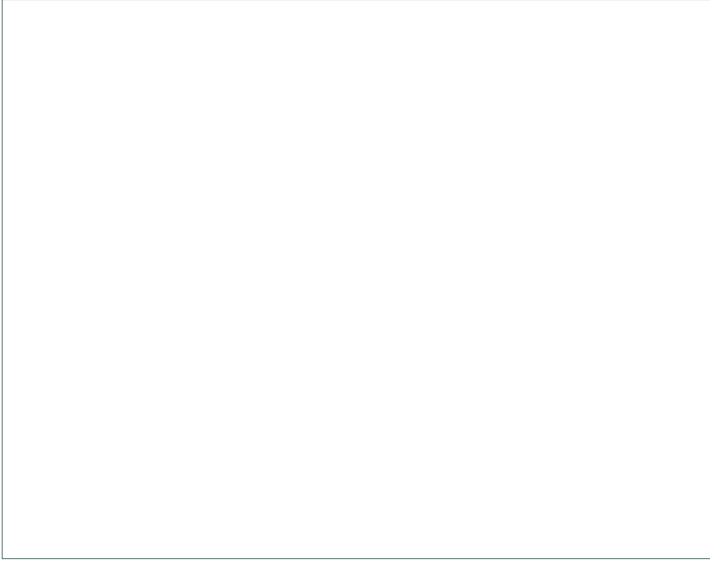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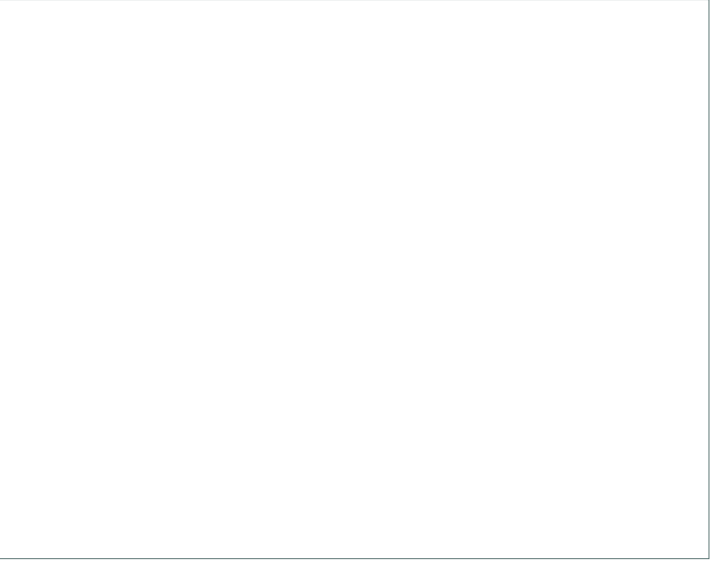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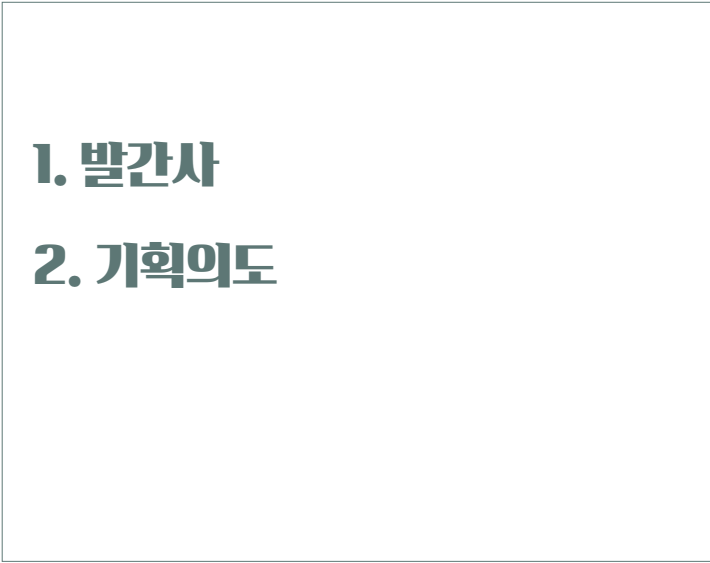
목차

I. 프롤로그	
1. 발간사	6
2. 기획의도	10
II. 미래유물전 6년 아카이브	
1. 2015 미래유물전in이천	26
2. 2016 미래유물전in평택	30
3. 2017 미래유물전in의정부	34
4. 2018 미래유물전in부천	40
5. 2019 미래유물전in안산	46
6. 2020 미래유물전in용인	52
III. 한눈에 보는 미래유물전: 지금, 여기, 우리	58
IV. 에필로그	118
부록: 미래유물전 인쇄물 아카이브	126

I. 프롤로그



1. 발간사
2. 기획의도



1. 발간사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 <기획전시 미래유물전> 6년의 과정을 돌아보며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미래유물전>이라는 기획전시를 개최한 이래, 6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모아 백서형식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향토문화유물을 재해석하여,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전승해야 할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향토문화유물을 가시적으로 전시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했고 그것이 지역에 남아야 하는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즉 향토문화유물이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유물이 지금을 어떻게 만들어왔는가를 규명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현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시제이기에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때 그랬지’가 아니라 ‘지금은 이렇다’를 규정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래야 한다’는 문제로 확장되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 누구도 규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치와 지향의 문제입니다. 그 가치와 지향에 의한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모여 고정되지 않은 현재를 구성하고, 현재의 축적이 곧 미래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확장되면서 기획의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본 사업 기획에서는 미래는 현재를 밀고 가는 것이라는 개념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다가 올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각 지역의 가치와 지향을 밝혀내는 일이 지역의 현재를 미래로 밀고 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가치와 지향은 ‘누가 만들어 가는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사람과 사물에게 말걸기' 를 설정했습니다.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그들의 삶의 궤적이 지금의 지역을 만들어 왔던 것처럼,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쌓이고 쌓여 현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가치와 지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어떤 절대적이고 동일한 잣대' 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온 자신의 역사는 한 가지의 모습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복수성’에 관해 이야기 한 것처럼, 사람은 저마다 개성을 가지고 있고, 개성을 표출하고 싶어 합니다.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각 개인의 다양한 개성이 모여 지역을 이루었을 때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고, 어떤 지역이 되고, 미래에는 어떤 지역이 될 것인가가 정답은 아닐지언정 예측 가능해집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보다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동력이 되며, 그 지역에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미래유물전>은 기존의 <향토문화유물전>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2015년 <이천이 된 사람들>, 2016년 <물이 된 마을 평택>, 2017년 <극복-DNA 의정부>, 2018년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2019년 <공존_당신과 내가 사는 곳 안산> 그리고 2020년 <길_용인> 이라는 각각의 주제는 경기 지역이 가지는 특색을 잘 드러내 주었고, 지역의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해봅니다.
각 전시마다 지역의 현재적 의미를 담아내려 했고, 창조적 재해석을 통해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해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각 전시에서 추구했던 지역의 가치와 지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엮고자 했지만 아직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6개 지역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미래유물전>을 통해 지역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른바 ‘지역다움’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본 기획이 지역문화원이 고민해야 할 다양한 지역문화 현안 해결의 조그마한 단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20년 12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 상 덕

여 백

2. 기획의도

미래유물전 과정을 지켜보며

미래의 신비와 과거의 신화가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곳은 자유를 향한 개인의 신경망(神經網)인 현재뿐이다

그 하나하나의 그물코가 중첩된 생활문화공동체는 매 순간 그곳에서 피어나고 시들고 되살아나기를 되풀이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출몰하며, 불확정적이고 확률로만 민낯을 보이고 사라지는 끈이며 막이고 경계일 뿐이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결정론의 과거를 살아온 우리는 여전히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우상과 근원적인 신이란 미망에 사로잡혀 있다. 경제와 정치와 종교, 자본과 권력과 확신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문화이고, 확률이다.

결정론의 세계에서 과거는 자명했고 미래는 예측 가능해야만 했다. 모호한 것, 불투명한 것은 절망이고 죄악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뒤틀린 지고선으로서의 우상의 지배 아래에서만 그렇다. 확률론의 시대에는 본질로서의 내부도 현상으로서의 외부도 없고 불확정성으로서의 경계만 존재할 뿐이며, 바로 그것이야말로 본성 그 자체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전도된 실현체로서의 결정자인 우상은 바야흐로 억압자, 악마의 가면을 벗고 있다. 순정의 경계가 회복되고 있다. 머나먼 여정의 귀향이다. 진정한 희망이 도래한다. 스스로 말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말하는 자가 가려 뽑는 것이라고 믿었던 그 사실, 팩트의 정의로서의 고속도로, 정문은 나들목, 비상구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 모순과 무상과 대비를 넘어서는 비결정성, 비관념성, 비이원성의 아이러니가 맨몸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고 과거가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신경망의 경계가 너무 먼 길을 왔기에, 신 및 우상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기에, 바로 그러므로 그 고향으로의 회귀, 귀향, 대중신통력의 회복은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 경계는 내부와 외부, 과거와 미래, 원심력과 구심력의 양자이고, 그 불확정자 확률자로서의 양자이며, 자유로운 개체로서의 양자이다.

그래서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경계는 무엇보다 먼저 자연의 경계이다. 비어있음으로 가득 찬 아이러니이며, 항상도 일상도 아닌 비상이다.

윤한택_역사가, 문자연구가

2015 미래유물전in이천 기획의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미래유물전의 연도별 기획의도를 모아보았다. 지역의 현재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조망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발견하고자 한 목적은 모두 같았으나, 각 지역문화원은 나름의 방법으로 '미래유물'을 재해석하였다. 각각의 미래유물전은 어떻게 기획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자.

미래유물전은, 지방문화원마다 마을지와 문화자원 등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과 어르신들의 삶이 곧 잊혀져갈지 모른다는 우려로 시작되었다. 몇 해 전부터 유행했던 구술채록방식을 어르신들의 삶이 묻어있는 사물들로 풀어보자는 약간 무모한 도전이기도 했다. 어르신들의 삶이 묻어있는 사물들을 전시하면 자연스럽게 사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어르신들은 사용하기 편한 신식 물건들에 비해 오래된 물건을 구닥다리로 여겨 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때문에 사물을 통해 일상의 이야기를 전개해보리라고 맘 먹었던 것에서, 사람의 이야기와 사물의 '이야기'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급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은 '과거' 혹은 '옛날'의 것으로 이야기된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미래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전통에 매달리기 보다는 '지금' 즉 '미래의 전통'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절실하지 않겠는가?

이 전시는 지금 마을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부모세대가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겪어온 경험들이 '이천'이라는 지역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시작적으로 보여주며 '지금', '일상 살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했다. 과거, 현재, 미래이기 이전에 '지금의 연장'일 뿐인 이야기, 끝이 없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었다.

각자의 살아내기를 어떻게 읽고 맥락을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중간중간 이루어지는 인터뷰와 쌓여가는 자료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어제의 그것'이 '지금의 이것'이 되는 급변하는 현실을 살아낸 이들, 그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근현대사를 통과한 어르신들의 삶의 결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의 끝은 아이러니로 모아졌다.

이 전시가 각자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발견되길 바라면서,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을 앞에 두고 선택하는 순간 이 곧 미래이지 않을까. 순간순간 순정을 바쳐 삶을 살아 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일어나지 않은 신비에 대해 꿈꾸고 싶었다.

민병은_ 문화기획자

2016 미래유물전in평택 기획의도

살아 있다는 것은 특정한 시간 위에, 특정한 어떤 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간과 상황을 전제 조건처럼 안고 있는 존재-우리는 지나온 시간 사이 사이. 여러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또 다른 살아가기를 요구받는다.
이런 변곡점을 따라 흐르는 우리 이야기 안에는 물이 있다.
물은 평택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이루고 있는 지금도 유효한 삶의 전제조건이며, 사는 방법을 달리하게 한 원인은 이 질척임이다.

사건의 축적으로 만들어진 이곳 평택,
일어난 사건들을 공유하는 사람들
어떤 마주침은 저 바닥에 깔려있던 기억을 불러낼 것이고
지나온 일상을 되돌아보게 한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삶을 순간 펼쳐보이게 하고,
암묵적 경험으로 우리라는 일체감을 순간 경험하게도 한다.
수많은 나=우리는 평택이라는 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공통의 사실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전시는 평택에 대한 공유된 감각을
일상의 이야기로 다시 불러들이고자 했다.

민병은_ 문화기획자



2017 미래유물전in의정부 기획의도

‘극복 D.N.A’를 찾아보고자 의도된 올해의 <2017 미래유물전>은 의정부에 대한 기억의 발굴을 통하여, 그 장소성이 가지고 있는 발전적 요소를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우리 근대 역사 속에 남아 있는 한국전쟁이라는 묵직한 기억의 뿌리를 건강하게 가꾸고 극복해 가고 있는 의정부라는 삶을 ‘변죽통 통죽구’라는 측면에서도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의정부는 우리나라 근대의 역사가 오롯이 스며든 장소성을 지니며, 그 위에 생겨난 식문화와 토대로 또 다른 범주의 한국 음식 문화를 가꾸어 낸 곳이다. 더불어 지역 문화의 특색을 되살려 그곳만의 시각 문화를 일구어 나가고 있다. 미군이 상주했던 지역을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녹색도시 푸른 의정부 만들기’프로젝트를 선언하는 등 여러 가지 논의와 검토를 활성화시키고, 그간 ‘미군 기지의 도시’로 굳어진 의정부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활동에 정성을 쏟는 것 또한 이런 맥락의 하나일 것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정부의 근대 역사 속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미군 기지의 이미지는 점차 열려져 갈 것이며, 그 옛터를 지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았던 기지촌과 그곳에서 흘러나온 식재료와 부대찌개를 언급하고 그것을 맛보며 풍요를 꿈꾸던 시절을 되새길 것이다. 기지촌과 부대찌개가 마냥 밝은 기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기억을 애써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의정부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들은 미래를 위한 원동력이 되어 의정부와 함께할 것이다.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속에 형성된 의정부의 맥락을 읽어들여, 미처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사실들 속에서 희망과 낙관의 단서를 찾고, 그 좋은 부분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부족한 사항들은 개선하고 보완한다면 의정부 건설에 독특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의정부시와 시민이 합심하여 지금까지 구축되어진 도시공간을 재편성함에 있어서 고유의 장소성을 더욱 풍성히 창출해 낸다면, 더불어 의정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



로운 정체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의정부시를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합심한다면, 의정부시민들의 정주성은 강화되고 도시의 긍정적인 정체성 또한 자연히 확보될 것이다. 또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나 자족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생활인으로서의 의정부에 대한 자부심은 절로 우러날 것이며, 사람이 사람을 돌아보는 정감 있는 생활공간으로의 재탄생 또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의정부문화원

2018 미래유물전in부천 기획의도

변영로, 목일신, 펄 벅, 양귀자, 정지용 이름만 드들어도 벅찬 문인들이 부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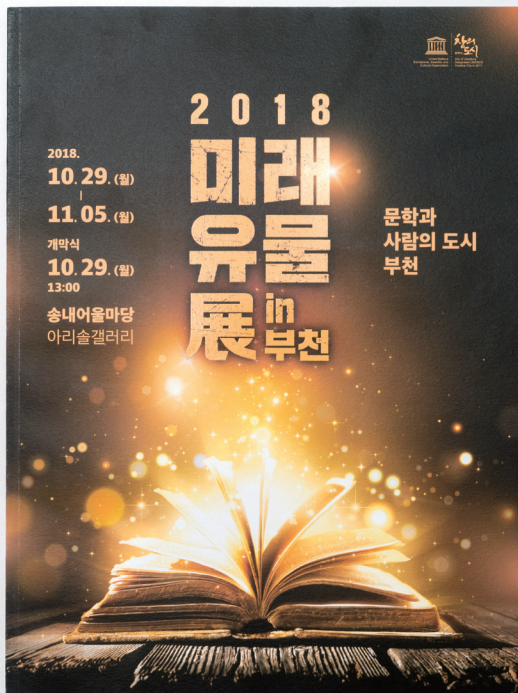
문학, 참으로 어려운 콘셉트였다. 부천문화원 박형재 원장님의 노력으로 ‘미래유물전’개최지는 부천으로 선정됐다. 그 결과 2018년 미래유물전 공식 명칭은 ‘미래유물전in부천’으로 사업명이 정해졌다.

부천문화원은 1년 여 시간을 문학을 주제로 전시 컨셉을 고민하고 있었고, 부천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와 다양한 활동으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품격을 높여가고 있었다. 또한 부천의 문인들도 각자의 역량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한 결과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 도시들 중 UNESCO 창의도시시는 부천(문학)을 비롯하여 서울(디자인), 부산(영화), 대구(음악), 광주(미디어아트), 전주(음식), 이천(공예), 통영(음악) 등 8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부천문화원 사무국은 ‘미래유물전in부천’전시를 위해 일 년의 시간을 많은 고민과 회의를 통해 큰 틀을 잡고, 직원들 간에 고민과 상상을 에스키스를 통해 현실화시켰다. 상상의 그림 속에서 그려졌던 필요한 구성품을 모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대문, 세종대왕 영정, 물지게, 전화부스, 나무박스, 오래된 잔저거 등 수많은 것들, 물론 가장 중요한 문학 관련 책, 작가 소장품 및 작고하신 작가 유품 등...

우리의 노력은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가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시 구성품 구입 및 임대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지역의 4개 문학단체(부천문인협회, 복사골문학회, 부



천여성문학회, 한국작가회 부천지부)가 팔 걷고 나서 주며, 순항을 했던 것이다.

먼저 ‘미래유물전in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었다. 이번에 조명되는 다섯 작가들의 모습과 4개 단체명을 홍보하고 위엄 있지 않으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 조성을 했다.

부천문화원

2019 미래유물전in안산 기획의도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의 기록물을 토대로 역사를 그려냈고, 기록의 빈 공간은 기록 간의 연계성에 의해 유추되기도 하고 또는 기억에 의존한 구술 자료들을 모아 채워졌다. 기존의 지역사 연구는 이렇듯 과거에 집중했고, 이렇게 연구된 역사적 자료들은 지역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꾸준한 지역사회 연구실적 덕분에 문화원 서고에는 사료와 이를 토대로 발간한 기록물들이 성실히 쌓여갔고, 수장고에는 역사시대의 유물 위로 젊은 세대들은 겪어보지 못한 기성세대들의 손때 묻은 생활유물이 차곡차곡 쌓여왔다. 언젠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전시장 한편에서 그 용도 시기가 표기되어 전시되고 있을 것이다. 그 언젠가라는 시기는 곧 빠르게 올 것이다. 어제의 물건이 내일의 유물이 된다고 한들, 이상하지 않을만큼 빠르게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일을 위해 무엇을 남겨야 할까. 우리는 우리가 수없이 그려내고 연구했던 사료들을 선조들이 남겨주었듯 시대 흐름의 속도에 발맞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록의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기록하고 연구할 것, 정리하고 보여줄 것, 남기고 보존할 것’

우리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작업을 선조들의 기록에 의존했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의 지금을 지류 영상, 전시 등 다양한 형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안산은 반농반어가 가능한 지리적 요건 덕분에 풍요롭고 순후한 민속 문화를 형성하며 천년이라는 긴 역사를 거쳐 왔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던 안산 지역은 1970년대 들어 반월-시화공단 건설로 인해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공업 도시로 변하게 된



다. 마을에서 도시로 급격히 변화하며, 외부에서 유입된 다양한 세대와 국적의 사람들로 인해 삶과 문화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고, 지금 안산 지역의 풍경을 만들어 냈다.

전시를 통해 하나가 아닌 다채로운 문화들이 뒤섞여 있는 안산을 정리하고 내일을 위한 아카이브를 구성하여 동시대 지역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자 한다. 전시는 현재 안산의 대표적인 이미지라 할 수 있는 ‘공단(산업단지)과 섬-생태’이 상반된 이미지의 공존에 대한 기록이다.

안산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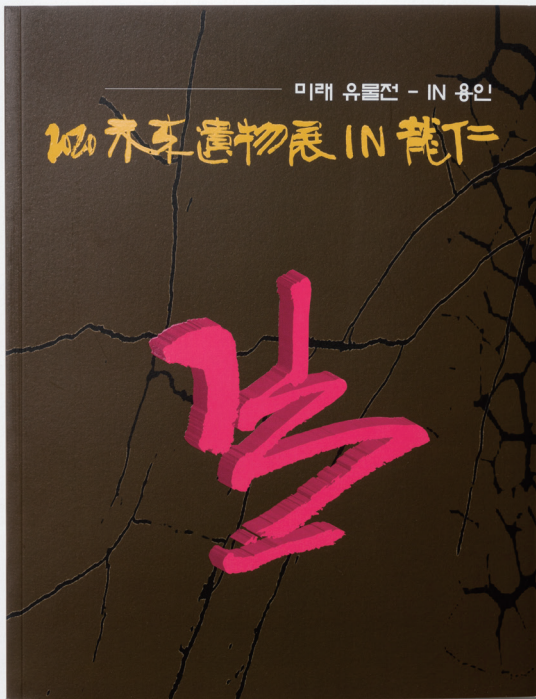
2020 미래유물전in용인 기획의도

길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물자의 이동을 연결해주는 통로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길이 없이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현대에 이르러 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속담처럼 로마제국의 번영도 길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동서양에 걸친 세계 제국을 이루었던 몽골의 거대한 영토도 역참으로 연결되었던 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역사에서 배우는 비단길이 지금까지 유명한 것도 이를 통해 사람들이 오가고 물자가 거래되는 교역로였기 때문이고, 아울러 동양과 서양 세계를 이어주는 교통로였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러 중국에서 새로운 실크로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도 교역과 교류를 넘어 중국의 패권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지나는 곳은 곧 길이 된다. 처음에는 개인과 개인,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수단에 불과 하지만 뒤에는 국가와 국가, 대륙과 대륙을 이어주는 통로가 된다. 그러기에 길은 인류의 역사와 같은 연륜을 가지고 있으며 소통의 수단이 되는 길을 열고 가꾸며 확장시키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용인은 우리나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예로부터 삼남의 관문으로 알려져 왔고 도읍인 한양의 인후에 비유되곤 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삼국시대에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용인은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할미산성은 당시의 시대상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고려 초기 이동읍 서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고려백자가 만들어진 것도 서리 지역이 도자기 운반에 용이한 진위천 최상류에 해당되기 때문임, 처인성에서 거둔 대몽 승첩도 몽골군이 남하하는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키던 지역민과 벌인 전투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한반도의 대동맥이라 일컬어지는 영남대로가 용인 땅을 관통하기 때



문에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과 같은 국란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고, 조선과 일본의 상호교린을 위한 외교사절단으로 조선 통신사나 일본 국왕사가 우리 용인을 통과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근대에 와서 신작로가 만들어지고 수여선이 개통되어 일제의 압제와 약탈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광복 이후에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관통하는가 하면 첨단의 경전철이 부설되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과거의 길은 미래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용인은 각종 도로가 사통팔달한 가운데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가장 빈번한 고을이다. 우리나라 발전의 중심에는 언제나 용인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용인은 반도체의 중심지이다. 오늘날 반도체산업이 갖는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땅 위의 길이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통로라면, 반도체는 정보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통신이야말로 21세기에 더욱 필요한 새로운 교류와 소통의 길이 될 것이다.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오늘의 이 작은 전시회가 용인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문명국으로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넓고 밝은 미래의 길을 열어가기를 희망한다.

손대영_ 용인문화원 부원장

II. 미래유물전 6년 아카이브

1. 2015 미래유물전 in 이천

2. 2016 미래유물전 in 평택

3. 2017 미래유물전 in 의정부

4.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5. 2019 미래유물전 in 안산

6. 2020 미래유물전 in 용인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이천문화원 ·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천시, 이천시의회 · **기획** | 문화집합36.5

2015 미래유물전 in 이천

이천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사업개요

사 업 명: 2015 미래유물전 in 이천

전시제목: 이천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전시기간: 2015. 10. 1. ~ 7.

전시장소: 이천시 아트홀

주 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 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이천문화원, 문화집합36.5

후 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사업목적

지역문화원과 연합회가 공동 기획하여 사회경제적 현실의 극복을 위해 경기도 생활 문화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문화예술로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 공동 해결을 위한 네트워킹 구축

기대효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생활문화 아카이브 구축

경기도민 참여 및 생활문화 공동체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기획의도

수없이 출몰하는 사건들 속에서 마을을 만든, 마을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숨 쉬는 역사
일 것이다. 지금 것들은 어제의 것들과 그리고 다가올 미래로의 연장이다. 생각해보면 모
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어 어제, 오늘, 내일은 단절이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
장들의 펼쳐짐이 지금이 아닐까 한다. 이 전시는 어제를 보고 오늘을 성찰하고 미래를 위
해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이 아니다. 순간순간 순정을 바쳐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
기를 통해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일어나지 않은 신비에 대해 꿈꾸고 싶었다. 그들의 삶이
거울이 되어 나의 삶을 바라보는 순간, 그 어떤 것이 각자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발견되길
바라면서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잠재태를 앞에 두고 온 존재로 선택하는 그 순간이 곧 미
래임을 말하고자 한다.

전시주제

미래란 이름을 빌어 지금, 여기를 말하고자 한다.

- 사람은 과거에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미래에 살수 없다는 존재적 한계를 갖는다.
-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존재이다.
- 지나간 시간을 과거라 부르고 지금 지나간 상황을 설명할 뿐이고, 지금을 살며 미래를 상상할 뿐이다.
- 과거에도 미래에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 지금의 선택과 행동 그것이 곧 미래다.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를 통해 삶을 이야기 한다.

-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사물,
- 사물을 도구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 그 일상은 또 다른 사물의 탄생을 불러 삶의 확장이 일어난다.
- 이런 확장은 쓰임에 의해 또는 있음 자체로 일상의 그 시절 그곳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존재하고, 소멸하고 있으며, 스스로 진화하기도 하는 사물을 통해 사람 사는 일상의 징후를 읽는다.

- 관계의 파생 / 역전 / 회복

‘미래’우리는 ‘이것’을 소중한 그 ‘무엇’이라고 ‘지금’‘여기에서’ 말하려고 한다.

- 손안에 있음의 중요성, 사용가치로의 회귀
- 일상의 힘, 일상의 회복

전시구성

<미래유물전>은 총 4가지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이천의 상징이라 할 수

신화가 공시적으로 자유를 향한 현재뿐이다.

먼저의 시간
먼저 속에서 찾는 일상의 아름다움.
손 때 묻은 팔동사니.
가만히 들여다 보는 순간, 내게 속삭이는 사물의 소리를 듣게 된다.
소장품/ 조영호 이천문화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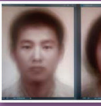

● 또 다른 기록의 시작 "전원 眞實"
현재를 살아가는 사건가로서 지금을 기록해야 한다는 욕망을 당면히 가지고 있다.
세상은 급변한다. 작금의 세태가 발전인지 점점 비태해지고 복잡해지는 피보원전지도 헛갈리는 지금, 우리를 다시 바라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 작품은 이천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역사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미래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유물이 될 것이다.
사진/ 영상/ 남지우




6

● 사물의 분류 "여왕 餘王"
사물들은 말을 건다.
사람들은 제각기 나름의 의미로 대담한다.
생각해보면 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살던 그 때를 더 많이 알고 있다.

이천의 얼굴
(1천사관)
설치/ 리이트 박스
이천의 얼굴/ 남지우, 사진합성
필름/ 미미사진관 소장



이천사람은 누구나 현판을 미미사진관에 건다 | 이우정(이천인물)
1953년 미미사진관을 차렸으니 올해로 62년째 운영 중이
오래전 이천의 아버지들이 다녔던 사진관. 지금은 아들과
왔다.
미미사진관은 기술로 명성을
날렸던 5,60년대, 성실로 신뢰를
받았던 7,80년대를 지나 현재
제 이천사람들의 추억을 기록
중이다.
(2천사관)
설치/ 미미사진관 재현, 텍스트/ 이경무 어르신 구름 속에서
오래된 사진, 소품/ 미미사진관 소장



● 그리고 물
여기에 놓인 원재료들은 스텐리스 조각품의 전신이었다.
인간의 몸이라는 물성과 철의 물성의 경계가 충돌하고
비명을 지르며 허물어지는 그 지점에서 작품은 탄생한다
조각가는 강고한 원재료를 다루려 온 몸의 소리를 들어
음악가는 작업하는 소리를 4가지 곡으로 전환했다.
원래의 작업음과 전환된 곡이 교차되어 전시된다.
두 명의 아티스트가 펼치놓은 각각의 물과 음의 재료는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상상하게 할 것이다.
(2천사관) 설치/ 스텐리스 조각 재료, 미모된 연마기.




작업소리/ 조지키 이윤복, 녹음
콘크리트유적/ 스티(STI), 각1

있는 “구만리돌”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이천사람들의 순박한 심성과 지역의 정서를 보여주는 세 개의 “정”코너가 펼쳐진다. “순정(純情)” “여정(旅情)” “진정(眞情)”으로 이름 붙여진 전시공간을 모두 감상하고 나면 그동안 이천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양식과 지역의 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미래유물전>을 찾는 관람객은 전시실에서 전문적인 해설과 안내를 담당하는 도슨트를 만날 수 있다. 도슨트들은 자원봉사로 참여하며 하루 2회씩(오후 2시, 4시) 관람객들이 전시를 통해 이천의 정체성과 지역문화를 시각적으로 느끼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미래의 신비와 과거의 존재하는 곳은 개인의 신경망神經網인

진정 眞情

물 그리고 돌

이천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미미사(미미)관에 간다

여정 旅情

이천의 얼굴

구만리돌

순정 純情

양정학교 통학 버스를 아시나요 | 통학버스기사 연병욱
여로신(90세, 중포동)

이천인데 유망했던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양정여자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대한 시골부담을 느껴 통학버스를 타게 되었다.

이천에서 살면서 버스를 타는 게 제일 좋았다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 삶의 도전을 따라

아침저녁 학생들과 하루같이 달렸던

차의 운전은 재미 있다

[인터뷰]

텍스트/ 연병욱 여로신 구술 중에서

가족 사진/ 연병욱 여로신 소장

영상/ 양정학교 통학버스 4개의 노선 재현

설치/ 평면지도에 이천 시내 지도영상 겹쳐

양정학교 통학버스 4개의 노선 기록

설치/ 지도에 4개의 통학버스노선과 장소에

대항 기억

일자리 따라 오게 된 이천, 여기서 살거다 | 김종선(SK)
박미숙(43세, 중포동/ 아내 임종선, 40세)

2000년에 시작한 이천에서의 삶, 15년째 이어오고 있다.

사동리에서 시작한 낯선 생활이

그러 어렵지 않게 여겨졌던 건

1층 아파트가 끌어주었던 일

달렸던 김지환국수의 맛과

어린 아들 딸 뛰어들고 찾아주었던 아내를 할머니의 배려와

동네 어른들과 함께 놀았던 용문사의 추억이 알게 모르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아이들의 고향은 이천이니 아이들도 고향을

그리워하겠지 싶어

이천을 고향 삼기로 했다.

[인터뷰]

텍스트/ 김종선 가족 구술 중에서

가족 사진/ 김종선씨 소장

고려인, 박재이스키, 이천인으로 살기 | 신나지(33세, 원호동)/

유미라(47, 원호동)

난 영원 전생애 잊으면 안돼.

비밀처럼 속삭였던 할아버지.

나자씨는 결혼해서 한국인이었던

할아버지처럼 10년째 이천시

강호원에서 산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날아가

결혼하러 왔는데 지금의 남편.

마리나 씨는 남편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에서 20년째 산다.

한국인으로 사는 이들은

‘다문화’라고 불린다.

역사가 만든 고려인, 카레이스키,

그리고 다문화.

우리나라 포항 성지 중 위와

상자는 51%이다.

다문화는 누구인가. 다문화는 존재하는가

[인터뷰]

텍스트/ 신나지, 유미라나 씨 구술중에서

가족 사진/ 신나지, 유미라나 씨 소장

● 구만리돌

이천 사람치고 구만리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천에 살다보면 어떤 계기로든 구만리돌을 만난다.

이천의 꽃줄, 복하천이 선명한 황금빛 구만리돌.

복하천은 호림면을 지나며 배곡천, 동산천, 원두천 등 크고 작은

하천과 합류하여 이천 시내 동남부를 지난 즈음엔 제법 너럭

돌리들이 마칠때 드넓은 구만리돌을 품어낸다.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다 이천IC를 거쳐 사내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구만리돌을 지나야 한다.

면 타지에서 돌아오는 길, 집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누구나 두런 글썽으로 일렁이는 구만리돌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본 경험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천 사람이려면,

[본지실 탐구]

설치/ 구만리돌 재현, 아크릴 거울, 추수한 벼

이미지/ '구만리돌의 만주', 황주 이영환, 지문수목재

● 사람들의 이야기 "순정 純情"

온갖 재탈라기만 했던 농을 수 없는 삶

급나지 않을 것 같았던 살아가기의 반복

외롭고 외로운 일상은 삶으로 모아지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순정이라 부르고자 한다

농부의 삶, 삼대 재현전행동 | 김성희(79세, 원호동/ 아내

서금씨 76세)

충남에서 태어난 김성희 할머니.

모가면에서 트러리고 일 하다가 지금은 서금에 왔어요.

그리고 아들 셋과 손주 여섯.

삼대 재현 전각의 삶을 함께한 210년.

지금도 여전히 충남에서의 삶은,

평고지고 또 평고지고...

텍스트/ 김성희, 서금씨 여로신 구술 중에서

가족 사진/ 김성희여로신 소장



미래유물전

평택, 물로부터 온



2.

2016 미래유물전 in 평택 평택, 물로부터 온

사업개요

사업명: 2016 미래유물전 in 평택

전시제목: 평택, 물로부터 온

전시기간: 2016. 10. 20. ~ 30.

전시장소: 평택 옷다리문화촌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평택문화원, 문화집합36.5

후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평택시, 평택시의회

사업목적

지역문화원과 연합회가 공동 기획하여 사회경제적 현실의 극복을 위해 경기도 생활 문화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문화예술로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 공동 해결을 위한 네트워킹 구축.

기대효과

지역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은 옷다리문화촌이 낡은 폐교가 아니라 근대건물의 전환적 활용이라는 가치로 보존되고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문화 예술의 가치를 재인식시키는 계기 마련

관객들에게 우리 일상이 예술로 전시되는 과정을 통해 예술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평택시민이라는 공통감성을 나누는 공감의 자리마련

옷다리문화촌을 찾는 시민들에게 평택의 정체성을 예술로 기획된 전시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예술감상이 가능하게하고, 향후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유공간으로서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임

기획의도

사람은 과거에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미래에도 살수 없는 존재적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지나간 경험들이 현재를 만들고 있고 현재가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계로서 존재할 수 있다.

미래 유물전은 현현되지 않는 ‘미래’와 지나간 유물이라는 말의 충돌 지점에서 현재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자 기획,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평택 시민들의 공감을 일으키고자 한다.

절대적 진실 혹은 절대적 사실 여부의 물음에 대해 실재하는 모든 것들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만들어 가는 끝나지 않는 과정임을 내·외적 관계망을 통해 찾아보고자 하며, 이런 과정을 예술적 해석으로 새로운 공감방식을 경험하고자 기획되었다.

전시주제

살아있다는 것은 특정한 시간 위에, 특정한 어떤 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간과 상황을 전제 조건처럼 안고 있는 존재 - 우리는 지나온 시간 사이사이, 여러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또 다른 살아가기를 요구받는다.

이런 변곡점을 따라 흐르는 우리 이야기 안에는 물이 있다.

물은 평택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이루고 있는 지금도 유효한 삶의 전제조건이며, 사는 방법을 달리하게 한 원인은 이 질척임이다.

사건의 축적으로 만들어진 이곳 평택,

일어난 사건들을 공유하는 사람들

어떤 마주침은 저 바닥에 깔려있던 기억을 불러낼 것이고, 지나온 일상을 되돌아 보게 한다.

여기에서의 우리들의 삶을 순간 펼쳐보이게 하고,

암묵적 경험으로 우리라는 일체감을 순간 경험하게도 한다.

수많은 나=우리는 평택이라는 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공통의 사실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전시는 평택에 대한 공유된 감각을 일상의 이야기로 다시 불러들이고자 한다.

전시구성

전시는 3가지 테마 -평평 타원의 변주,택澤 동심의 리듬, 반복 있다-있다-로 구성되었다.

평택, 물로부터

살아있다는 것은 특

한 어떤 곳에 있다는

끊임없이 변하는 시간

처럼 안고 있는 존재

사이사이, 여러 곳곳

또 다른 살아가기를 요

이런 변곡점을 따라

안에는 물이 있다.

물은 평택이라는 공통

는 지금도 유효한 삶의

방법을 달리하게 한 원

사건의 축적으로 만

일어난 사건들을 공유

마주침은 저 바닥에

러낼 것이고, 지나온

한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삶

하고, 암묵적 경험으

을 순간 경험하게도 한

수많은 나(=우리)는

시간을 보냈던 공통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전시는 평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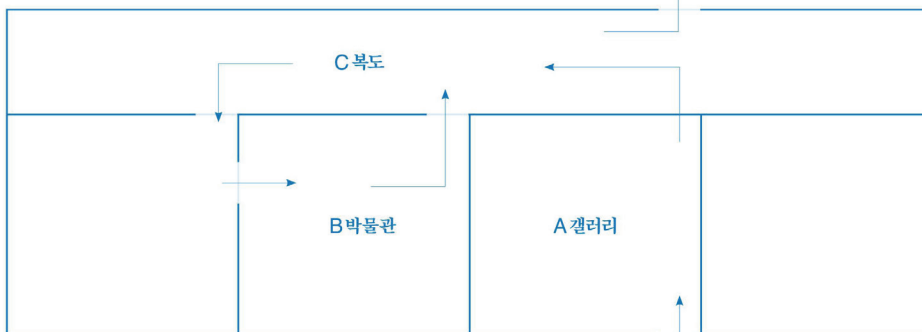
일상의 이야기로 다시

평평……타원(橢圓)의 변주

누구도 더 이상 중심의 중심일 수 없는 다양한 삶.
살아있는 개체 수만큼 세계는 생성된다. 죽어가는 개체 수
만큼 세계는 소멸한다.
끝나지 않는 영원한 이야기는 생성과 소멸을 전제로 한다.
진술하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것이 수많은 타원을 만들
미래세계의 예언이다.

C 복도

- a. 이의근, 76세, 현대면 신왕리, , 2016
- 인원환, 77세, 현대면 신왕리, , 2016
- b. 신만철, 82세, 대안2리 사랑현, , 2016
- c. 노광풍, 77세, 서정동, , 2016
- 안희환, 74세, 원평동, , 2016



반복……있다-있다

[있었]고 [있]고 [있을]것 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우리세계가 단절된 토막 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게 하는 힘
은 이어짐-관계에 근거한다. 세상을 잇고 있는
것이 있음을 만들어 낸다.

B 박물관

장성욱, 지도의 방, carpet, Polycarbonate
Panel, UV Print, LED light, 2016

D 창고

노을의 방, FullHD / Full-time / Video
HD / 5MIN / Video

택……동심(同心)의 리듬

하나의 중심에서 시작된 여러 겹들의 원. 물의 솟음을 근원으로 수많은 것들이 생
성되어지고 있는 진행형의 모습이다.

평택, 그것은 물로부터 시작된 끝나지 않은 겹겹의 이야기다.

A 갤러리

- a. 김병직, 물, 動, Pause, 파동 발생장치, Woofer 스피커, 물, 펌프. 2016
- b. 김병직, 여행, 싱글채널 비디오, 빔 프로젝터, 플레이어, 5.1ch 스피커, 2016

Part I: 묻어둔 기억, 발굴하다 by 소라게주식회사
Part II: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by 필승
Part III: 기억의 현재 by 이한나

미래유물

10.20.
10.26.

극복
D.N.A

展

窮卽變
變卽通
通卽久

미정부예술미전당 전시장
OPENING CEREMONY
2017. 10. 20. (금)
오후 5시부터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미정부문화원

후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미정부시, 미정부시의회

3.

2017 미래유물전 in 의정부 의정부, 극복 D.N.A

사업개요

사업명: 2017 미래유물전 in 의정부

전시제목: 극복 DNA

전시기간: 2017. 10. 20. ~ 25.

전시장소: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의정부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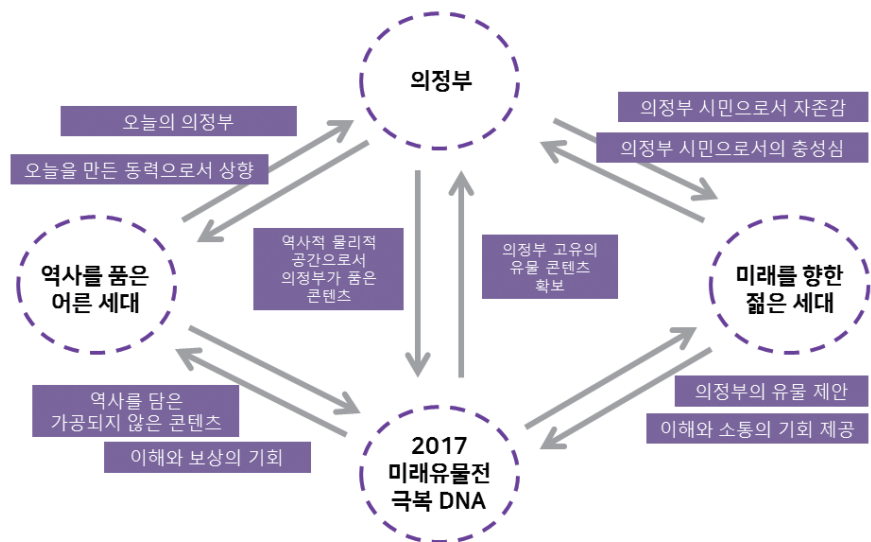
후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사업목적

지역문화원과 연합회가 공동 기획하여 사회경제적 현실의 극복을 위해 경기도 생활문화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문화예술로 공동체회복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 공동 해결을 위한 네트워킹 구축.

기대효과



기획의도

사람은 과거에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미래에도 살수 없는 존재적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지나간 경험들이 현재를 만들고 있고 현재가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계로서 존재한다.

미래 유물전은 현현되지 않는 미래를 지나간 유물이라는 말과 충돌되는 지점에서 현재에 대한 중요성을 튕겨내고자 기획, ‘지금’살고 있는 곳 ‘여기’를 통해 삶의 문화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절대적 타자 혹은 절대적 자아란 존재하지 않으며 실재하는 모든 것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내, 외적 관계망을 통해 말하고자 한다.

전시주제

2017 미래유물전_극복 D.N.A는 고통과 혼란의 근현대사에서 경기북부는 UN군 주둔, 군사 요충의 격전지에서 살아남아 들끓처럼 자생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의정부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했다.

D.N.A는 생명체의 유전정보를 담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형질로 존재의 계속성과 관계한다.

미래유물전_극복 D.N.A는 의정부의 오늘을 있도록 만든 어른 세대의 ‘힘’은 의정부의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유전 정보로 전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어른 세대의 힘을 ‘극복 D.N.A’로 명명하고 그것은 무엇이며 그 구성은 무엇인지 규정하고 정의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내제된 극복D.N.A를 자각하고 그들의 어른 세대에 대한 존경과 의정부 시민으로서의 자존감과 자부심이 되기를 희망하는 전시이다.

전시구성

[Part I: 묻어둔 기억, 발굴하다]에서는

과거를 담은 사물을 주의 깊게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여 어른 세대가 겪은 그들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Part II: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에서는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 6·25에서 전쟁의 의미를 정신적·물리적 허기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의정부에 남겨진 전쟁의 은유적 흔적인 ‘부대찌개’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의 발생과 전쟁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오늘의 시점에서 어른 세대의 기억과 미래 세대 향유의 대상인, 전쟁에서 허기를 극복하기 위

해 발휘한 어른 세대의 지혜, 궁해서 변화시키고 지금까지 통용되는 음식, 전쟁이 남긴 별미들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과 정리의 시간을 제공한다.

[Part III: 기억의 현재]에서는

근현대사 속 어른 세대의 기억이 오늘의 시점에서 반추되는 기억은 어떻게 편집되어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기억(역사)에서 무엇을 유산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각 Part에서는 사고의 단초가 되는 시각적 재료를 제공하는데,

[Part I]에서는

전쟁 관련 사물들을 문화재 발굴의 현장처럼 배치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과거를 함께 발굴하는 과정으로 초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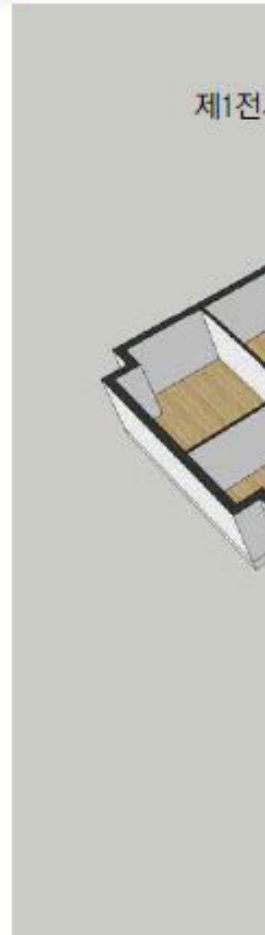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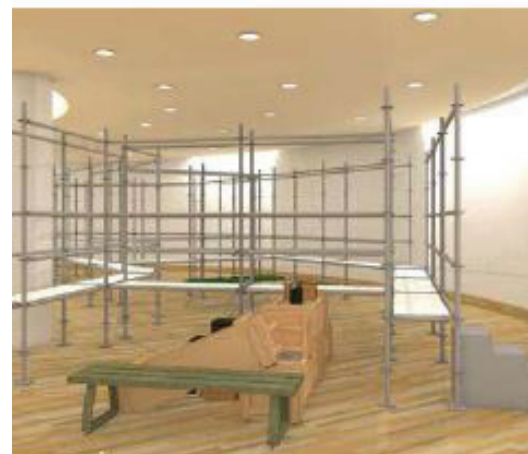
[Part II]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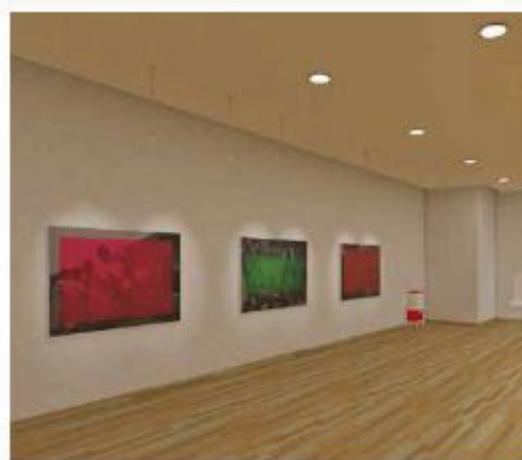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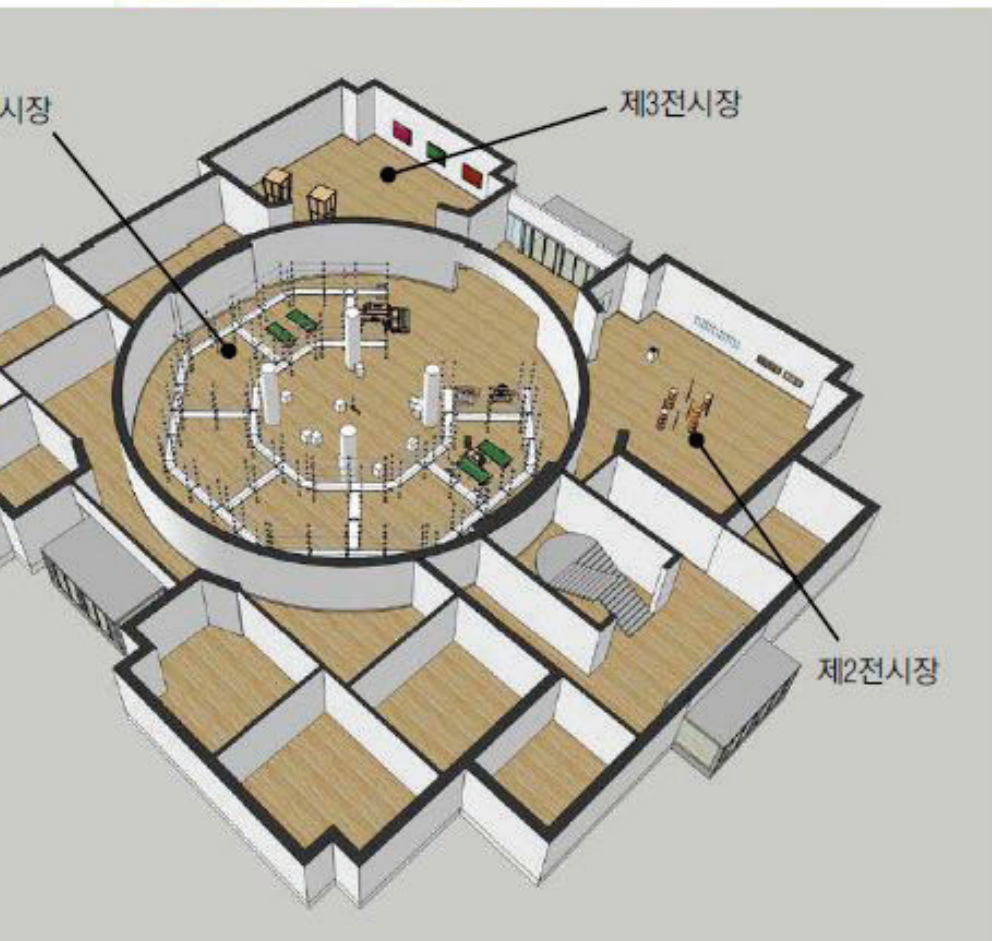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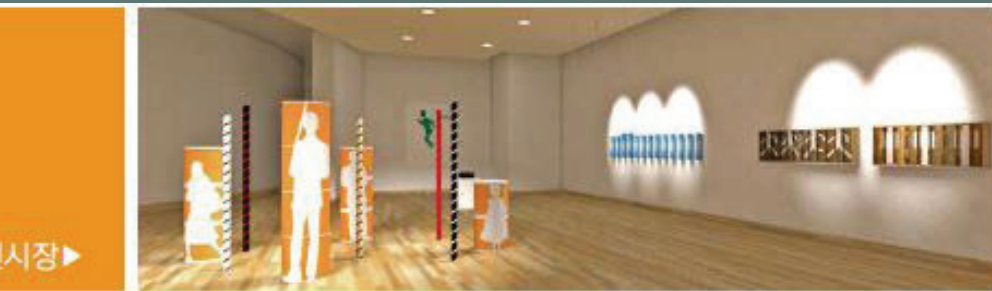
전문 작가의 해석으로 선보이는 작품으로 오감을 자극하여 어른 세대의 기억과 미래 세대의 창의적 생각을 병치·혼합하여 과거와 현재의 일치감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Part III]에서는

전문 작가의 해석으로 선보이는 작품으로 일상이 시간과 섞이며 ‘추억’, ‘기억’으로 우리들의 뇌에 저장되어 다시 재생되었을 때 우리들의 ‘기억’은 ‘사실’과 어떤 간극이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묻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세대별 남기고 싶은 유산(유물 포함)과 물려받고 싶은 유산에 대한 의정부 시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들의 현재의 기억을 미디어라는 타임캡슐에 넣어 보관하는 기회를 가져본다.





2018

미래

유물

展 in 부천

2018.

10.29. 월

|

11.05. 월

개막식 10.29.월 13:00

송내어울마당

아리솔갤러리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천문화원

후원  세계 속의 경기도

 경기도의원
Gyeonggi-do Assembly

 경기도박물관

 부천시의회
Bucheon City Council

4.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사업개요

사 업 명: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전시제목: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전시기간: 2018. 10. 29. ~ 11. 5.
전시장소: 부천시 송내어울마당 아리솔갤러리
주 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 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천문화원
후 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사업목적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 고유성(정체성) 발견
지역의 재구성과 네트워킹 확대 가능한 구조 형성
문화예술로 지역의 문제를 공동 해결하는 소통의 장 조성

기대효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생활문화 아카이브 구축
지역의 정체성과 현재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재구성하여 지역의 미래를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계기 마련
경기도민 참여 및 생활문화 공동체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기획의도

부천에 한국시간 2017년 11월 1일 새벽, 프랑스 파리로부터 기쁜 소식(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선정)은 흥미로운 것이었다. 북송아밭이 지천을 이루던 복사골 부천이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때부터 부천문화원은 부천시와 부천의 문인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심 하던 차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최 “미래유물전”기획전시를 떠올리며 우리 부천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되었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수많은 고민과 회의를 통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함께 주관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전시주제

부천시는 수주 변영로, 펄벅, 정지용, 은성 목일신, 양귀자 등 풍부한 문학적 유산과 각각의 테마를 가진 다양한 도서관 인프라, 그리고 문학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문화사업의 근간이 되는 만화산업,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를 중심으로 하는 영화 산업 발전, 시민저변문학의 확대를 기초로 2017년 11월 1일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에 지정되었다.

부천은 한국 신시(新詩)의 선구자이자 민족시인 수주 변영로, 지금도 널리 불리는 국민동요 ‘자전거’ 및 수많은 문학작품을 남긴 한국 대표 아동문학가 은성(隱星) 목일신, 여성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원미동사람들의 양귀자 작가, 한국모더니즘 시의 선구자 정지용 시인 등 수많은 문인들과 인연을 맺었다. 또한 1973년 부천시가 시(市)로 승격되면서 본격적인 도시 발전과 함께 걸출한 문인이나 작가지망생의 활발한 활동 속에 여러 문학단체가 생겨났고, 이들을 중심으로 각종 문학행사와 동인지 발간, 타 지역 문인단체와의 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래유물전 in 부천’-문학과 사람의 도시(부천)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되기까지 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고자 한다.

전시구성

PART I. [문학 : 기억, 복사골을 노래하다.]

- 부천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학작품을 소개
- 전시 방법 :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문학서적을 수집, 전시
- 주요 전시공간 : 아리솔갤러리 별관

PART II. [인물 : 복사골에 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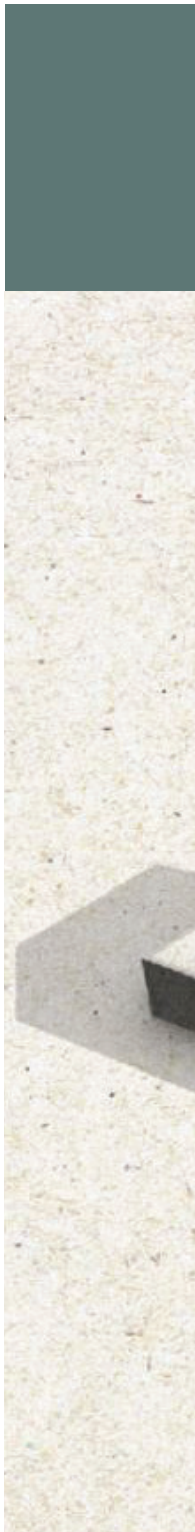
- 부천을 대표하는 여러 문인 가운데 선정된 3인(변영로, 펄벅, 목일신)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문학작품에 녹아든 생각을 소개
- 전시 방법 : 각 인물에 대한 소개와 함께 대표작품의 이미지, 사진 등을 이미지화 한 영상 및 판넬을 키오스크와 DID패널을 사용한 Display로 과거 유물 중심의 전시에서 과학기술과 융합된 복합 전시 기법으로 전시
- 주요 전시공간 : 아리솔갤러리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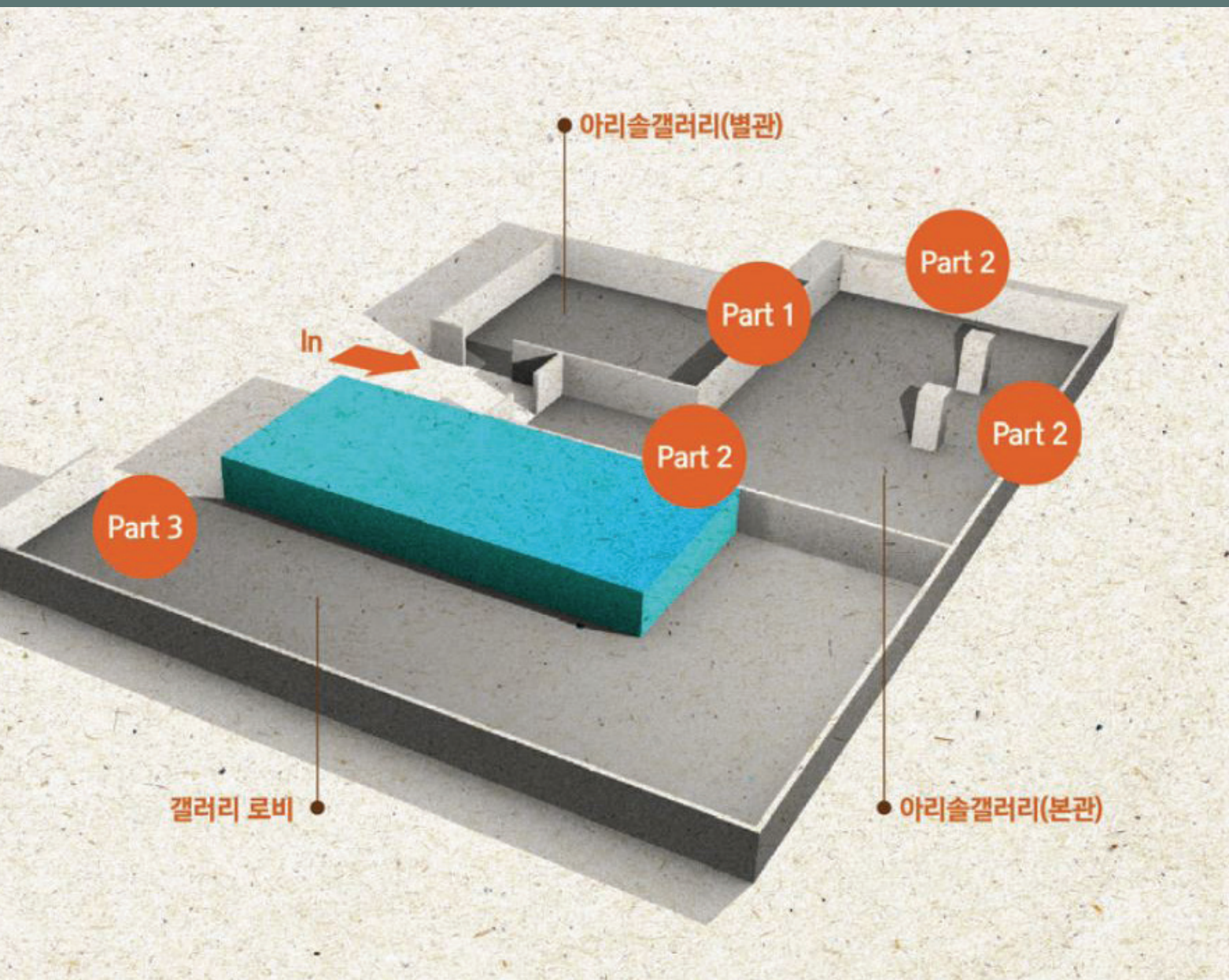
PART III. [창의 : 미래를 꿈꾸다]

-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으로 선정되어 향후 어떤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인지 영상을 통해 그 가능성을 엿봄
- 전시 방법 : 문학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부천을 소개하는 영상 소개
- 주요 전시공간 : 아리솔갤러리 본관

PART IV. [기타 체험 프로그램 : 만화를 만나다]

- 문학작품의 표현의 폭과 저변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만화체험을 통해 가능성을 살핌
- 전시 방법 :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을 위한 편의 및 휴식공간 개념의 만화카페 조성
- 주요 전시공간 : 갤러리 로비





공존(共存)

당신과 내가 사는 곳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킹사업 <2019 미래유물전 in 안산>



후원 : 경기도 · 경기도의회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안산문화원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9. 09. 05 - 09. 15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5.

2019 미래유물전 in 안산 공존

사업개요

사 업 명: 2019 미래유물전 in 안산

전시제목: 공존

전시기간: 2019. 9. 5. ~ 15.

전시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4전시실

주 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 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안산문화원

후 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안산시, 안산시의회

사업목적

지역문화원과 연합회가 공동 기획하여 사회경제적 현실 극복을 위해 경기도 생활문화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 고유성(정체성) 발견

기대효과

작금의 안산을 기록하는 새로운 아카이브 구축

지역의 정체성과 현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고민,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고 지역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 마련

경기도민 참여 및 생활문화 공동체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기획의도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의 기록물을 토대로 역사를 그려냈고, 기록의 빈 공간은 연구자가 찾아낸 기록들간의 연계성에 의해 유추되기도 하고, 또는 기억에 의존한 구술자료들을 모아 채워넣어졌다. 기존의 지역사 연구는 이렇듯 과거에 집중했고, 이렇게 연구된 역사적 사료들은 지역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꾸준한 지역사회 연구실적 덕분에 문화원 서고에는 사료와 이를 토대로 발간한 기록물들이 성실히 쌓여갔고, 수장고에는 역사시대의 유물 위로 젊은 세대들은 겪어보지 못한 기성세대들의 손때 묻은 생활유물이 차곡차곡 쌓여왔다. 언젠가는 다음세대들을 위해 전시장 한 칸에서 그 용도와 시기가 표

기되어 전시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언젠가라는 시기는 곧 빠르게 올 것이다. 어제의 물건이 내일이 유물이 된다고 한들, 이상하지 않을 만큼 빠르게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일을 위해 무엇을 남겨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보자. 우리는 우리가 수없이 그려내고 연구했던 사료들을 선조들이 남겨주셨듯 시대의 흐름의 속도에 발맞춰, 다음세대를 위한 기록의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작업을 선조들의 기록에 의존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현재를 기록해야함을 절실히 느끼고, 이를 지류, 영상, 전시 등 다양한 형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산의 모습을 기록하고, 내일을 위한 아카이브를 구성하고, 동시대의 지역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가시화하여 전시로써 기록하고자 한다.

전시주제

<오늘의 안산> 은 천년의 긴 역사의 시간을 거쳐 오면서, 평야가 넓으면서도 바다(특히, 수산물)이 풍부한 갯벌, 염전 등)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반농반어가 가능한 지리적 요건 덕분에 풍요롭고 순후한 민속 문화를 형성해왔다.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지만, 1970년대 들어 반월·시화공단의 건설로 인해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공업도시로 변하게 된 지역이다.

이렇듯 지금의 안산은 반농반어의 전형적인 전통마을에서 공업도시로 변화하면서, 기존 주민들과 외부에서 유입된 다양한 세대와 국적의 사람들로 삶과 문화가 많은 변화를 겪으며 현재의 안산의 모습을 만들어냈다.

본 전시에서는 현재, 공단(산업단지) 그리고 섬과 생태, 이 상반된 두 가지 이미지의 공존에 대해 그려보고자 한다.

전시구성

PART 1. [안산은 지금 : 누구나 안산을 말하다]

- 기존의 구술조사 수집이 아닌, 누구나 온라인 SNS상에서 쉽고 편하게 기록한 안산의 이미지(단어)를 수집 분석. 이를 안산에 대한 단편적인 감성적 이미지들로 종합하여 전시
- 온라인 이용이 많은 젊은 세대들의 안산에 대한 단편적 이미지 도출
-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사이에서 등장하는 안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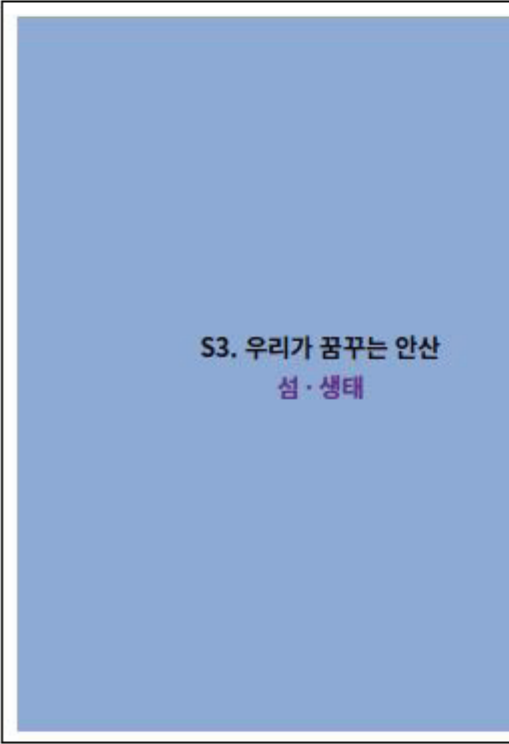
- 참여작가 : 이재형

PART II. [공존 1. : 공단, 산업단지, 스마트허브]

-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 인식 속에 자리 잡힌 안산의 대표적 이미지인 <공업도시로써의 안산>의 모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하여 전시
- 반월공단에서 현재 반월스마트허브가 되기까지 과정을 비롯하여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 삶과 문화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영상 및 생활자료를 통해 전시.
- 회색빛 이미지의 공단 내 공간을 포함하여, 산업단지로 형성된 주거지역의 일상적인 모습을 다각적 관점에서 관찰하여 다양한 색감으로 표현하고 이를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전달하기 위해 영상 및 사진, 그림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전시.
- 참여작가 : 김승택(현지조사 및 생활유물 전시)

PART III. [공존 2. : 섬, 그리고 생태]

- 산업단지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안산의 섬, 그리고 자연환경, 높은 녹지율에 대한 이미지를 시각적, 촉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시연출.
- 현재 안산이 가지는 산업화 ·공업화로 이룬 경제발전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같은 이면에 대해 지역이 스스로 고민하고, 이에 대한 방안은 자연에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생태, 지형 그리고 섬, 그 안의 사람들 등을 주제로 전시연출.
- 참여작가
 - ①강효명(안산 특유의 평안한 산과 생태 그 안에서 사는 다채로운 꿈을 가진 다국적 사람들을 작품으로 제작)
 - ②김동기(섬, 지형 관련하여 작품 제작)



S3. 우리가 꿈꾸는 안산
섬 · 생태



2020 未来遺物展 IN 龍仁



2020.11.16(월)-11.27(금) 시청문화예술원 전시실(2F)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 용인문화원 한국미술협회 용인지부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6.

2020 미래유물전 in 용인 길

사업개요

사 업 명: 2020 미래유물전 in 용인

전시제목: 길

전시기간: 2020. 11. 16. ~ 27.

전시장소: 용인시 문화예술원 전시실

주 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 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용인문화원, 한국미술협회 용인지부

후 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사업목적

고대로부터 한반도 대동맥의 위치에서 민족의 영광과 굴곡의 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용인의 역사문화 원형을 바르게 정립하는 계기 마련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적극 참여시켜 그들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문화 콘텐츠 개발의 동기를 부여함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드러내어 용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100만 시민에게 삶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함
특히 본 사업을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지역문화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내 고장의 역사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학습하는 기회 제공

기대효과

용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화자원 아카이브를 통한 지역문화 보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시민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기획의도

급속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멸실·훼손되어 가는 문화유산을 잘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문화예술 사업
용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작가들의 상상력으로 재해석하여
현대를 관조하는 작가들의 예술혼을 담아 시민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기회 마련

전시주제

용인은 우리나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예로부터 삼남의 관문으로 알려져 왔고 도읍인 한양의 인후(咽喉)에 비유되곤 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삼국시대에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용인은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할미산성은 당시의 시대상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오늘의 이 작은 전시회가 용인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문명국으로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넓고 밝은 미래의 길을 열어가기를 희망한다.

전시구성

용인의 과거·현재·미래의 길

제1주제: 고대-삼국시대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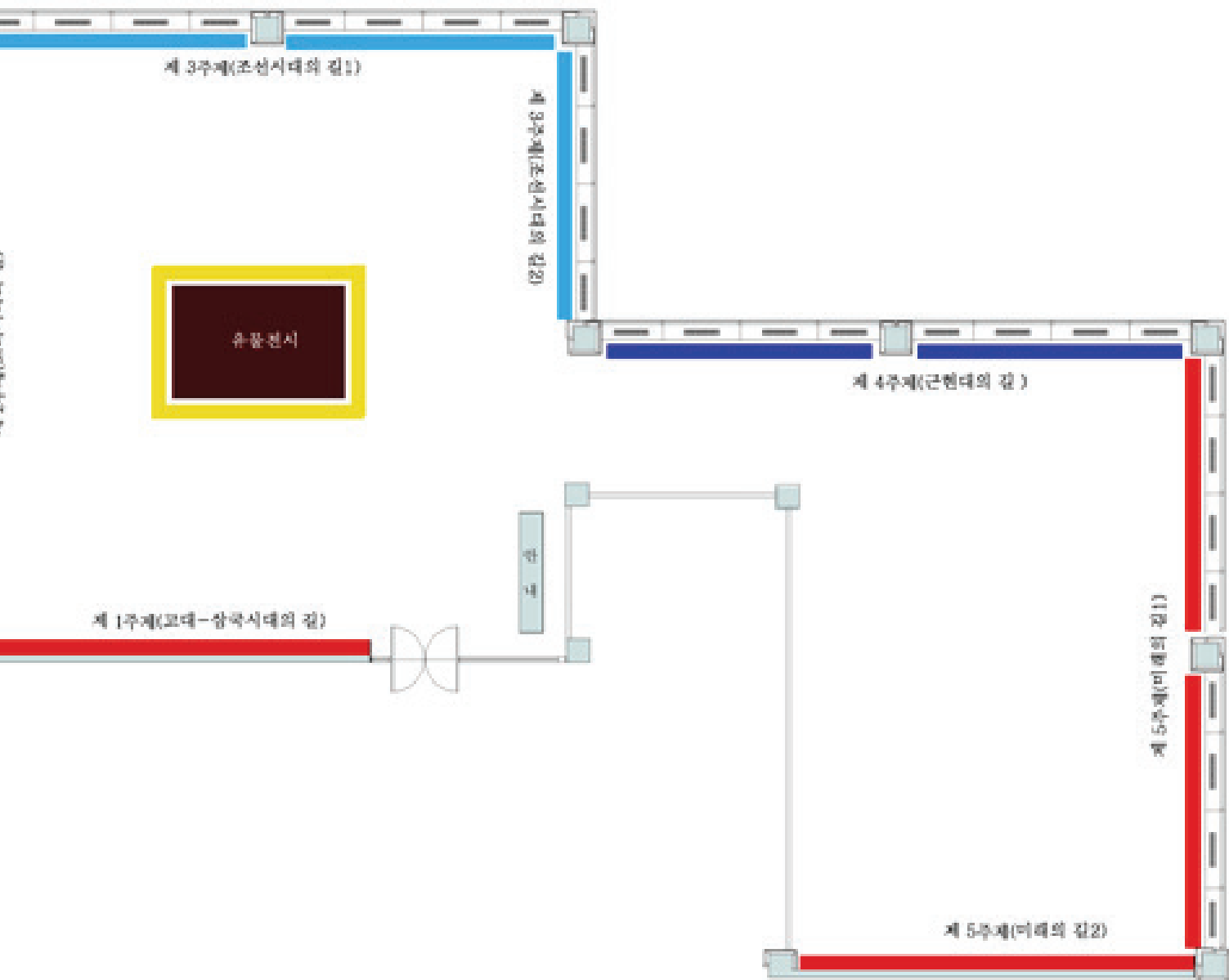
제2주제: 고려시대의 길

제3주제: 조선시대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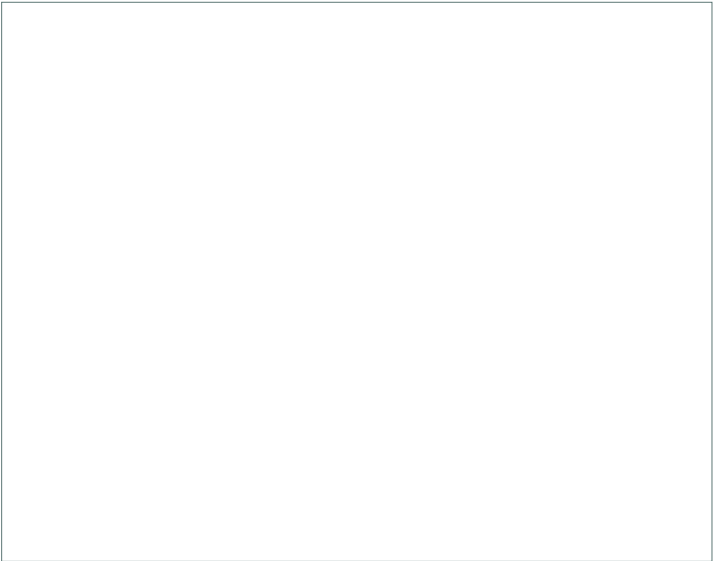
제4주제: 근현대의 길

제5주제: 미래의 길





III. 한눈에 보는 미래유물전: 지금, 여기,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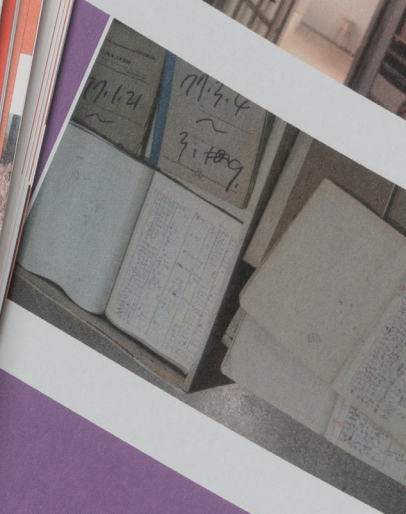
<미래유물전>은 지역문화원과 함께 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아내는 전시이다. 2015년 이천문화원과 함께 시작한 이 전시는 그동안 평택, 의정부, 부천, 안산을 거쳐 2020년 용인까지 6개 지역문화원과 함께 했다. 이 글은 올해 개최된 <2020 미래유물전 in 용인>을 포함해 총 6번의 미래유물전 전시에 관한 글이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면 과거가 되고 유물이 된다. 미래유물전은 과거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의 ‘현재’에 관한 전시이다. 미래유물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여기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유물로 남길 것인가’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도 문화원은 무엇을 미래의 유물로 선택하고, 그 안에 어떻게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왔을까.



미래유물전

이천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이천문화원 ·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천시, 이천시의회 · 기획 | 문화집합36.5



너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2015 미래유물전 in 이천-이천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2015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이천아트홀 전시실에서 열린 <2015 미래유물전 in 이천>은 ‘이천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렸다. 전시는 크게 세 가지 테마-Ⅰ.순정, Ⅱ.여정, Ⅲ.진정-로 구성되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황금빛 들판으로 이천의 구만리뜰을 전시장에 그대로 재현해놓은 것이다. 구만리뜰은 쌀의 고장 이천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장소이다. 이천IC를 거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여김없이 이 구만리뜰을 지나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천 사람들에게 구만리뜰은 집으로 가는 이정표인 셈이다. 구만리뜰을 지나 전시실에 들어서면, 이천 사람들의 구술기록과 생활유물을 만날 수 있다. <미래유물전 in 이천>은 구술기록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정식 할아버지와 서금례 할머니는 3대째 이천에 머물며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랑 얼굴도 모른 채 열아홉 앓던 나이에 이천으로 시집 온 서금례 할머니가 살아온 인생은, 비단 이천 사람의 이야기라기 보단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의 어머니들의 이야기이다. 할머니의 모든 이야기는 가족에서 시작해서 가족으로 끝난다. 어렵사리 키운 자식들의 이야기는 돌고 돌아 친정에 대한 그리움으로 끝맺는다. 그녀는 한 가정의 대들보였지만 동시에 엄마가 그리운 아이이기도 했다.

이천에 본격적으로 시외버스가 들어서기 전, 학생들의 발이 되어주었던 양정학교 버스가 사 연병옥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야기의 진위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할아버지를 제외하곤 양정학교 통학버스를 기억하는 이가 없어 전시기획에서부터 애를 먹었다고 한다. 할아버지와 함께 과거의 버스노선을 따라 가본다. 할아버지는 정류장마다 이곳에서 타고 내리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늘어놓는다. 그는 버스노선을 정류장이 아니라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양정학교 통학버스는 결국 양정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국어선생님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다. 개인의 기억으로만 남겨질 뻔했던 이야기가 지역의 역사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미래유물전>의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한다. 여러 사람의 기억 조각들

이 모여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역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과거의 이야기에서 시작한 전시는 이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제 막 이천으로 이주해온 어느 가정의 모습은 전형적인 대한민국 4인 가족의 표본을 보여주는 듯하다. 엄마의 고향은 진도, 아빠의 고향은 목포이지만 그들은 직장을 따라 이천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기로 했다. 아이들이 나고 자란 곳에 머물러야 아이들의 고향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이다. 이들 가족은 오늘날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언젠가는 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는 노년세대와는 달리, 요즈음 젊은 세대는 내가(혹은 나의 자식이) 가장 오래 머물러 온 곳을 고향으로 인식한다. 과거 애향심은 지역에 대한 향수에서 기인했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애향심은 향수와는 거리가 멀다. 직장과 가까운 곳, 살기 좋은 곳, 교통이 편리한 곳, 교육환경이 좋은 곳 등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에 의해 애향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마지막은 한국으로 이주해 온 고려인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생각해보게 한다. 해마다 늘고 있는 이민자의 수를 고려해보면,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라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자 지역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다.

<미래유물전 in 이천>은 이처럼 다양한 연령대와 특징을 가진 이천 주민들을 이야기를 엮어 이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한다. 개인의 구술사가 이야기로만 존재할 때는 그저 타인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사가 타인에게 공유되는 순간, ‘너’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확장된다. <미래유물전 in 이천>은 ‘이천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부제처럼 이천에서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개인의 사소한 이야기가 전시를 통해 타인과 공유되며 지역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확장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래유물전>의 시작을 알리는 전시로서 매우 의미 있는 전시였다.



농부의 삶, 삶에 매 헌정된 열정
(인상적 75세, 올인원 75세)

올인원에서 태어난 인물이 할머니까지
보가해서도 보지 못하고 할머니까지
시골에 할머니
그리고 아들 셋과 손주 여섯
삼촌도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았던 75년
지금도 어머니와 할머니의 삶은
되고가고 또 되고가고...

《장식 1》 장판 사진 다발, 거울, 구슬가죽 책가방, 80리터
(인상적 75세, 올인원 75세) / 장판가죽 8000mm x 8000mm
1000mm

장판에 붙여 할머니의 삶에 매 헌정된 열정
장판에 붙여 할머니의 삶에 매 헌정된 열정
장판에 붙여 할머니의 삶에 매 헌정된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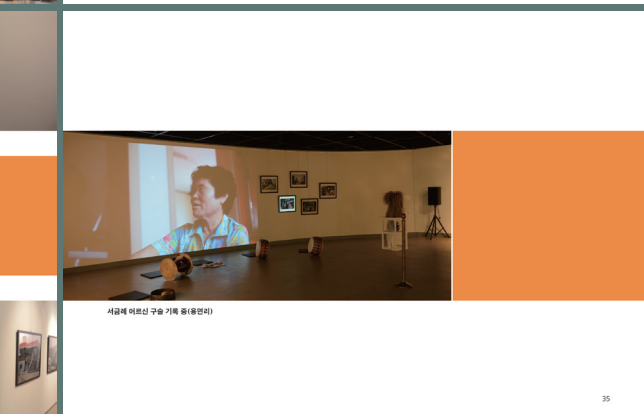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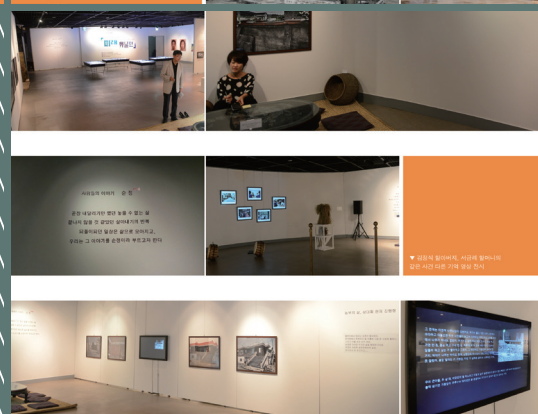
스물 여덟을 보낼 때 적은 간담, 바치고지고간이 나고, 함께 있는 분들이 아끼
나. 아버지께, 한쪽은 우리집 작구로, 가운데가 뒤 동생이요, 옆은 할머니까지
함미다가 안고 있는 할머니랑 내 동생이 안고 있는 할머니까지 감행하네요.
서둘러 시골을 오나라 할머니를 살던간에 할머니와 할머니 아들 작구가 사는
거야, 시골들이 할머니, 아들, 아들 시골이 시골에 딸 두 개서 할머니가 낳은
자식을 어머니가 데리고 오고 내가 낳은 아들 셋하고 다섯 작구가 딸지.
구경에 찍었어. 이 후에 할머니가 낳은 것은 우리 본 게, 할머니가 낳은 것
같은 것들, 우리 할머니가 낳은 우리 시골들이 안고 찍은 거야, 제 작구가
낳은 지 두 달 만인가 안고 나오서 처음으로 사진 찍은 거야, 할머니께 할머니를
맞아가지고, 그녀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한 거라도 찍었었는데 초경도 찍을
게 많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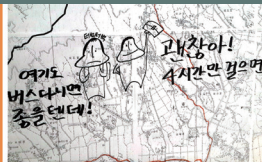
장판에 붙여 할머니의 삶에 매 헌정된 열정
장판에 붙여 할머니의 삶에 매 헌정된 열정
장판에 붙여 할머니의 삶에 매 헌정된 열정



사람들의 이야기 순정純情

관장 내담리만 했던 농을 수 없는 삶
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삶이 내일이면 반복
되풀이되던 일상은 삶으로 돌아지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순정리만 부르고자 한다.





나 이렇게 좋으면 몰라, 좁은 길을, 매일 빵꾸 안나는 날이 없고,
빵꾸 나면 하부모들이 회의해서 수리하고 했지.

응암 휴게소를 지나면서

같은 식재료로 되었을, 다시 한참 재료를 하고 싶어
 하는 건 큰 걸림대 때문. 송광림이는 학교 사무공간이 없어서 한 테이블에 한
 테이블까지 하고, 그때까지 학교 사무원에게, 자기 상거리에 주막집이 하나
 있었어, 이거 다 없었어 저기 가서 알아봐, 저게 받아와야 할, 저
 지 위에 신통도 있었어 그때 한 사람같이 두 사람같이 되어서
 1년1대, 장례 더 들이게 되는데 바스키스 식재했어.
 약자는 자기 사무공간 같이 있어 있어서 그덕에 사람이 많지, 송광림에 잘다지
 자기 사동래에서더 아이들 배우고,
 그 때문에 송광림이 더 하고 싶어 하고 노년하고가 정말 기쁨같이 한 나옴에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호화하고 여주 불고고, 모기하고 여기하고 불어서 온통
 불타버리. 그만 두고 잊치니 우리 명동바스 온전했어요, 힘들긴 했어도 끝은
 아니었어.

길로 돌아가면 다시 한 번 하고 싶어, 이게 다시 한 번 제대로 하고 싶어, 그래도, 양정학교 버스 할 적이 좋았어요, 왜냐면 학부형들이 이렇게 (손을 위로 받쳐들면서) 받들어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양정학교 운전자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벌이가 이 운전자해가지고 벌이가 안되요.

자카용이 너무 많아.

이제서야 70년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다. 당시 시나 시의 내면이나 시대적인 전경을 통틀어 여기저기 고찰하고 양형하고 한 것 같다. 복귀가 아니라, 여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사랑하기를 지시하는 시가 한 편이 있을 수 있는 줄을 깨닫기 이전엔 시가 한 편이 지니지 않았고 부모들의 교육방식이 드러난 시가 지니지 않았고 이는 꼭 들어가야 하는 결론이었다. 시형에서 학제에서 돌아 갈 수 있는 결론은 이었다.

이제서야 하나밖에 없었던 양형과 양형과 양형과 줄을 풀었다는 것은 이전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이다. '양형과 줄'은 나라는 말에 이기 공경과 뒤따라 갖춘 초월된 여성으로 양형물임을 의미했다. 양형과 줄이라는 것은 시대로 출입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도스토로비치는 나의 길에 걸렸다.

1980년 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문헌적 기록을 읽어내서 사적어사였던 나는 종종
 기뻐서 시작했다. 이러한 고대의 속담이 조금 흥미를 끌었다. (그
 85년 12월 20일. 여태껏 내내 가지고 있던 책가사들이 실려서 자취를 하고 있
 주. 내가 제일 아꼈던 친구 동학이 대부분이다. 장영채, 동학씨는 이러한 무반
 열일에서 소환 수완을 지니고 있는 아주 뛰어난(인간, 동학씨의 등장으로 곧
 획을 찍은 셈이다. 바로 농촌사회에서 산업도시로 나가는 시점에 동학씨가 앞만
 2년째 나왔던 것이다. (이
 사담을 문헌으로 찾아낸 연행록 기사 가져와서 문헌을 기술하려고 말씀한다. 장영
 기가 제쳐 놓은 시대를 찾아내면서 연행 서한까지도 도전한 동학씨
 사담을 읽었다. (가
 연행록 기사 가져와서 문헌 하나 해를 나누면서 그 예전(동학씨 문행하던 때)
 지구지각과 대 담로 시작된다. 이따위 글은 다 한 번 제쳐 놓고라도 읽는
 말로 마무리하겠다. 그래도 그 세가 원시사회 대담 때로 받은 예전과도 다른
 동학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동학씨 하위 담을 소진했다. 누가나 할 법한 시
 사담. 땀을 흘린 문헌과 동학행담은 이제 사비도 없다. 겹겹이 덮여왔던 책을
 1년. 동학씨 문헌 2년 2000년대 20년이라는 해산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이시대나
 정보화도 전직 노숙자적 몇 연행록 문헌기사 가져와서 기록을 뒷받침 할 만한 사
 고대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난 본인이 다시 일방적자취자취하고서 국적을 가리지
 선반이다. (이

그 사람이 사실인가? 사실인가?)
(이후 주, 김 장로장과 그에게 서장님)

어디를, 한 지방에서는, 그곳 사람들이 많이 또 다닌다고 대답, 데모라에 대답
면, 데모라에서는 예들이 많이 하기도 하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노인이 두
개나 되고 뚜렷이 따르면 데모라 예들이 학교를 정장하 일씩 왔어요, 처음으로
그것 들어오는 자기가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할 때 후회 면 예들을 시킨 남방 하지 않기 위해서 도시
에서 공부하게 하고, 나머지 잘 하지도 못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예들이 수업을 끝내고 자 이제 데모라 아주 놀았어요,

게네들을 도서살아들어가지고 공부하게 하고...

그때는 학생수가 600명 이상 됐고 되었을때요,

아하, 한 번에 몇명은? 70명도 안되었어요, 그 예들이, 데모라 보다도 데모라
그 전 중, 한달을 걸렸어요, 한달동안 있는 예들이 몇 명 있었는데, 게네들이
성경교에 포진하기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고, 그거로 데모라 중학교, 아니 거기,
데모라, 데틀 아니 한들한거나, 단원지 거기 사는 예들이 몇명 정수나, 데 하나
하고, 물론, 정수 사는 몇몇이 있었요, 그런데 그때 당시가 이천초나 이천중이나
학교에 안있었잖아요, 성씨야, 그런데 게네들보다 월등히 그후예들이 훨씬
수가 훨씬 많았어요,

공부를 시키니까, 우리 만 예들을 시키니까, 그후 사는 예들이 전부다 같이
시 공부할 뻔한 거예요,

그때 우리 면에 1등은 아냐, 그후 사는 애가 2등인가 3등 했는데, 아하, 그때
당시엔 이제 두등자가 정장하 힘입었거든요,



43

죽았기 맞은 건 제 2회 고창, 이천
 달궁전, 제 2 고창은 진교고, 남원 고창은 복교로
 알려진 SK하이스에 다녔던 걸요. 회사 때
 이천으로 왔고, 저는 장기로 연애했다기 결혼한
 여가에 정착했어요.
 옥수민씨요, 저는 중 1때 학교 때문에 복교
 하신 했어요. 그땐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사
 도서관에서 장학 때 받았노.↓
 김동진 어르신 회사 때왔에 왔어요.
 제과 연구개발과도 보니 하디니스는 전직회사여
 때문에 어떤 분야든지 다 할일이 수 있었어

최초로 인사팀에 입사해서, 5년 있다가, 노사협이 7년, 현재 중용팀에는 2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전라	무관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
도에서 왔지만 회사에 왔도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는 식감이 있어 때문에	해서(그렇지는), 주변을
음식에 대해서는 가족감이 없어요,	적어하는, 모뎀처럼
2000년에 입사해서 2002년에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전라도 사람이고 음식을	지켜하는 가족감이 들어요
좋아해 하거나 별로 모르겠어요	가족살할 때는 팔레트
처음에 이주에 왔을 때 어렸을 적, 전라도 장주처럼 무언이 없고, 잊거든요,	30평이랑 여섯을 지어는

[illegible]

◀▶ 가족사진



45

게 있을까?를 나름(고민을) 하다 보니까, (생각) 중요하게 아니라 애들 고향은 도대체 어디지? (생각) 태어났고, 애들은 스물살이 되어도 자기 고향 살아갈 날이 우리가 살아갈 날보다 많을 테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수도권, 서울에서 공부할 한 (쉽게 집에) 올 수 있잖아요.

아~ 이천에 살면, 애들이 수도권에서 공부하
이리로 내려올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후에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손자들을
행복할 수 있는 곳 역시 이곳이란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나이가 들어 노년에 또 다른 소중한 추억을 하게 되면서, (또) 다시 땅을 보러 다녔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땅을 찾다, 드
하나 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은 열심히 텃밭가꾸고
심어놓은 상태라 가을의 알찬 수확도 얻을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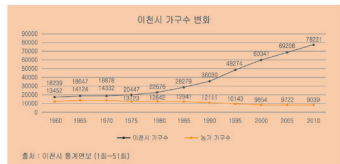
놓았는데 많이 자라면, (2년 전에 구입해서

(이제) 이천 사람 다 되었죠?

들어와 이천에 정착하게 된 지가 벌써 15년이 넘

제가 제 고향에서 보낸 시간보다, 이천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게 되는 거죠.
직장 때문에 왔지만,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으니 한 마디로 이젠
(이곳이) 제 2의 고향이 된 거죠. 이제 여기서 추억을 만들어야죠.

이전엔 'city'이지만 좋은 이미지가 강하다. 길모퉁은 변질된질한 일부회는 낯서 참으
에 베풀 투해이지만, 결혼가는 물은 승용차, 트럭도 드나들 수 있는 큰 대로, 농업에 필
요한 물건으로 가득 찬 여러 개의 창고, 대가족이 모여서 검조사를 치를 수 있는 큰 거실
등 전형적인 농가의 모습이었다.



이전 농부 인터뷰에 이어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가능한 구조의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며, 대입을 직면한 40대 가정을 둔 4인 가족, 예측 가능한 미래는 아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들어서자 흔한 아파트 구조이지만, 트렌드인 복욕룸 스티일이 아닌 고가구가 놓여져 있고 옛 금중전화, 다이얼 전화기, 카세트 등 오래된 물건이 어우러져 있다.

회사 동료들이 이전보다 편리한 생활권으로 이사를 떠날 때,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일을 위해, 통근시간이 짧은 회사 인근으로 거주지를 정하였다. 그리고 이 부부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동안의 일상을 선물로 주기 위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내 고향인 '이천' 프로젝트, 자녀들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고향이 되도록 인근에 작은 땅을 산 것, 앞으로 집 지을 예정이다. 지금은 뒷밭에서 고구마 농사를 함께 짓는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중요한 시험 전날처럼 잠을 설치다는 김홍성
 님, '저는 말이 많지 않아요'하지만 무슨 질문이든 조리있게 답변하시던 부인
 양운산 님, 쇼파에 앉아 훌쩍훌쩍 쳐다보던 사춘기 딸 김나래 양,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몰라 무서웠다고 하던 아들 김나우 군 식구의 모습은 오순도순 가족
 자체였다.

‘이전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종선 님을 만나고선 다음 글귀가 생각이 났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다수가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어떤 사람들이다.”

《은희경의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 한다』 중에서》



유머리나(41, 안흥리)

저희 부모님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못 사니까
집을 팔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를 가요,
우즈베키스탄 말도 모르고, 전혀 다 러시아에
이주했어.

할아버지는 한국인, 아버지는 고려인이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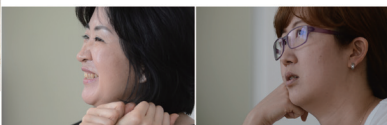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아사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요.
우리가 원래는 모스크라도 가고 싶었는데 우크라이나사람들이 전쟁 때
말이 와서 안되고, 그래서 클라디보스크으로 선택되었어요. 하락을 맡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고려인들이 많아요.
제자랑, 떠들, 춤이 잘기 다문화 차안사단, 시민경찰도 해요 그리고
다문화 카페에서 네치 잘고, 바쁘게 일하면서 살고 싶어요.

신나자(33세, 강요한)
한국의 인연, 시작은 정말같은 사건 한桩이었어요.
시작은 유치했어요, 친구가 사건을 올려 보자고, 어떻게 알아? 인연이 올
모르잖아?라고...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아까 지금은 딱 뻔 생각해 볼
이 사람이 나몰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뼘 봐야 되겠다, 가서 보니까 인
연이요, 켄달은! 너무 켄달은데, 이렇게도 켄달은 할 수 있겠
잖아! 했어요!



어머님이 만났을 인간은 방법을 가르쳐주실 때 어머니 것 없이 제게 들었
같이요, 김치도 주셨어 아이라요, 한 달동안 거러서, 깎아서 돌아가니까,
알아서 어떻게 먹어야 하고 또 피고요!
알아버지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살았어요, 어머지는 카라소르한테서 태어
났을 때 우즈베키스탄에 오기 전에요, 거기서 대학교 졸업하고 열아홉
살이던 카라소르한테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어요, 지금은 카라소르한테 열두
살이더러 한타어를 배워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카라소르, 풍랑사랑, 풍랑사
랑이요, 한타어 배운 거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한국사람들한테 러시아어를
설 수 있고요, 동생이 실용국어에서 박사과정 중인데 아르바이트하고
역사를 하고 있어서요, 김치와 김치에서 맛과 색깔을 갖게 됐어요.

(제가 사는) 주변에 큰 병원도 없고,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병을 옮기는 걱정까지 아직은 못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말 하나, 7살 아들 하나예요. 동생이 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조금 외로웠어요. 그런데 동생이 오고 크게 외롭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2년에 1번씩은 갔었어요. 아예 초등학교는 없거든요. 집까지 갈 때는 걸었는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나 학원에 가야, 한 번가면 1달이거든요. 학원도 해야하고...



그런데 내년에는 갈 예정이에요.

고려금주머니 결속하는 결 신화하기도 하는데, 만능 지 비수(하늘) 그 때, 한국 역사에도 결코 불행하지 않았으며, 카키호스신(신속도) 나트 말로 그 때, 세계 각국에서 고려인들이 지 카키를 잡고 인질로 삼고 나트 갈아, 후즈 카키신에서 카키호스신으로 취급하기는 경우도 많을 것 같으며, 러시아어, 경제교육이 활발해지므로, 돌이킨 뜻의 스페인말 말이 붙은 나라에서 아마 재물거래로, 스페인은 돌로 만든 도끼라는 뜻인데 길이나 큰 건물들을 돌을 사용, 시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지 되었으며,

[illegible]

갑자기 우즈베크어를 할 수 없잖아요. 놀이터 나가면, 러시아어 쓰는 애들은 그 애들끼리 놀고, 우즈베크 쓰는 애들은 그 애들끼리 놀고,

최근 이천을 구성하는 새로운 사면으로 결혼이주여성들과 이주노동자들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다문화합치를 방문하였고 고려인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나자 씨와 류미리나씨는 고려인 3세대다.

[illegible]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평균치가 51%로, '다문화'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연구자들은 엇갈린 결론을 내었다.



이천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미래유물전”이 나오기 까지

1. 에피소드

“박서방 여기는 깨끗이 정리하고 공구리 싹 쳐야해!”

“어머니 그럴 것 같으면 뭇 하리 여기까지 와서 집 짓고 살아요!”

2006년부터 산기슭에 집을 짓게 되면서 가끔 장모와 사위 간에 벌어지는 입씨름이다.

은 좋은 것이라는 호불호가 명확하다.

흙이 부슬부슬 떨어져 나오는 흙 덩어리라거나 비 오면 질척이는 알 마당은 나쁜 집인 셈이다. 그러나 알마당에 콘크리트로 배를 것인저 흙으로 남길 것인저에 대해 엄마의 판단은 이미 끝나 있었다. 내 엄마뿐이겠는가, 미끈하고 반듯하게 올라간 옥상집이 신식이었든 때를 살았던 지금의 어머니 아

비치려는 당신이 살아있던 지난 시절과 삶은 지적분류가 짝이 없던 것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금만 넣고 끓였던 김치국이 지금 것 보다 훨씬 맛있다는 옛 얘기를 듣다보면 단지 주거환경이 지적분류서 살다는 것보다도 살기 쉽지 않았던 고된 일상이 아마도 그렇게 느껴게 하는 것일 거라고 혼자 추측해보곤 한다. 왜 아니겠는가. 두 번의 변환을 겪으면서 살아있던 하루하루가 되돌아가보고 싶은 추억으로 기억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2. 기획의 시작

지금 미래유물집이 태어나게 된 것은 그동안 지방문화원마다 향토연구를 통해 축적되어 있던 마을지와 문화지원들에 대한 지역민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자료들이 있다는 것, 어르신들의 삶이 묻어있지 않게 모으다는 우리로 몇 해 전부터 유행했던 구술 채취방식을 달리 해보자는 약간의 무모함도 전이었다.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자료들의 시각화로 문화원의 활동을 알리고자 전하려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르신들의 삶이 묻어있는 물건들을 전시하노라면 자연스럽게 물건에 얽힌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데는 도구가 필요하고 이 도구들의 변천이 삶을 변화시키기도 했으니 사물이 끌어내는 스토리에 기대했던 것이다. 내 삶은 초라해 물러섬 말이 없다는 평어막을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전락이었다.

한편으로는 오래된 것은 전통이고 전통이라는 이름을 달면 보호 받아야하는 정당성을 확보해 버리는 것에 대한 피착함도 들어있었다.

여기에는 유물과 문화재를 중시하는 올드 한 것들의 집합소가 문화원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 절실히 하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자문이고자 했다.

3. “순정”이 나오다

전시는 말 그대로 펼쳐 보이는 것이다. 기획을 보여주는 무엇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세속적물을 전지하는 것도 아니면 문화적 유희를 전지하는 것도 아니었다. 미학과 연연인 것도 미례의 유희가 무엇이었는지 전혀 모르는 모양이 할 것이니, 이 지점에서 유희이라는 말과 미례라는 말의 부가치를 혼재해 내었다. 작년엔 이를 유희로 이어지는 한 모습을 보지만 과연 미례라고도 미례의 유희라고도 풀이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고인이었다. 이 지점에서 고인의 문장을 읽었다. “무엇이 미릿을 싹트게 하느냐, 단풍이 붉어짐을 싹트게 하는 싹이 싹트게 만들 때 하고 고인이지 그대의 지름을 싹트게 하느냐”고.

힐미는 고인. “그대는 순정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 주었던 윤복재 신랑님의 딸 같아 아니었다.

어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전지 시작부터 전지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애정 어린 밑도 다독여주셨던 지지 덕분이었다. 그렇다. 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나의 지식인장제 즉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순간순간을 넘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지를 용원해 주셨 게 사람들의 이야기는 순정으로 수렴되었다.

특히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온 결혼이주여성 고려인들을 인터뷰하면서 '다문화' 안에 들어있는 역사와 개인의 일상의

다. 우리나라 귀화성씨 51%라는 팩트를 함께 전시했다. 다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자고 말 걸고자 했다.

이제 되시는 양정학교 비스훈단사 연방을 아저씨 전시는 사실여부 확인이 한 돼 한참을 애먹기도 했다. 그때 생각하면 거짓조리나 인터뷰가 끝나갈 즈음 젊을 시절로 돌아가시면 될 하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에 '혼전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말해줬던 기억이 남는다.

▶▶기획 방향

- 마을이 만들어지고 도시화되는 과정에 사라질 소중한 생활문화 유무형 자산을 기록, 지역을 이루었던 이야기들을 전시키는 시각적 방식을 활용해 이천 지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시.

[illegible]

- 소위 진동이라는 이름으로 보면 되었지만 문화재적 유무형의 것들 이외, 그 동안 마을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이야기와, 지금을 만들었고 만들고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동안의 활동으로 축적된 이천 만의 자원을 재발견하는 장으로 삼아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을 미리 달겨와 지금을 달라고 자 합.

현재의 삶이 미래시점에서는 소중한 무엇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자 했다. 현재 겪게 마음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부모세대가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들과 경험들이 '이전'이라는 지역을 이루고 이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로 '저녁' '일상'의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했다. 쉽게 말하면 '저녁' 율동이 된 동전은 어느 시점에서는 그때의 일상의 물건이 아니었겠는가 그렇다면.....'으로 시작 된 전시다.

4. “여정”과 “진정”이 따라 나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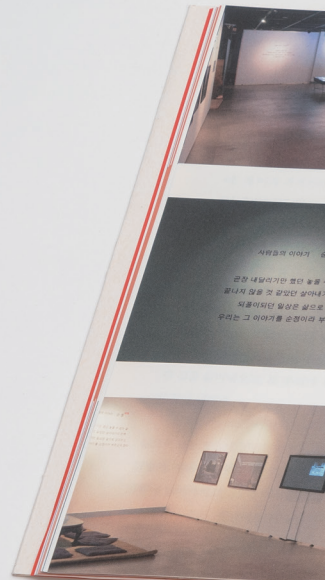
순정이 철폐되고 나서 사물의 아가라는 자연스런대로 여겼으니 틀리지 않았다. 더구나 미사지진이라서 대중화해서 아이마마의 기초를 잡는 전제에 상응해서 생명을 담아야 했다. '이런것이 아니라구나' 한탄은 미사지진에 대한 '그다' 같은 지체와 불신을 전제조건으로 풀려나왔다. 이 담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만큼 3대에 사전을 써고 있는 미사지진. 이현재의 사지문 유행은 62년이 지난 사지문 이전의 사지 책의 절반은 70년이 된다고 한다.

1967년의 중흥대 100장을 넘어서 이전의 그 시대 보통의 넘사칠 일상을 재현했다. 그리고 1984년 미박한 순회집 일과로 2000년의 넘사칠 날과 넘사칠 길을 넘사칠 것으로는 결과를 넘사칠 시켰다.

미미사전관을 재현하면서, 그 시절 속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미단이 문을 닫았다. '드르륵!' 미미사전관이 선물한 추억의 소리였다. 지금도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기에 추억을 더듬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지금'의 중요함이다. 미미사전관은 전시회를 테크럽게 해주었다.

사람의 이야기에서 사물의 은유로 넘기는 다의적함을 필요이상으로 충만히 해주었다. 이전의 조각가 이용복에게 코리는 조각 작품을 만들고 남은 재료를 쌓아놓고 작품을 만드는 소리를 함께 전시켰다. 작품은 미끈하고 아름답지만 실은 그것의 물성은 이런 것이라야 했고 땀으로 드러났다. 재료와 작품이 되기까지 사람의 에너지는 아마아마하게 들어갔다. 그러나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방식으로 전시키고자 했다.

그 외 조명호 이천문화원장님의 수집백(?)을 적절히 활용한 코너 먼지의 시간은 원장님덕에 놓여있는 장식장 그대로를 떠(?)왔다. 작지만 소중한 시



간이 담긴 물건들. 물건은 구할 수 있으나 그 안에 담긴 시간은 누구도 갖지 못한다. 한 사람만 빼고, 순정과 여정을 하나씩 만들어가던 분과 아들과 가을 초입까지의 작업들이 작업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전의 기록을 기록하던 시간. 이 과정은 작업에 동참했던 남지우 작가가 받아 주었다. 전경이라는 이름으로 한 코너가 완성되었다.

5. 이전은 역시 구만리 들

'내에게 구만리들은 고심의 작업이었다. 지금을 말해 왔지만, 아기를 표현할 시각적인 그 무엇. 즉 이전을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가 문제였다. 머리에 떠오른 것은 '별'이었다. 처음에는 오래전부터 정미소를 운영해 오던 이보선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 이분의 삶을 기록하여 이전을 상징화하려고 했다. 약했다. 정미소는 이전이 아닌 다른 곳도 있을 것이고, 정미소만으로 향을 대표하는 이전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 때 생각난 것이 구만리 들 있었는데, '꼭! 오는데'-라는 이전사람의 말에 구만리 들에 못해버린 것이다. 구만리도 아닌 구만리를 시각화하는 것. 겨울 땀을 만드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위험하기도하고, 겨울을 세우자니 대항공사가기도 했다. 전시실 안의 풍사 작업을 담당해 준 '물수집'과 '목수집'을 만나지 않았다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전은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내게 안겨주었다. 그리고 남은 큰 문제는 배 수급이었다. 용케도 이원국장님의 도움으로 이래저래 상황을 풀려 해나갔지만, 두고두고 웃으면서 속(心)할 추억으로 남아 있다. 전시 오픈 하루를 사이에 두고 출력올리했던 것을 누가 알아... 싶다가도 많은 관람객들이 구만리 들 안으로 들어가 사진 찍는 것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나온다.

6. 전시 설치물 마치고

이번 미래유물전의 최대의 커제는 민속유물전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옛날 물건 많이 구했나? 별 정이나 구했나? 전시를 리징하는 분들의 질문이었다. 이제 반해 전시와 관련된 조언을 구하러 갔을 때, 한 마디 말씀으로 정신 번쩍 들게 해주신 분이 이인수 월련미술관 국장님이셨다. 전시 컨셉에 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때 민속물품을 전시하면 민속박물관 전시와 다를 게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민속박물관 전시처럼 하려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이것이었구나. 어사무사하니 속이 편하지 않았던 정체가, 이 한 말씀으로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이 급속히 정리되어 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시를 보고 당신의 이야기가 실지되어 있는 것에 고마워해 주시는 이야기 주인공들에게 무한의 감사 할 따름이다. 전시 개막일에 이기 철기해주셔서 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었다. 사전에 미리 감수를 받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시 고맙다고 가을에 수록한 두 번째 고구마를 보내주신 김종선SK 책임자님께 농사도 꽤 잘하신다고, 그리고 잘 먹었다고 지면으로 인사드린다. '뭔가 있던 있을거야'에 의지해 10여 개월을 믿고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열심히 전시장에서 공부하고 관람객을 위해 안내해주신 이원문화원의 도슨트 자원활동가들, 무족한 전시를 즐겨주신 이원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원시민이었던 나도 봄, 여름, 가을을 한껏 들며 보낼 수 있어 감사했다. (민병호)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평택문화원
후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평택시, 평택시의회
기획 문화집합36.5

미래유물전
평택·물로부터
2016.10.20~10.30

경기문화재단
평택문화원

미래유물전
평택, 물로부터
2016.10.20~10.30

개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지역

2016 미래유물전 in 평택-평택, 물로부터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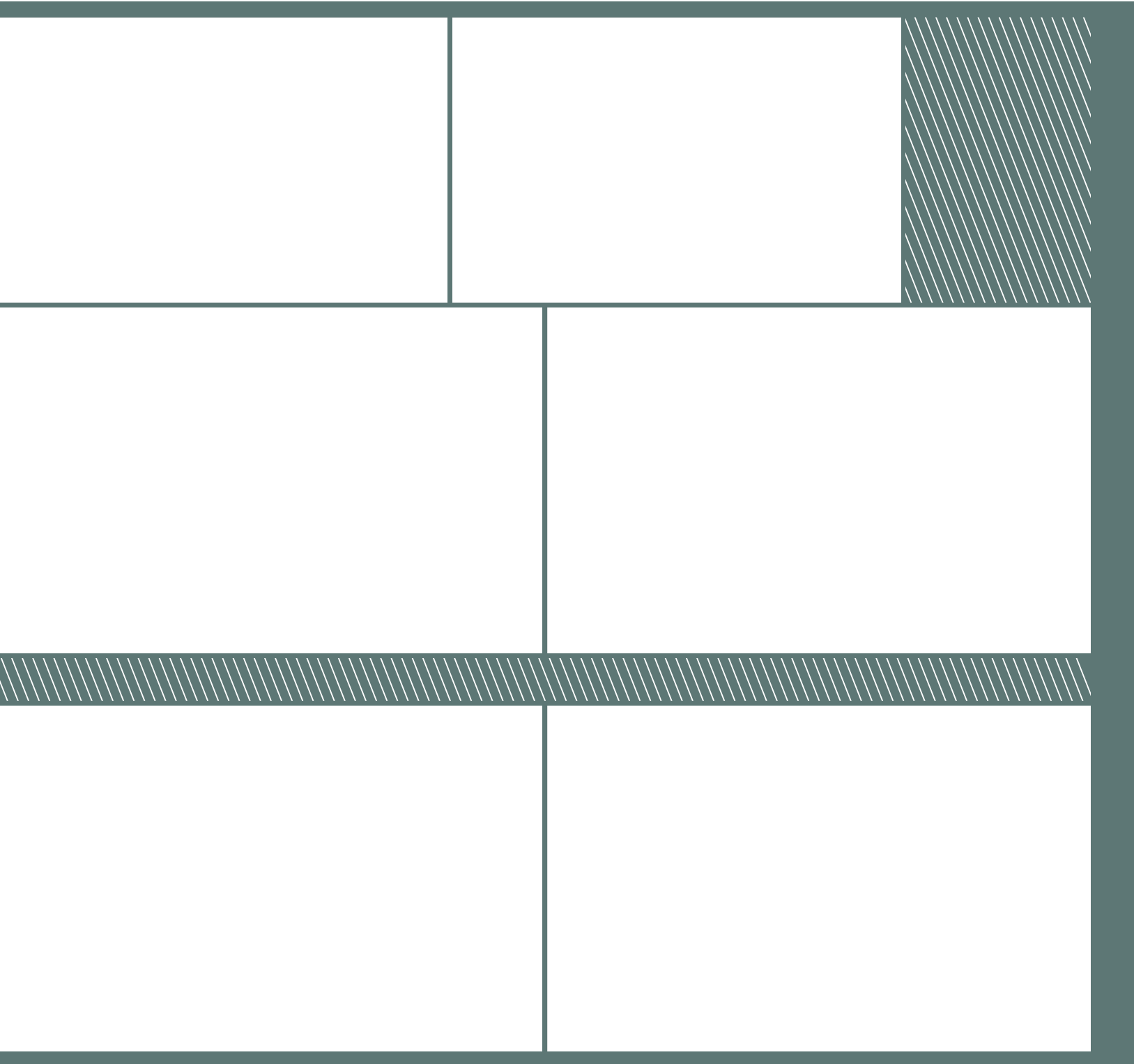
<미래유물전> 두 번째 전시였던 <미래유물전 in 평택>은 ‘평택, 물로부터 온’이라는 부제로 기획되었다. 전시기획을 맡은 문화집합36.5와 평택문화원에서는 지금의 평택을 있게 한 세 가지 요소를 ‘철도 및 도로교통의 발달’, ‘아산만 방조제로 인한 지형과 삶의 변화’, ‘미군기지’를 꼽으며 그 가운데 ‘물’이라는 소재를 뽑아냈다. 위의 세 가지 요인 모두 ‘물’에 기인한 것이며, 결국 평택(平澤)은 그 이름답게 물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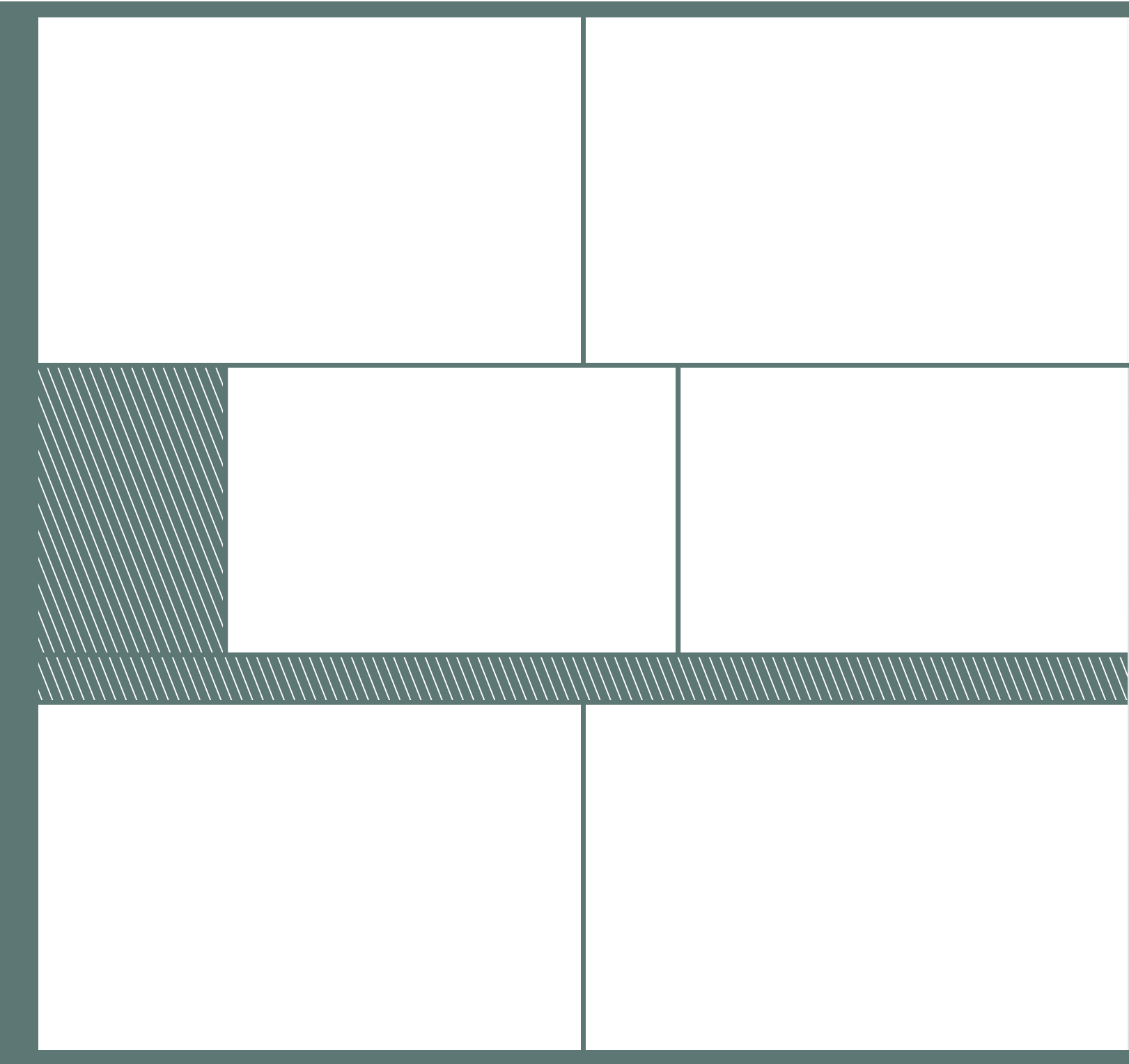
전시는 크게 ‘평-타원의 변주’, ‘택-동심의 리듬’, ‘반복 있다-있다’로 구성되었다. ‘평-타원의 변주’에서는 물로 인해 삶의 형태가 변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산만방조제가 생기기 전까지 고기잡이를 하던 이의근, 인원한 어르신과 지금까지 때마다 동네 제사를 행기는 신만철 어르신.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드러난다. 어르신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시계’를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보인다. 이의근, 인원한 어르신은 물이 들어오는 시간인 물때를 중심으로 당시를 회상하고, 신만철 어르신은 풍어제, 산제, 동제 지내던 시기를 중심으로 기억을 소환한다. 고기잡이하던 당시 평택은 인천과 물 들어오는 시간이 달라 고기잡이 때가 달랐다고 한다. 어르신들은 그 때를 몇 시 몇 분 정확한 시간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몸에 체화된 시간은 본능적으로 그 때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르신들은 각자 나름의 ‘평택의 시계’를 가지고 사셨던 셈이다.

‘택-동심의 리듬’에서는 ‘물’과 ‘평택’에 대한 이미지를 시각화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병직 작가는 평택을 ‘흐르는 물’과 ‘정지된 물’을 통해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여행>(2016)은 잔잔히 흐르는 물의 이미지 위로 평택의 풍경과 평택 사람들의 모습을 중첩시킨 영상작품이다. 흐르는 물은 지금까지 변화해온 평택을, 앞으로 변화해 나갈 평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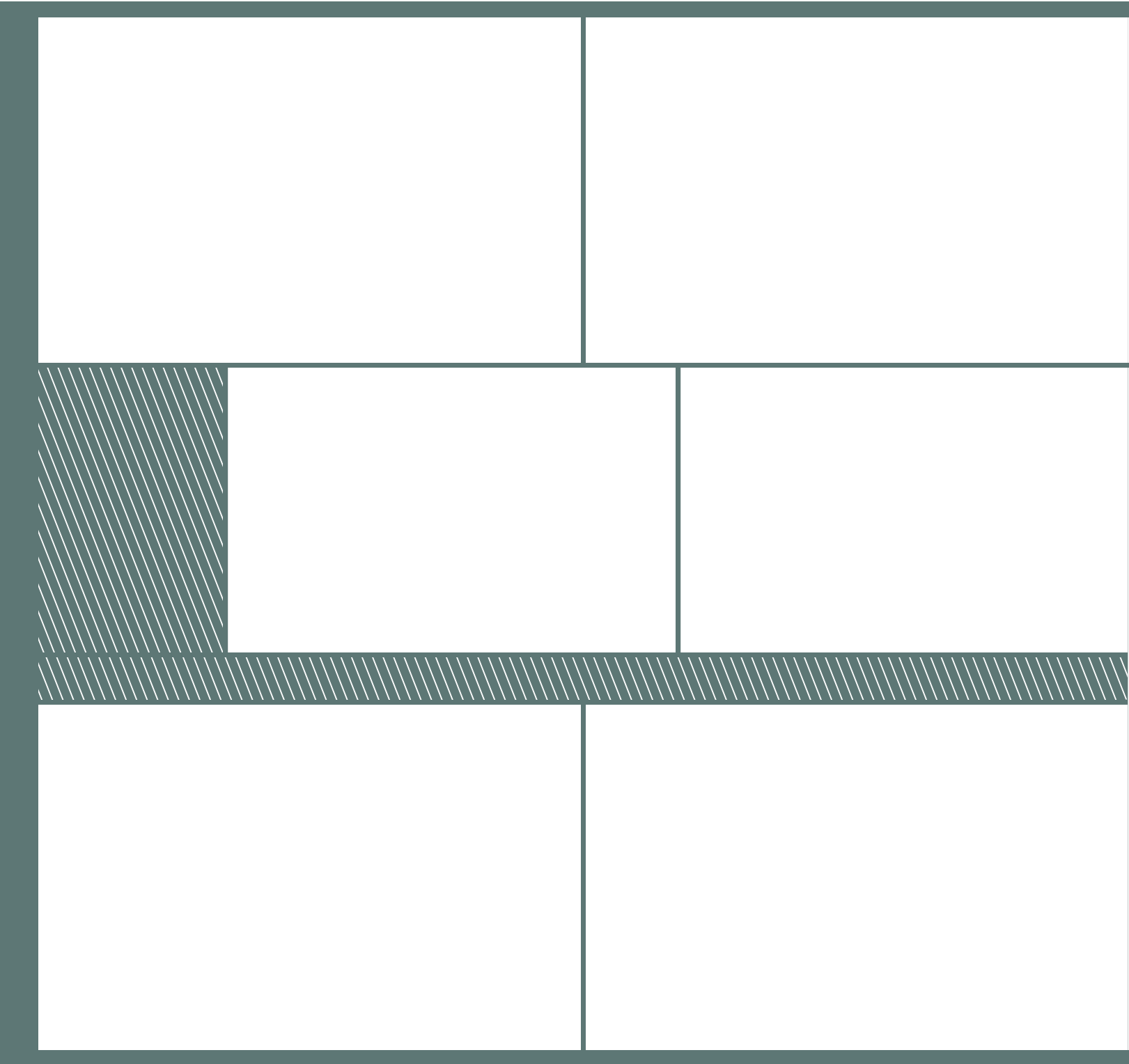
‘반복 있다-있다’에서는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전시가 이루어진 웃다리문화촌의 주요 방문객이 어린이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를 위한 참여형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장성욱 작가의 <지도방>에는 변화해온 평택의 행정지도를 여러 장 겹쳐 천장에 설치하고, 바닥에는 카펫으로 만들어진 현재 평택의 지도가 놓여있다. 관람객들은 자신이 사는 마을에 있었으면 하는 편의시설을 카펫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새로운 지도를 완성한다. 과거의 지도, 현재의 지도, 미래의 지도가 모두 한 번에 그려지는 것이다. 장성욱 작가의 <노을> 역시 참여형 작품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그린 노을의 이미지가 영상으로 벽에 투영되는 작품이다. 또한 관람객은 벽 반대편에 서면 노을 속에 들어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복 있다-있다’에서는 평택의 현재와 미래에 집중된 공간이었다. 평택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작품이 완성되며, 완성된 작품은 현재 평택의 이미지와 꿈꾸는 평택의 이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미래유물전 in 평택>은 평택을 살아온,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오랫동안 평택에서 살아온 개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지역은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어르신들의 구술사를 통해 평택의 시계를 발견했고, 참여 미술을 통해 오늘날 주민들이 바라는 평택의 모습을 발견했다. 보편적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 개개인의 시선에 맞춰 지역을 바라보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샘솟았다. 미래유물전의 역할이 이런 것 아닐까. 소소하고 개인적인 지역 주민들의 작은 서사를 통해 지역의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 말이다.













Part I : 묻어둔 기억, 발굴하다
 Part II :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Part III : 기억의 현재

미래유물 의정부 극복 D.N.A 展

미래유물展 의정부극복D.N.A

미래유물
 의정부극복
 D.N.A
 展



窮卽變
 變卽通
 通卽久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의정부문화원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의정부시
 후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Is it over?

2017 미래유물전 in 의정부-극복 D.N.A

<미래유물전 in 의정부>의 기획은 역사적 사건들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허리에 위치하고 있는 의정부는 삼국시대부터 전쟁의 격전지이자 군사 요충지였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의정부역이 설치되어 중국침략을 위한 전쟁물자 수송 등 교통의 요충지가 되면서 농산물과 문화재를 수탈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에도 치열한 격전지로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처럼 의정부는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쟁의 상흔을 안고 있는 도시이다. 의정부문화원은 <미래유물전>을 통해 전쟁의 상흔을 단순히 극복해야 할 상처가 아닌, '난관극복의 DNA'로서 재의미화하고자 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뉜 전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Part1. 묻어둔 기억, 발굴하다'라고 할 수 있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생활유물들 위로 공사장에서나 볼 법한 비계가 위태롭게 설치되어 있다. 관람객들은 설치된 비계 구조물 위를 올라 걸음을 옮기며 바닥에 전시된 생활유물을 감상한다. 총 6개의 구역으로 나뉜 공간에는 과거 생활유물과 전쟁 관련 유물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관람객들은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남은 전쟁 유물들과 당시의 생활상이 담긴 생활유물을 함께 살펴봄, 전쟁과 삶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이때 비계 설치물은 과거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관람객들은 비계 설치물 위에 올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생활유물을 조망하게 된다. 전쟁의 경험에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게 만든 것에 비해 비계 구조물 위를 걸으며 느껴지는 불안감과 약간의 공포는 전쟁에 대한 감정과 맞닿아있다. 제1전시장은 그야말로 관람객들에게 일종의 충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유물들 속에서 위태로운 길을 걸으며 관람객들은 다음 전시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바로 이어지는 제2전시장은 'Part2.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로, 필승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관람객들은 제1전시장에서 객관적 거리를 유지했던 것과 달리 보다

더 가깝게 과거 전쟁을 겪은 세대에게 다가가게 된다. 필승 작가는 ‘초콜릿’을 전쟁을 나타내는 소재로 선택했다. 초콜릿이 나오는 캔디머신 옆으로 한국전쟁 당시 초콜릿을 구걸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작품이 걸려있다. 캔디머신을 돌려 초콜릿을 꺼내가는 놀이가 사진작품 속 ‘기브 미 초콜릿’을 외치는 아이들의 모습과 충돌한다. 초콜릿 하나를 매개로 관람객들은 사진 속 아이들에게 동화된다. 제2전시장은 관람객들의 참여를 통해 과거의 사건에 나를 동일시해보도록 권유한다. 과거 세대와 현재 세대의 만남을 유도하는 것이다.

‘Part3. 기억의 현재’에서는 과거 세대와의 동일시를 넘어서 그 다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한나 작가의 <Is it over?>(2018)은 전쟁을 비롯한 과거의 사건들이 정말 완전히 끝난 것인가 질문을 던진다.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중이고,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을 거치며 점차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인식하게 된다. 전쟁을 머나먼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다는 것이 제3전시장에 이르러 명확해진다. 특히 마지막 작품 ‘출구 없는 탈출’은 관람객들에게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며 경각심을 일깨운다.

<미래유물전 in 의정부>는 ‘전쟁’을 소재로 세대 간 소통을 이야기한다. 과거의 사건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며,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계 구조물 위에서 전쟁 유물을 바라볼 때, 과거와 현재, 미래가 뒤섞인다. 전시를 보고나면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재의 우리가 남는다. <미래유물전 in 의정부>는 이렇게 관람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반복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2017 미래유물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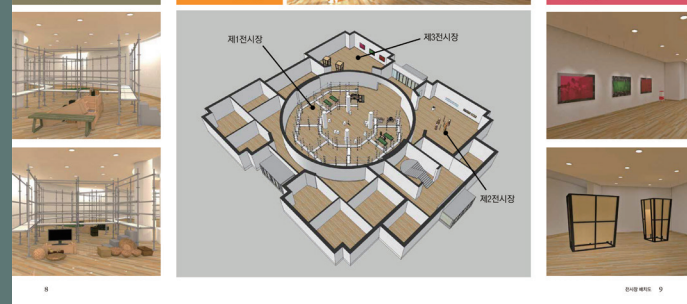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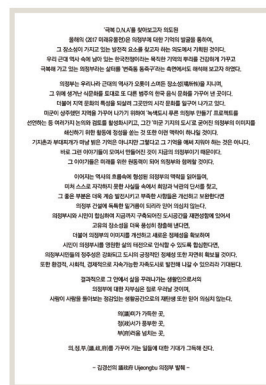
참치류 공간으로서의 경기도가 결여 중, 유구한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의 유물이 언타다웠던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미래 세대에게 물려 줄 유·무형의 유산에 대한 발견과 선별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경기도 내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며 각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유산을 발견하고 전시하여 우리들의 유미위한 유산의 의미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깊이 생각해보고, 새로운 유·무형의 유산을 축적하는 여정의 기록이다.

2017 미래유물전_극복 D.N.A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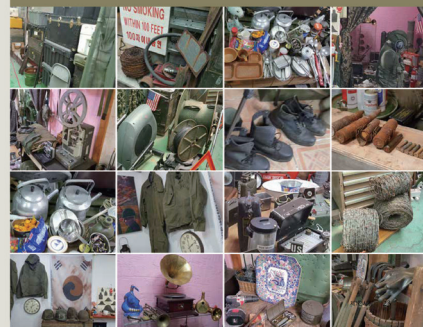
고종과 흥선의 근현대사에서 정국부흥 최초의 '시술'이라 평가, 흥완에서 안일으로의 진흥과 정철서로 인해 의정부의 모든 부위에서들이라는 의정부에서 시작한다.

D.N.A 생체정보의 유일성을 증명할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계속수 관제한다. 비록유전정보, 국적 D.N.A는 의정부의 조상을 기록으로 만든 이름 체계이다. D.N.A는 의정부에서 그들의 유전 정보를 기록한 것보다는 전체에서 이름 체계의 통합 국적 D.N.A로 명명하고 그것으로 부른 것이다. 국수들은 이것을 잊어가고 정철서는 이들을 통해 이 체계를 통해 된 국수 D.N.A는 의정부에서 그들의 이름 체계에 대한 혼란의 의정부 시민으로서의 자존감과 자부심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Part I : 묻어둔 기억, 발굴하다]

[Part I]에서는



1구역



2구역



A photograph showing a cluttered room with various items on the floor. In the foreground, there is a red box with the text "Exho Company" and "1111 1st St. N. W. Seattle, WA 98107". Next to it is a white bag.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chair and some other items on the floor.

A photograph showing various pieces of military equipment. In the foreground, there is a large, rectangular metal box with a circular hatch on top. To its left is a smaller, cylindrical metal container. Behind these, there is a black bag and a larger, more complex piece of equipment with a handle and a small display or sensor. The equipment is arranged on a wooden floor.

A photograph of a museum exhibit. In the center is a vintage military vehicle, possibly a jeep or truck, with a canvas-covered cargo area. To its right is a folding table with a laptop on it, and a folding chair. The floor is made of light-colored wood. The background shows a wall with a grid pattern.

A photograph of a medical kit. It consists of a white plastic container with a yellow lid, a black bag, and a first aid kit. The first aid kit is open, showing various supplies like bandages and antiseptics. The kit is placed on a wooden floor.



A collection of vintage items, including a typewriter, a rotary phone, a camera, and flags, displayed on a wooden surface. The items are arranged in a way that suggests they are part of a collection or a display. The typewriter is a vintage model with a dark body and a light-colored keyboard. The rotary phone is a classic black model with a coiled cord. The camera is a vintage SLR with a flash attachment. The flags include the American flag and the South Korean flag. Other items include a small box, a bottle, and a small clock.

A vintage typewriter with a green leather case and a stack of papers. The typewriter is a light-colored, possibly beige or cream, with a dark green leather carrying case resting on top of it. The case is open, revealing the internal mechanism. The typewriter is sitting on a wooden surface. In front of the typewriter is a stack of papers, including a yellowed envelope with the number '52' written on it. The background is slightly blurred, showing what appears to be a desk or table with other items.

A photograph of a cluttered desk. In the foreground, a vintage typewriter sits on the left. To its right is a small, boxy camera mounted on a stand. Behind the typewriter are several bottles, including a white one and a green one. The desk is covered with papers, a small calendar, and other miscellaneous items. The background is a plain wall.

제1천사형 33

[illegible]

A photograph showing three metal buckets filled with various tools. The largest bucket on the left contains a shovel and a rake. The middle bucket contains a small shovel and a brush. The right bucket contains a pair of pliers and a brush. The buckets are placed on a wooden floor.

Four green military-style canteens are arranged on a wooden crate. Two are standing upright, and two are lying on their sides. A metal object, possibly a canteen carrier or part of a bag, is visible to the left of the crate.

A photograph of a portable CD player with a white face and a CD inside. It is sitting on a wooden surface next to a lantern and a red bottle.

A dark green flight suit is laid out flat on a light-colored surface. The suit features several patches: a yellow chevron on the left sleeve, a white star on the right sleeve, and a yellow chevron on the right leg. The suit has a high collar and a front zipper closure.



여덟 번째 전시에서는 전쟁 후 폐허화된 경기 북부 지역 의정부에서 수집된 가치 있는 많은 유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수집한 의정부문화원의 생활 유물 소장품과 오늘 날의 발전된 의정부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날 의정부의 변화상을 통해 현수 상영하도록 전시하여 0-20 연령 세대의 아이기가 자부심되도록 설치했다.



여덟 개의 구역이 겹쳐지고 있는 복합 전시장의 중앙에는 의정부문화원 박물관이 진행중인 여러 가지 100 일치의 생활을 박물관이 진행하고 있으며, 전시되어 그 당시를 생생히 나타내어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살아남아도 보충을 주었다. 그리고 옛 중앙에 군인과 병을 그리고 0-20 이후 공간을 제작하는 높은 장소에서도 우리 군인의 보지 연인과 함께 전사 통치자로 전쟁 생활 세대가 지나온 시대에 대한 일종의 문화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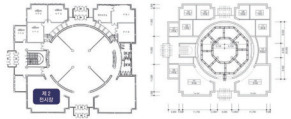


복합전시 43



114

사진으로 보는 미래유물전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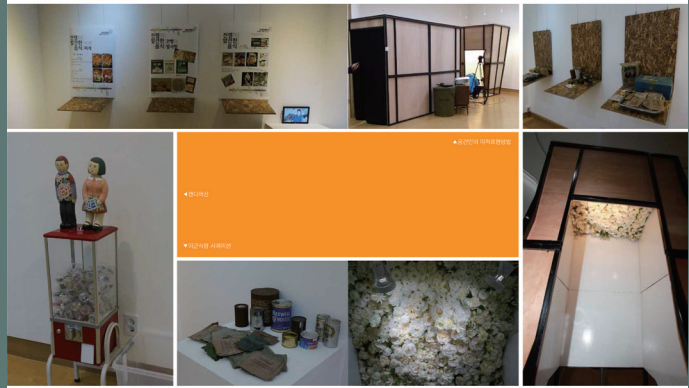
[Part II: 궁궐변 번죽통 동쪽구]

전쟁 이후 궁궐으로 바뀌는 통풍에서 일제의 폭력을 다룬다는 말이라고
그 영화가 통풍대행 그곳은 오래 전에는 제사지사를 행하러 여자를 데리고
주어진듯 제사지사에게 나오는 장수로 재탄생했다.

근현대사에서의 가장 큰 사건은 20세기 초엽의 개항, 전쟁의 재앙을
경험한 - 통풍의 재탄생으로 상징하고,
전쟁후에 남긴 전쟁의 흔적과 흔적: 무대배우에서 등장한다.
오늘의 서울에서 이런 재탄생의 기억과 이제 재탄생의 상징인, 통풍에서
통풍의 기억을 통해 통풍이 변화되고 지금의 통풍이라는 존재,
전쟁이 남긴 통풍에 대한 통풍의 기억과 통풍의 기억을 재탄생한다.

[Part II]에서는

전쟁 후의 통풍의 재탄생으로, 통풍이라는 통풍으로
전쟁에 대한 통풍을 재탄생하여
이런 재탄생의 기억과 통풍의 기억을 통해, 통풍에서
통풍의 통풍의 통풍을 느끼고 통풍을 재탄생한다.





기원전 3000년경 2

기원전 3000년경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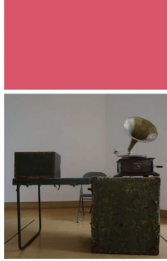
폭력으로 인
숫자들은 한
다른 면에는

나는 관객에게 답을 주기 보단 한국전쟁이라는 특수적인 한국의 상황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
공하고자 했다. 이 작업은 양쪽 측면에서 사진으로 관람했을 때 두 개의 다른 이미지들을 볼 수
있다.



"출구 없는 일출"이라는 작업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 조짐을 명징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과거처럼
이치 벗어날 수 없는 쪽바리 속 인자어라는 답답한 느낌을 주었다. 그 심정을 발을 차면서
정신을 얻어 정상화되었다. 정상 제복은 매우 단순하다. 출구 표시 속 사람은 출구를 찾아 갈
입장이 달랐다. 희색한 공간 다다른 코렌 출구가 없다는 파열스런 문구뿐이다.



08

제이슨 09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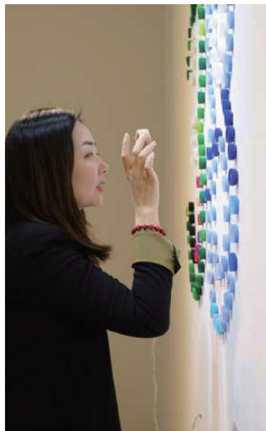
110

시진핑 주시 111



112

사진으로 보는 미래유물전 113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후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주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원시

2018 미래유물展 in 부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8
미래유물展 in 부천
2018. 10. 29. (월)
11. 05. (월)
개막식 10. 29. (월) 13:00
송내어울마당
아리솔갤러리



미래의 유물=언어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미래유물전 in 부천>은 문학을 주제로 전시를 구성했다. 부천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문학의 도시이다. 지역의 유명 문인을 비롯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협회 회원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했다. 곳곳에 책을 활용해 조형물을 만들어 전시하고, 별관에서는 책을 오브제로 활용하는 김기범 작가의 작품을 전시했다. 부천은 왜 문학을 미래유물전의 전시 주제로 선택했을까.

‘Part1. 복사골을 기억하다’에서는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협회 회원들의 작품을 소개했다. 이어지는 ‘Part2. 복사골에 살다’에서는 변영로, 목일신, 펄 벅, 양귀자, 정지용 등 부천과 인연이 있는 유명 문학가들을 소개했다. ‘Part1’에서 ‘Part2’로 넘어가는 구성은 지역에 심어진 문학의 씨앗이 미래에 어떻게 발아하고 꽃 피우는지 보여주는 듯 했다. 그리고 ‘Part3. 복사골의 미래를 꿈꾸다’는 씨앗심기에 해당하는 파트로, 부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책과 관련한 사업들을 소개했다.

별관에서는 책을 오브제로 활용한 김기범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책을 투각하고 음각하며 평평한 책장 한 장 한 장에 입체감을 더했다. 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작가는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인다. 과거에 쓰인 글자 위로 현재의 이야기가 덧입혀지는 것이다.

부천문화원이 생각한 미래의 유물은 결국 ‘언어’였다. 말에서 말로 이어졌던 역사는 글로 기록되고, 글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미래를 꿈꾸는 수단이 되었다. 기록은 대개 과거의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미래유물전 in 부천>에서는 기록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단순히 오늘을 기록하여 유물로

남기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를 기록하는 것이 문학의 힘이다. 문학은 상상의 언어이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만나기도 미래를 만나기도 한다. 부천문화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들과 함께 ‘언어’를 매개로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전시를 구성하고자 했다.

Part 1.

복사골을
기억하다

물어본다! 저기 건물과 함께 평범하게 활동하는 건물과 함께 오래 살아남아 복사골을 기억하며, 노년형 그들을 재구성하고, 현명한 지식을 보전 하고자 한다.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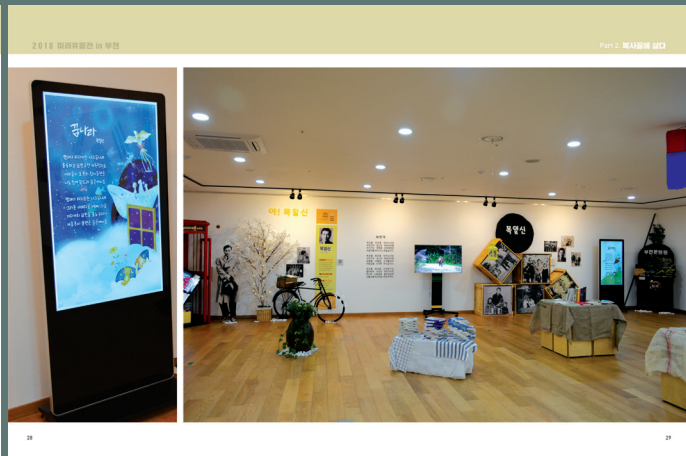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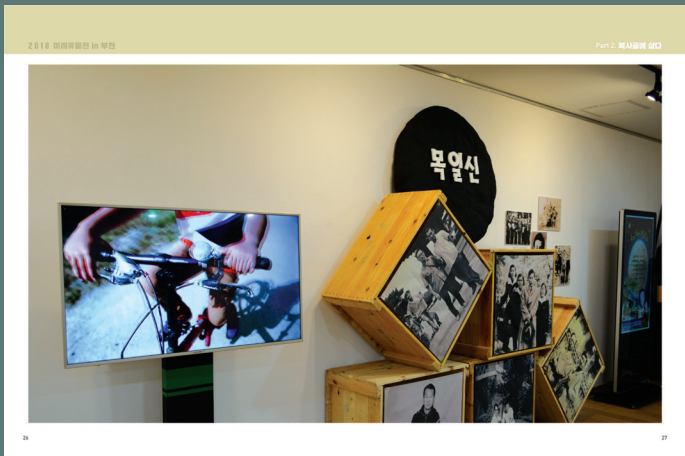
복사골에
살다

복사골을 재구성하고, 노년형 그들을 재구성하고, 현명한 지식을 보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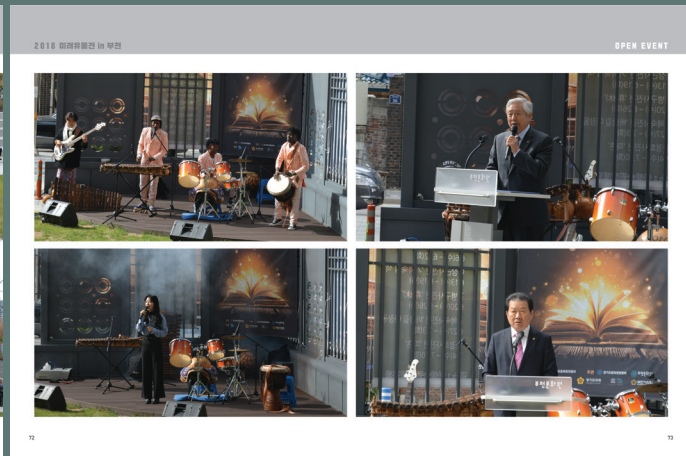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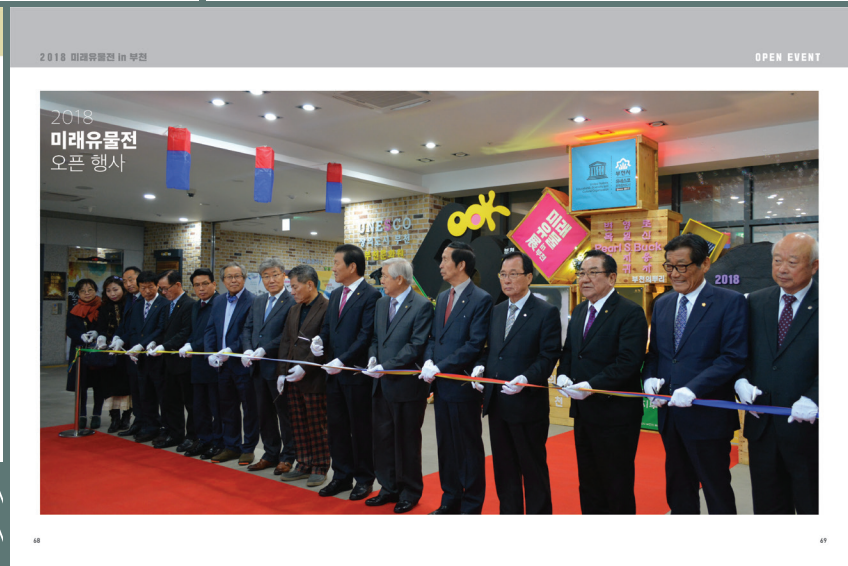
물어본다! 저기 건물과 함께 평범하게 활동하는 건물과 함께 오래 살아남아 복사골을 기억하며, 노년형 그들을 재구성하고, 현명한 지식을 보전 하고자 한다.

“나, 복사골”
전남 복사골(1913-1994) 선생의 유언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그 시를 지닌, 인생에서 얻은 값어치 복사골 사당,
현상과 복사골전을 구성하여 구성 하였다.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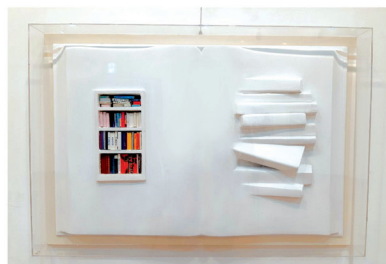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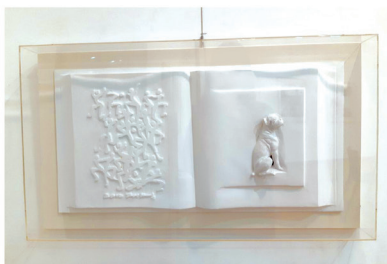
OPEN EVENT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OPEN EVENT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별관 전시

[illegible]

소품은 격언이 아니고, 감정을 파악하고 현대인들이 간과했던 정경상이 담긴 삶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크게 찾아온 천석에는 엄정조와 노민호, 미애와 유물이 단나는 천강, 해를 주제로 하는 종전작가의 소품방식은 건강하고 젊어 준다. 인류가 1406개 하는 감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마태복음전 18부전〉 전시장의 초입에서, 혹은 말미에 서 느끼는 겸허하고 소중한 가치이다.





부천 전시

107



부천 문학지도



REMARKS

- ① ~ ⑧ 변영로 ⑨ ~ ⑬ 옥일신 ⑭ ~ ⑰ 정지웅
- ⑱ ~ ⑲ 양귀자 ⑳ ~ ㉕ 필벽 ㉖ ~ ㉙ 그 밖의 부천 문인
- ㉚ ~ ㉜ 미니책방&문학카페 / 문학산책로 ㉝ ~ ㉞ 만화 ㉟ ~ ㊱ 도서관

《2019 in 2020》(2019. 12. 10) 2019. 12. 10. 2019. 12. 10. 2019. 12. 10.

공존(共存) 당신과 내가 사는 곳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안산문화원
후원: 경기도·경기도의회·안산시·안산시의회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
〈2019 미래유물전 in 안산〉

우리에게 안산은?

2019 미래유물전 in 안산, 공존

<미래유물전 in 안산>은 안산문화원을 비롯해,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안산문화재단 단원 미술관에서 협력해 함께 기획되었다. 이전의 미래유물전과는 다르게 생활유물이나 구술사가 아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를 중심으로 전시가 기획되었다. 지역 예술가의 눈으로 바라본 지역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기관에서는 지역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쉽고, 지역주민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지역을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지역주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예술가라면,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지 않을까.

전시장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작품은 이재형 작가의 <Face of city_안산>(2019)이다. 두 개의 영상 패널에는 씬 없이 문장들이 떠다니며 사람의 얼굴을 그려낸다. 이 문장들은 안산 주민들이 직접 쓴 안산에 대한 생각들이다. 문장에 내용에 따라 영상속 사람의 표정이 시시각각 바뀐다. 여기에는 안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들도 있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답변이나 걱정 어린 쓴소리도 그대로 담겨있다. 새로운 형태로 제공된 안산의 이미지는 밝은 미소와 찌푸린 미간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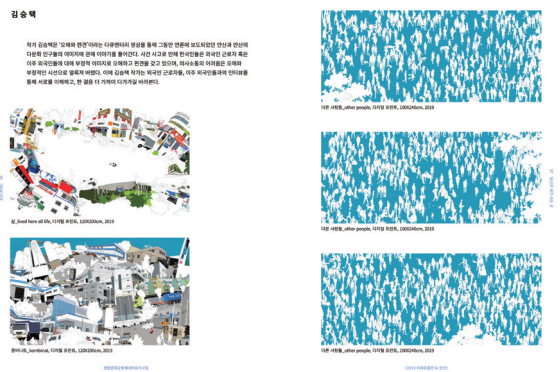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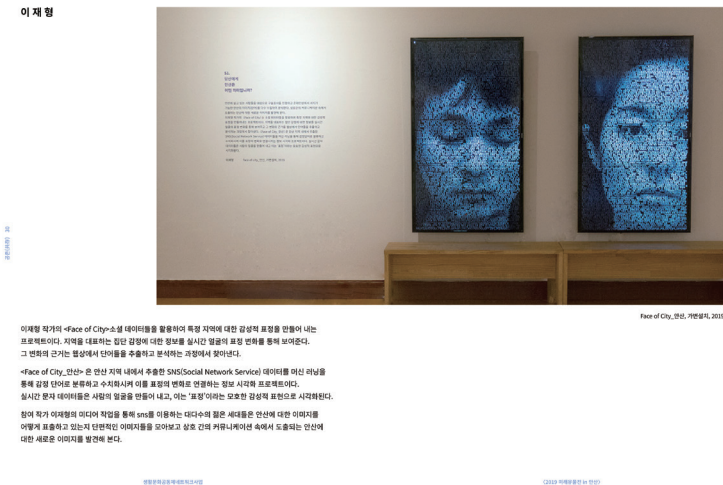
김승택 작가는 회화와 영상 작품을 통해 ‘우리는 안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되묻는다. 작가는 오랜 시간 안산에 살아오며 안산이라는 도시가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해온 과정을 추적한다. 직접 안산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얻은 사진정보를 그림으로 변환해 하나의 캔버스 안에 펼친다. <편견과 오해 그리고 변화>(2019)은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이주민의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녀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에서부터 한국에서 살며 겪었던 오해와 편견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쩌면 이러한 이야기는 안산주민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가 겪은 차별을 외면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를 시작될 수 있다. 작가는 관람객들에게 안산에 대해 얼

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며, 작품명에서처럼, 앞으로의 변화가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강효명 작가는 텅 빈 새장과 이끼를 가지고 안산의 자연지형을 쏙 빼닮은 설치작품을 선보였다. 자연과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안산의 지형적 특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까지 짚어낸 작품이었다. 초록빛의 새장은 아름답고 거대한 자연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새장은 텅 비어있다. 정작 새는 한 마리도 없는 공허한 새장은 경제발전의 목적 아래 파괴된 자연을 의미한다. 그러나 작가는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희망적 메시지를 함께 전달한다. 관람객들은 새장 곳곳에 놓인 이끼에 물을 줄 수 있다. 작가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이끼에 물을 주는 퍼포먼스를 통해 자연보호를 위한 우리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전시장 한 쪽 벽에는 김동기 작가의 <대부광산>이 넓게 펼쳐져 있다. 작가는 안산의 섬 지형을 시각화했는데, 바위섬들이 울룩볼록 올라와 촉각적인 느낌을 같이 전달한다. 평면적인 풍경화와는 다르게 촉각적으로 표현된 안산의 풍경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혀 살아왔을 지역에 대한 경험을 상기시킨다.

<미래유물전 in 안산>은 지역 예술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안산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지역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향심이나 낙관적 태도를 지양한다. 그들은 현재의 안산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했다. 관람객들에게 더 많은 자율적 판단의 몫을 남겨둔 것이다. 동시에 작가들은 안산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그들 역시 안산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미래유물전 in 안산>은 ‘지금 우리가 사는 안산’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전시이다.







Green Concord_녹색화합, 철재세장에 채색, 이끼, 가변설치, 2019

생물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

작가 강효명의 설치작업 <Green Concord_ 녹색 화합> 는 오랜 시간 동안 다문화 가정이 모여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가며 빛어지는 안산의 내면적인 사회문제를 긍정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안산의 지형적 형태와 집묵한 작품이다.

2014년에 진행된 블루버드 프로젝트에 처음 등장한 이 올리브 그린색의 새장들은 희망과 위로를 서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시에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공간의 역할을 해왔다. 이런 은유적 해석을 담고 있는 새장들이 이번에는 안산의 공간에 설치되어 어찌면 내재 되어 있을지 모르는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문제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로 풀어 봄으로써 더 밝고 건강한 안산의 미래를 염원하는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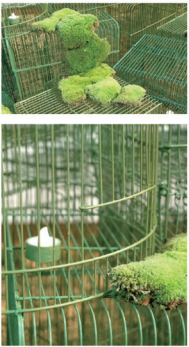
보기 좋게 쌓아 올린 새장은 나지막한 산의 형상을 띄고 있는 안산의 지형을 표현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새장 곳곳에 얹은 이끼는 소외되고 고립된 공간이나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이 이끼에 물을 뿌려주는 관객참여를 통해 소외된 곳에 관심과 돌봄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47 안산의 내면을 보는 곳

<2019 미래유물전 in 안산>



생물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



<2019 미래유물전 in 안산>

김동기

산업단지의 대외지와 상반되는 연산의 삶, 그리고 자연환경, 높은 녹지율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각적, 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연출하고자 김동기 작가의 작업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현재 연산이 가지는 산업과 공업화로 인한 경제발전의 이면에 대한 자책이 스스로 고인하고 인지를 수 있도록 생체, 지형 그리고 삶, 그 안의 사람들을 주제로 한 김동기 작가의 작품 <대량생산>을 통해 연산의 통찰을 마주한다.



대량생산 | 일크스크림, 커팅 Silkscreen, Cutting, 가변크기, 2019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

「2022 지역문화전 14 (전년)」



한산문화원



한산문화원



아사노, 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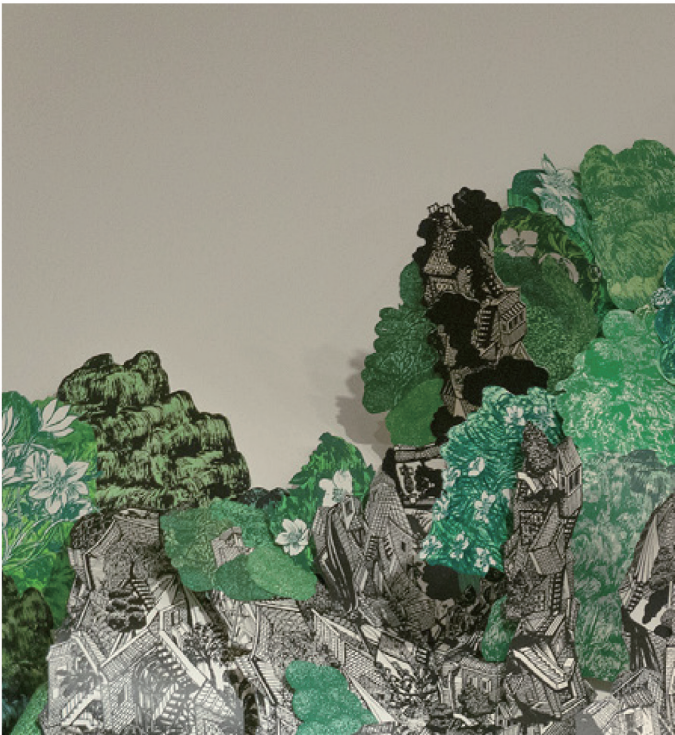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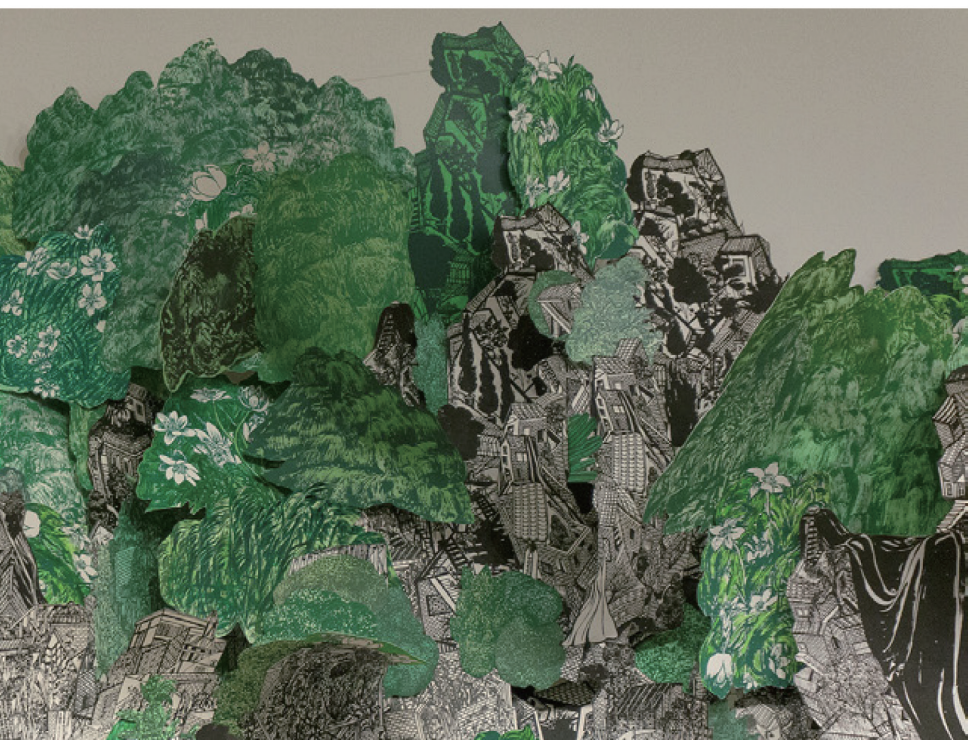


「2022 지역문화전 14 (전년)」

공존(共存) 52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



〈2019 미래유물전 in 안산〉

53 당산과 내가 사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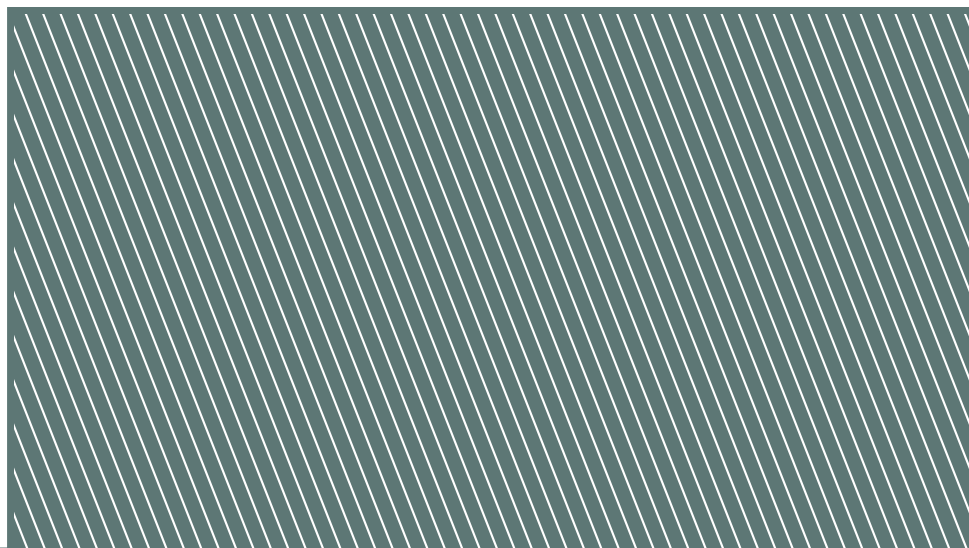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





2019 미래유물전 in 안산

공신과 내가 사는 곳



미래 유물전 - IN 용인

昭文堂遺物展 IN 龍丁二

昭文堂

길 위에 쌓인 시간

2020 미래유물전 in 용인, 길

<미래유물전 in 용인>은 ‘길’을 주제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 데 모았다. 용인은 역사적으로 한양의 인후(咽喉)에 비유되곤 하며 한반도의 길목 역할을 해왔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관통하고,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 용인은 ‘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용인문화원은 <미래유물전 in 용인>을 통해 용인을 가로지르는 과거의 길, 현재의 길, 미래의 길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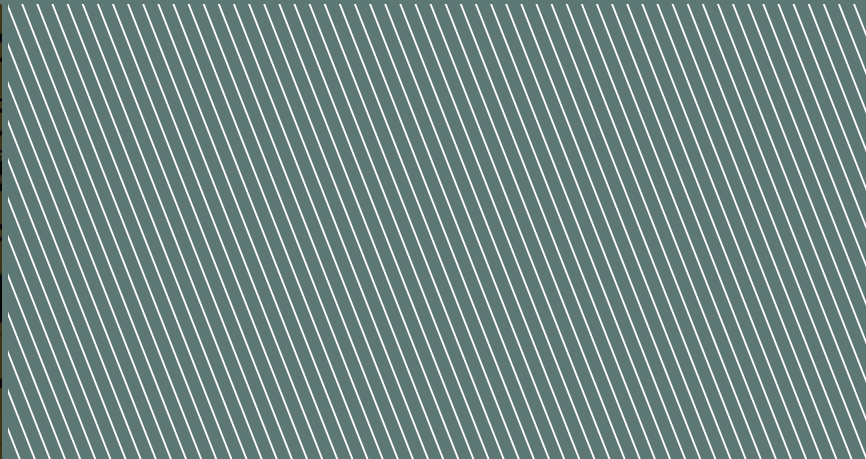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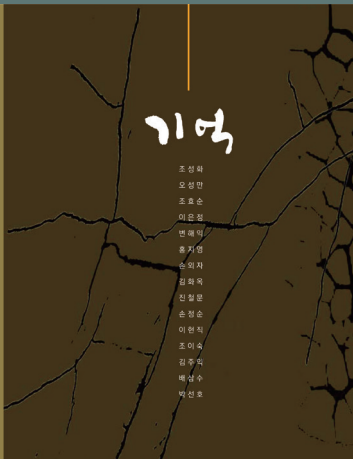
과거의 길은 ‘기억’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대부분의 작품은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오래된 용인의 길을 담아내고자 했다. 그중 이현직 작가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용인의 풍경을 그려냈다. <처인성의 여름>에서는 처인성에 현재 남아있는 토담과 밤나무를 그대로 옮겨 그리고 그 위에 과거에 있었을 느티나무를 상상해 그려 넣으며 환상의 풍경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림 속 처인성의 풍경은 현재이기도 과거이기도 하다. 한 폭에 펼쳐진 아름다운 용인의 길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용인 지역주민들의 기억을 환기시킨다.

현재의 길은 ‘약속’을 소주제로 삼았다. 아무래도 현재 용인의 특징을 드러낸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용인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혹은 용인의 자연환경이 주제가 되었다. 홍경화 작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아파트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의 밤풍경을 그려냈고, 김선희 작가는 도시화 되어가는 용인의 언저리에 숨어있는 자연 그대로의 숲길을 그려냈다. 반면 김옥기 작가는 회색빛 도로 위에 노란 해바라기를 캔버스 가득 띄웠다. 삭막한 도로 위에 피어난 해바라기는 다음의 전시주제인 미래의 길, ‘상생’과도 연결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도록 만든다.

미래의 길 ‘상생’은 미래를 주제로 했기 때문인지, 다양한 기법이 쓰인 추상화가 주를 이루었다. 박태화 작가의 작품은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선이 길이 되었고, 김한영 작가의

작품에서는 색과 색이 만나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었다. 추상화된 길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결국 상생과 조화였다. 최은영 작가의 <Going my way>에는 다채로운 배경위로 어린 아이, 물고기, 도시 풍경이 한 데 어우러지며 상생의 의미를 더욱 강조한다.

용인은 길을 주제로 지역 예술가들의 시선을 담아냈다. 전시의 구성은 단조로웠으나, 그만큼 주제를 간결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고속도로, 숲 길, 하천 등 용인 곳곳에 숨어있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작품으로 표현되었다. 숲길은 시간이 흘러 비포장도로로, 시간이 더 쌓이자 고속도로가 되었다. 용인 지역주민들은 시간이 쌓여 변해가는 회색빛 도로에서도 자연의 숲 길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다. 도시와 자연 사이에서 상생하는 법, 조화로운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결국 <미래유물전 in 용인>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상생의 길에 대한 이야기였다.



조 효 순 | CHO, HYO SOON



한국사학계에서 유망한
역사학자이자
문화유산 전문가

한국사학계에서 유망한
역사학자이자
문화유산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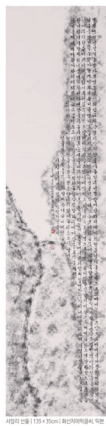
한국사학계에서 유망한
역사학자이자
문화유산 전문가

한국사학계에서 유망한
역사학자이자
문화유산 전문가

2019년 10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2019년 한국사학계에서 유망한
역사학자이자 문화유산 전문가'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사학계에서 유망한 역사학자이자 문화유산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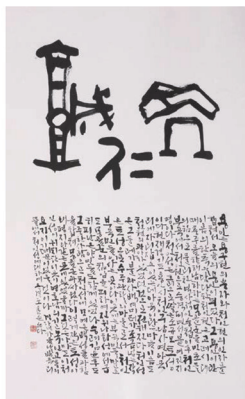
한국사학계에서 유망한
역사학자이자
문화유산 전문가

한국사학계에서 유망한
역사학자이자
문화유산 전문가



책의 뒷표지

2020년 10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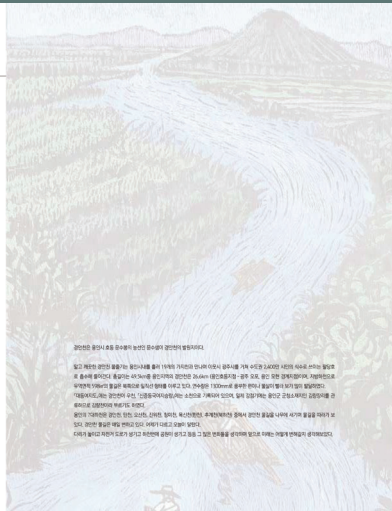


2020년 10월 10일

변 재 익 | BYEON, HAE IG



2019년 10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2019년 한국사학계에서 유망한
역사학자이자 문화유산 전문가'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사학계에서 유망한 역사학자이자 문화유산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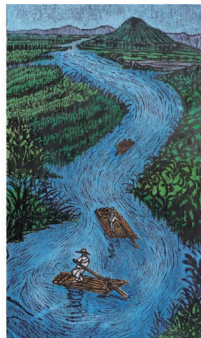


2019년 10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2019년 한국사학계에서 유망한
역사학자이자 문화유산 전문가'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사학계에서 유망한 역사학자이자 문화유산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2020년 10월 10일



2020년 10월 10일



2020년 10월 10일

2020년 10월 10일

2020년 10월 10일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작품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2017, 캔버스, 유채)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2017, 캔버스, 유채)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2020 홍경화 미술 전시회
2019 홍경화 미술 전시회
2018 홍경화 미술 전시회
2017 홍경화 미술 전시회
2016 홍경화 미술 전시회
2015 홍경화 미술 전시회
2014 홍경화 미술 전시회
2013 홍경화 미술 전시회
2012 홍경화 미술 전시회
2011 홍경화 미술 전시회

작품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중동로 44-1
일산역사거리 158
전화 02-931-1111
팩스 02-931-1112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2017, 캔버스, 유채)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전작의 수평적 물결이 대담함 (2017, 캔버스, 유채)



김 옥 기 | KIM, OK KI

2020 올해의가치관 - 예술가전집 기획특별전
 장미의향기 향기연 - 문인문학예술원
 장미의향기 작곡초대전
 장미의향기 - 문인문학예술원
 2019 열려라! 초대전 - 장미의향기
 장미의향기 - 인사아트홀, 풍류각
 12월연간전 - 인사아트홀
 장미의향기 특별공연
 도곡2 호텔 이브호텔
 문인문학 향기연
 장미의향기작가전 - 한림대 미술관
 2018 국제초대전 - 화랑미술
 이찬희초대전 - 유건아트 갤러리
 장미의향기작가전 - 인사아트홀, 장미의향기
 장미의향기 작곡초대전 - 문인문학예술원
 장미의향기 작곡초대전 - 문인문학예술원
 장미의향기작가전 - 문인문학예술원

주요 연구 분야 : 노인성 질환 예방, 노인성 질환의 진단, 노인성 질환의 치료
 연구실 : 노인성 질환 예방, 노인성 질환의 진단, 노인성 질환의 치료
 주 연구 분야 : 노인성 질환 예방, 노인성 질환의 진단, 노인성 질환의 치료
 연구실 : 노인성 질환 예방, 노인성 질환의 진단, 노인성 질환의 치료
 주 연구 분야 : 노인성 질환 예방, 노인성 질환의 진단, 노인성 질환의 치료
 연구실 : 노인성 질환 예방, 노인성 질환의 진단, 노인성 질환의 치료

2020 06월 구독자 - IN 총합 111

출판인 김경민 선생은,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동물보호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다. 나는 이번 출판에 앞서 김경민 선생은 야생동물보호에 대해 이미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연구를 쌓아 나옴에 감사 하겠다.

특히 야생동물보호를 통해 야생동물과 인간은 어떻게 공존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김경민 선생은,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공존하는가에 대한 내용,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든 잘 하면 될,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12월 20일에 나온 이 책이 출판되어 소개되고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은 야생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공존하는가에 대한 내용,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든 잘 하면 될,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12월 20일에 나온 이 책이 출판되어 소개되고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은 야생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공존하는가에 대한 내용,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든 잘 하면 될,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12월 20일에 나온 이 책이 출판되어 소개되고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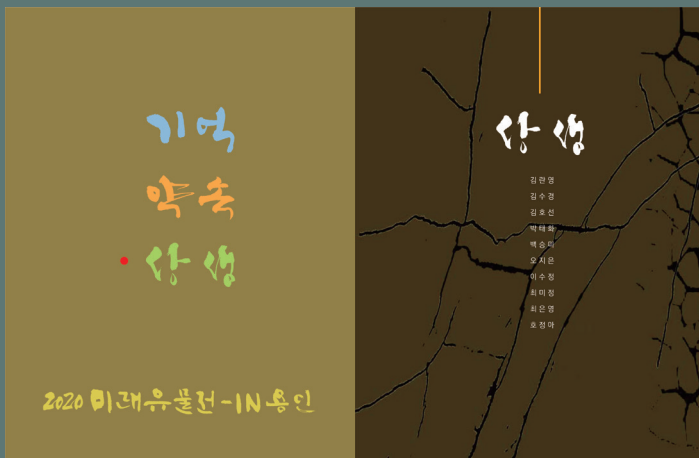
도시안에서 길을 본다 | 72.7×116.7cm | 혼합재료 액션



도시안에서 집을 짓다 (53×72.3cm) 혼합재료 채진

무대에 등장할 바로 배경으로 성명과 행위의 상징은 허버타기를 단순하게, 색을 강렬하게 표현해 보았다.

112 2000년대 이후의 한국문학 - 이종현



김 란 영 | KIM, RAN YOUNG

서경대학교 컴퓨터과학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만화과 졸업

수업
대한민국 미술대전 원문가성, 서울미술대성인 특선,
한국현대미술, L,사회페스티벌 선정작가성, 대한민국 회화대전 작품 다수 수상

개최기간
2014.10.16~10.20 (총 5일간, LA 리크리얼랜드와 LA USFV)

2018.10.12-10.16 The inner world 전, 관훈 (경기도 공회)
2019.12.18-12.24 The memory 전, 연세대학교 (서울)

그럼 and 은 등대문구를 열었다. 한국현대미술 LA퍼포먼스비엔날레 (사)
한국미술, 초현실 (LA 2013) 7월 14, 15일 (토, 일) 서울, 관악아트센터

[illegible]

그림자무늬 초대교회는 (광주·세종미술관, 6가지 표본 초대전 (현대 갤러리까지 72-1) 현행으로 초대전 MOH FACTORY, (광주) 실험관 (MastersStudio Gallery) 등등 5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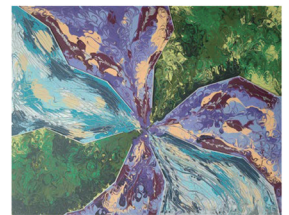
연재
2019-연재 영드 연재002연재71/공정 운영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07, S&A 테크노파크 연도관 404호
Mobile | 010-6396-2478

2020 09월 유월간 - IN 용인 127



8월 (Fusion) 2 | 60.6 × 72.7cm | Mixed media



822 *[Fusion]* 1 | 91 × 114.8 cm | Mixed media

지금껏 우리는 그 이상 한 민족이나 단일 다문화 다민족에 한해 위와같이 세 가지의 공통점과 동질성이 희박 해져 가는 시대에 놓여있다. 지역의 카르토도 '동일'이란 말이 없이 깨어져 있고 심지어 모든 영역과 문화권이 새로운 국지주의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질문에 여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50년을 버텨내고도 대답할 것이 없고, 어떤 대안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고지식한 편견과 편견의 편견을 버리고서라도 살아야 하는 자라는 것을 내면 속으로 새겨 넣어야 하는 모습을 앞당기는 시대를 구상해 보았다.

우려나 다문화와 다민족은 모든 문화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다문화 다민족의 모든 문화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리키는 용어를 통일하는 것으로써 서로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28 2000년대 이후의 우리 문학

2020 미래 유망업 - AI 분야 129

출판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주소: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대 교문길 9호, 서울 151-747
전화: 02-760-0821~2
팩스: 02-760-0823
홈페이지: www.sakur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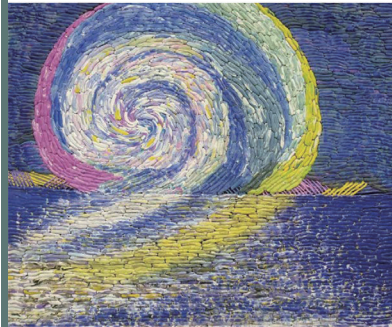
개업한 달 부스전
2019 T2클라리 (초대 개업전)
2019 코엑스 '서울 어썬 쇼' 개업 부스전
2018. 개업전 KJ-이코레일 클라리
2016 한. 불 현대미술 교류전 초대 개업전
2017. 365데이 작가 365일 부스전

기획전
2020.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기획전
2019 T2갤러리 그룹 기획전
2018.17 서울 아트 쇼 기획전
2019 홍콩 아트 페어 아트 파크 기획전

수상 및 단체
세계문화 미술대전, 경기 미술대전, 구상대미전
한국수채화대전 등 다수 수상
서울시립미술관, 인천미술관, 서울대미술관, 경인미술관
수원미술관, 모은 미술관, 인사아트센터, 한일아트
공간문화재단,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 등
단체, 그로썬 20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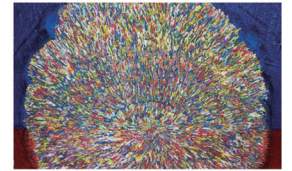
연락처
 재계문화미술조직위원회 초대장기
 Yehsan Artist Group(연산, 한국 미술, 올인 아티스트 그룹)
 영남대 Singnam(연산대학), 영국 A(아트) 연산대학
 P.T.H 미술교육연구소(영남, 연산 미술)의 문명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동 52-2 호림빌딩 802호
Mobile | (+82) 010-3673-3673
E-mail | twa364@gmail.net

2020 09월 유월간 - 9월 139



84.5x114.5cm | Acrylic On Canvas

한편, 저자들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는 수많은 치과적 과잉요청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치과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이를 서비스 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relationship) 수직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충치 예방을 위한 치과 서비스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이를 서비스 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relationship) 수직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충치 예방을 위한 치과 서비스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이를 서비스 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relationship) 수직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충치 예방을 위한 치과 서비스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이를 서비스 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relationship) 수직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부 상설 2 | 72.7 x 90.9cm | Acrylic On Canvas

140 2020 年第 4 期 - 总第 140 期



Going My Way | 91 x 117cm | 장지, 분채

아이들이 새와 물고기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면서 여행을 떠난다.
여행에서 다양한 환경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다.
자연이라는 커다란 친구로 부터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려왔듯이....
꿈과 희망을 위해 자신의 'my Way'를 그린다.

최 은 영 | CHOI, EUN 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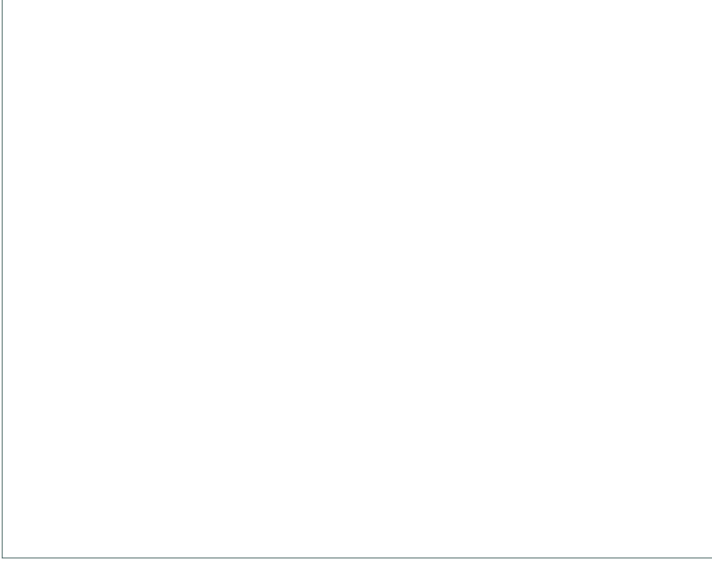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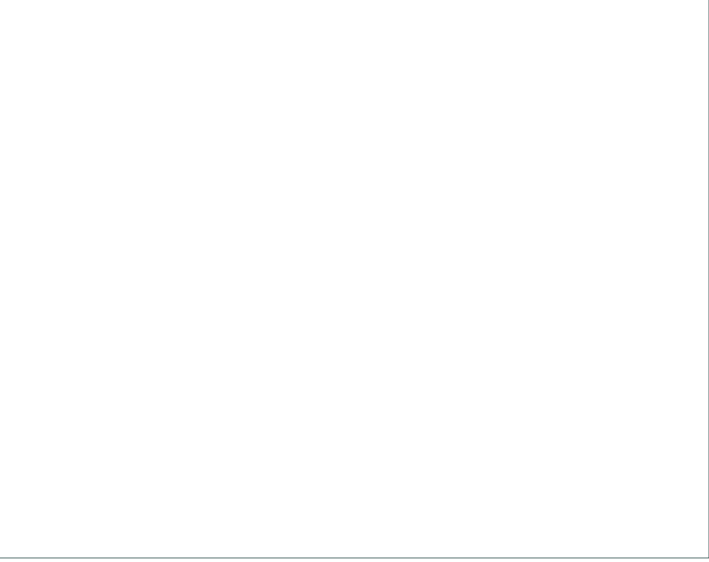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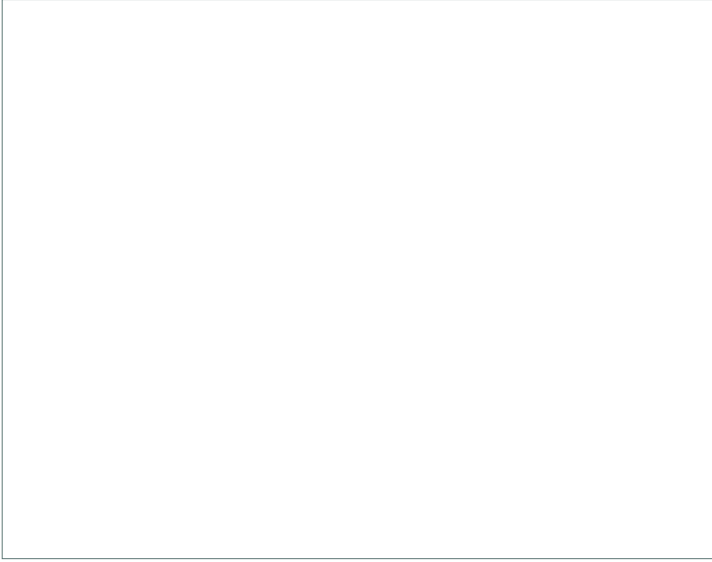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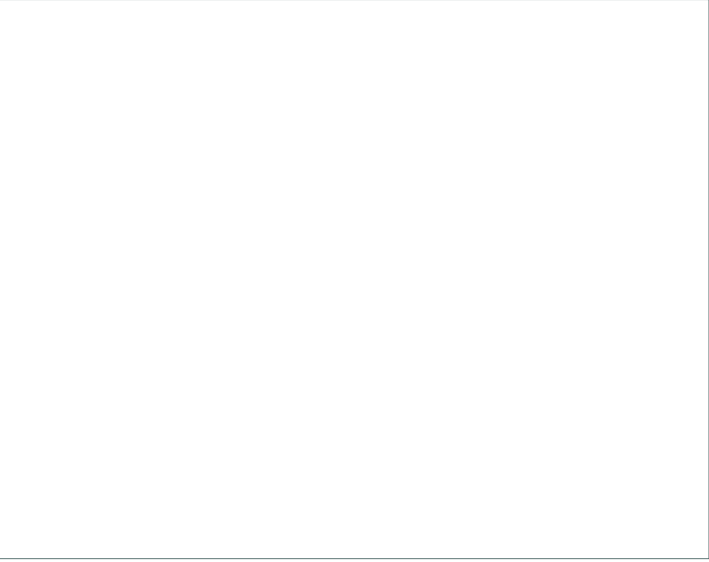
일본공정연구개발청의 도쿄 전략사업단 및인하위 제스/기법(2009)
경기개발연구원 인선 (2008)
일본공정연구개발청(2007)
제1회 한국사회협회 인선
제1회 국가보훈문화체육협회 인선

주소: 경기도 양주시 동백로439 동2호길9A(031-208-401)
Mobile: 010-7321-1895
E-mail: shido@naver.com

158 2020年第4期(总第144期)



IV. 에필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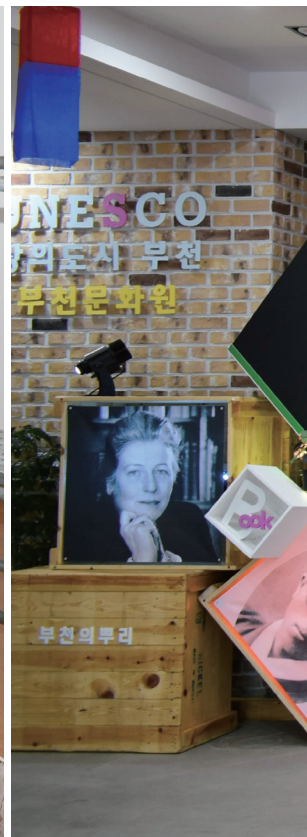
앞으로 미래유물전은...

지금까지 6번의 미래유물전 전시를 살펴보았다. 미래유물전은 먼저 지역의 과거를 소재로 이야기를 모았다. 모아진 이야기들을 현재의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하고 재의미화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미래유물전은 결국 지금, 여기, 우리에게 대한 전시

이다. ‘무엇을 미래의 유물을 남길 것인가’ 하는 고민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미래유물전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도적으로 전시를 구성하던 것에서 점차 개별 문화원 기획으로 사업 형태가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로 ‘미래유물’의 의미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생겼다. 지역주민들의 구술사에 집중한 전시도 있었고, 문화원이나 지역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전시도 있었고, 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래유물’이라는 같은 주제 아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전시가 이루어진 셈이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전시 구성이 다채로웠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만큼 ‘미래유물전’이라는 주제가 모호해지기도 했다.



앞으로 미래유물전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미래유물전의 역할은 지역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관의 입장에서 바라본 지역에 대해 전시한다면,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보편적인 이야기에만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우리는 너무도 많은 지역문화자원과 지역의 역사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역에 대한 전시는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재생산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 미래유물전은 지역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역에서 살아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포착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유물전 in 이천>은 ‘나’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로 나아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역 밖에서 지역의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미래유물전>과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마을큐레이터’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두 사업은 모두 ‘지역의 재발견’이라는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문화 향유의 주체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마을큐레이터와 미래유물전의 연결점을 찾아 사업 자체를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미래의 유물로 남길 것인가’미래유물전은 6개의 지역에서 6번의 질문을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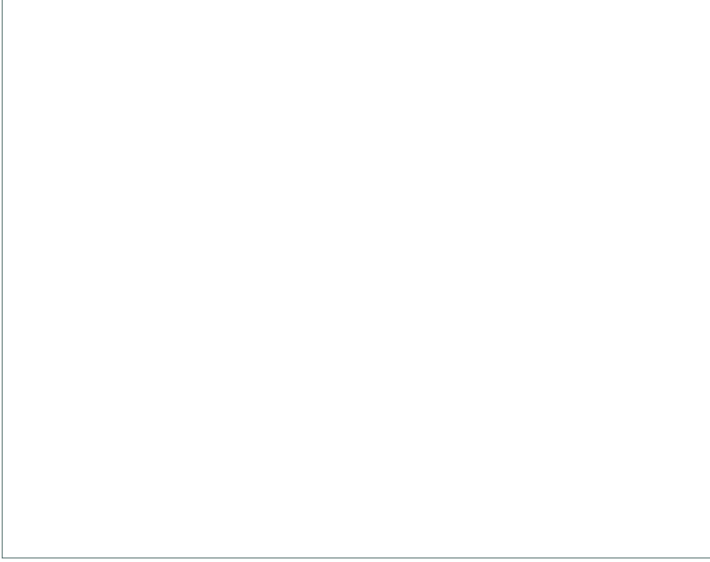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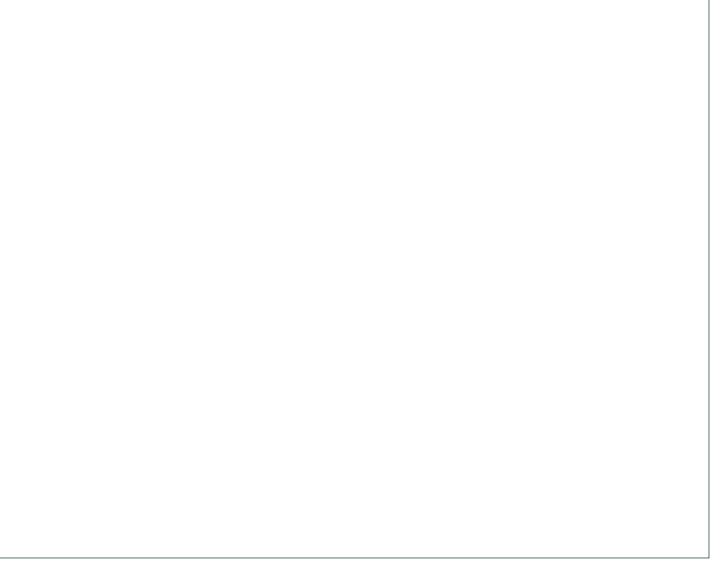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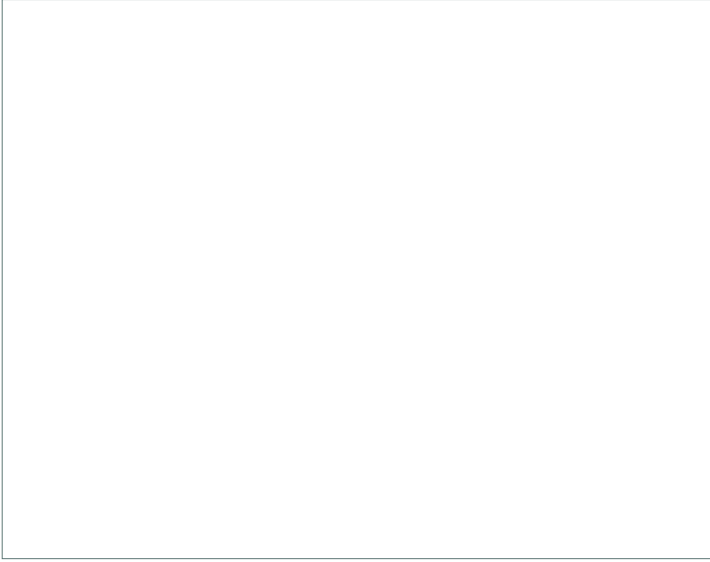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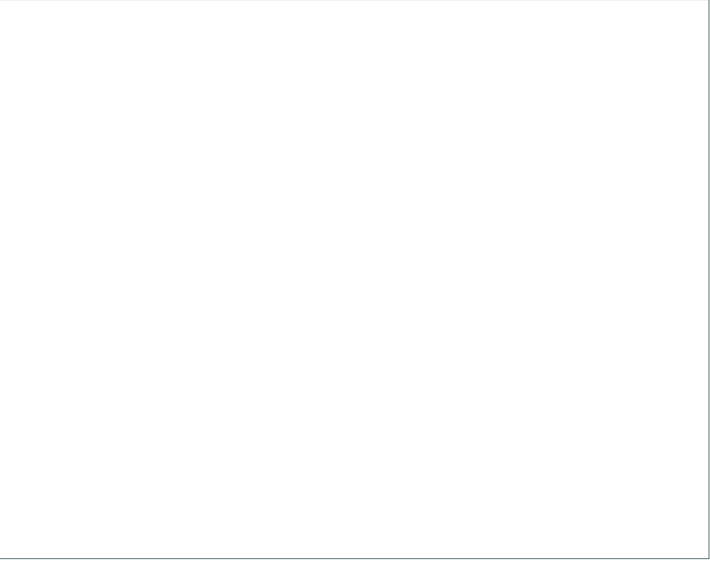


각 지역은 전시를 통해 나름의 답을 구했다. 그러나 질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은 변화하고 있다.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미래유물전은 잠시 멈춰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고민하라 질문을 던진다.





부록 : 미래유물전 인쇄물 아카이브



신화가 공시적으로 자유를 향한 현재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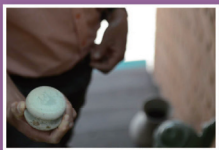
먼지의 시간

먼지 속에서 찾는 일상의 아름다움.

손 때 묻은 점동사니.

가만히 들여다 보는 순간, 내게 속삭이는 사물의 소리를 듣게 된다.

소장품/ 조영호 이천문화원장



● 또 다른 기록의 시작 "진정 眞情"

현재를 살아가는 사진가로서 지금을 기록해야 한다는 욕망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

세상은 급변한다. 작금의 세태가 발전인지 점점 비대해지고 복잡해지는 퇴보인건지도 헷갈리는 지금, 우리를 다시 바라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 작품은 이천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역사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미래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유물이 될 것이다.

사진·영상/ 남지무



기획의도

수없이 출몰하는 사건들 속에서 마을을 만든, 마을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숨 쉬는 역사일 것이다. 지금 것들은 어제의 것들과 그리고 다가올 미래로의 연장이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어 어제, 오늘, 내일은 단절이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 장들의 펼쳐짐이 지금이 아닐까 한다.

이 전시는 어제를 보고 오늘을 성찰하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이 아니다. 순간순간 순정을 바쳐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일어나지 않은 신비에 대해 꿈꾸고 싶었다.

그들의 삶이 거울이 되어 나의 삶을 바라보는 순간, 그 어떤 것이 각자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발견되길 바라면서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잠재태를 앞에 두고 온 존재로 선택하는 그 순간이 곧 미래임을 말하고자 한다.

전시기획·연출 | 민병은, 코디네이터·구술기록 | 장세영,
사진·영상 기록 | 남지무, 자료조사 | 이미경, 이선민, 인터뷰
협력 | 이천다문화협회, 설치작업 디자인 | 철수와 목수,
오프닝 퍼포먼스 | 이스턴 독스, 홍보물 디자인 | 머스터드

❖ 전시시간 ❖

10. 1.(Thu) 개관일 16:00~18:00

10. 2.(Fri) ~ 10. 7.(Wed) 10:00~18:00

10. 5.(Mon) 휴관

무료관람

이천 아트홀 전시실(2층)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40(중리동) T 031·644·2000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T 031·239·1020

2015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생활문화공동체 사업_기획전시

이천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미래 2015. 10. 1(Thu) ~ 10. 7(Wed) 이천 아트홀 전시실 2층 유물전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이천문화원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천시, 이천시의회

기획 | 문화집합36,5

● 구만리들

이천 사람치고 구만리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천에 살다보면 어떤 계기로든 구만리들을 만난다.

이천의 젓줄, 북하천이 선물한 황금빛 구만리들.

북하천은 호범면을 지나며 매곡천, 동산천, 원두천 등 크고 작은 하천과 합류하여 이천 시내 동남부를 지날 즈음엔 제법 넉넉히 흘러들어 마침내 드넓은 구만리들을 품어낸다.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다 이천IC를 거쳐 시내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구만리들을 지나야 한다.

먼 타지에서 돌아오는 길, 집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누구나 누런 금빛으로 일렁이는 구만리들을 바라보며 호젓한 미소를 지어낸 경험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이천 사람이라면.

[전시실 입구]

설치/ 구만리들 재현, 아크릴 거울, 추수한 벼

이미지/ '구만리들의 만추', 홍자 이영환, 지본수묵담채



● 사람들의 이야기 “순정 純情”

꿈장 내달리기만 했던 농을 수 없는 삶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살아내기의 반복

피곤했던 일상은 삶으로 모아지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순정이라 부르코자 한다

농부의 삶, 삼대 해 현재진행형 | 김정식(79세, 용면리/ 아내 서금례 76세)

용면리에서 태어난 김정식 할아버지.

모가면에서 트랙타고 열 아홉에 시집 온 서금례 할머니.

그리고 아들 셋과 손주 여섯.

삼대로 이어진 각자의 삶을 합하면 210년.

지금도 여전히 용면리에서의 삶은,

피고지고 또 피고지고,....

텍스트/ 김정식, 서금례 어르신 구술 중에서

가족 사진/ 김정식어르신 제공





미래

유물전

『미래유물전』 10월 1일~7일
오프닝》10월 1일 오후 4시 이천아트홀 전시장

•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이천문화원 • 기획 문화집합36.5

• 후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천시, 이천시의회 • 문의 031-239-1020

미래유물전(음서)150828.indd 1
2015-08-28 오후 10:00

미래유물전
평택, 물로부터 온

웃다리문화촌 주소_경기

주최_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의회, 기획_민병은, 큐레이터
료조사·인터뷰_황수근, 최
자인_정상목, 설치_업체 에이

이 리플렛에 수록 된 글과 도판을
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제
분야의 사람들의 협업으로 만들

주소_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평택 웃다리문화촌 (ht

미래의 유물
평택, 물로부터 온

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용소금각로 438-14번지 TEL 031-667-0011 / 031-667-1611
COPYRIGHT(C) WOOTDALI, ALL RIGHTS RESERVED.

주관_경기도문화원연합회, 평택문화원, 후원_경기도, 경기도의회, 평택시, 평택시
_이진영, 참여작가_김병직, 설치 테크니션_장성욱, 사진·영상 촬영_장성욱, 지역자
_김비, 공간협력·어린이자료수집_이수정, 이승진, 디자인_머스터드 홍원태, 전시 디
_원 플랜_박상도, 도슨트 평택문화원_문화해설사
_장소_웃다리문화촌, 기간_2016 10 20 ~ 10 30
COPYRIGHT (C) 2016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저작권자인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평택문화원, 문화집합 36.5의 협
일 수 없습니다. 이번 전시는 기획자, 큐레이터, 디자이너, 설치 작가, 테크니션 등 다양한
서했으며 지역의 문화활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전시입니다.

관람 안내

찾아오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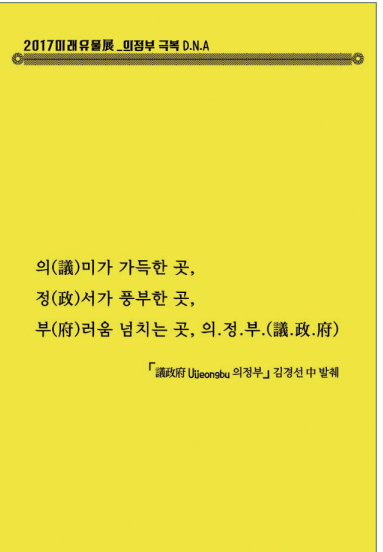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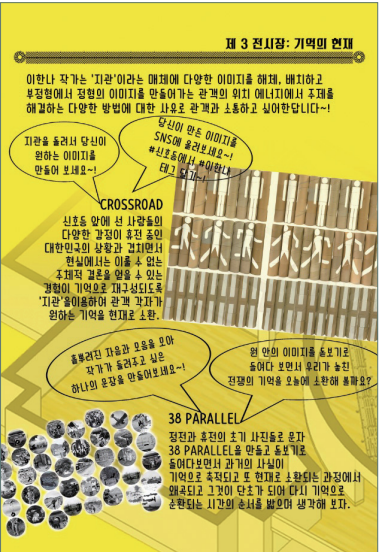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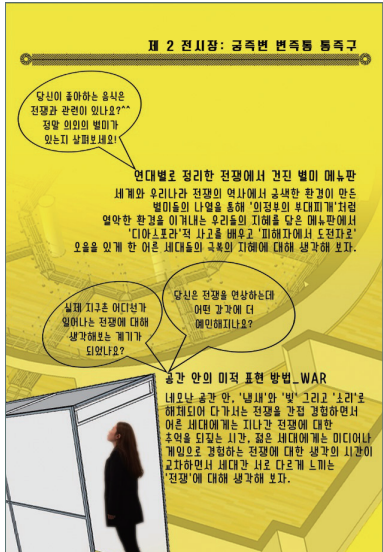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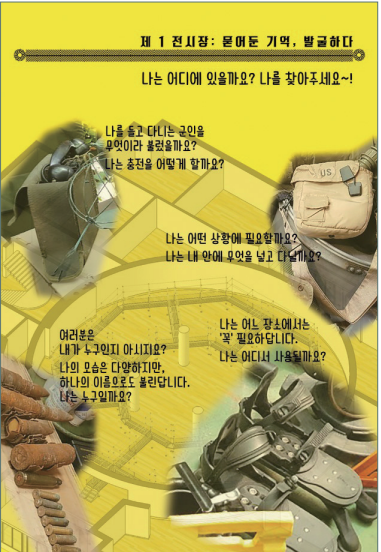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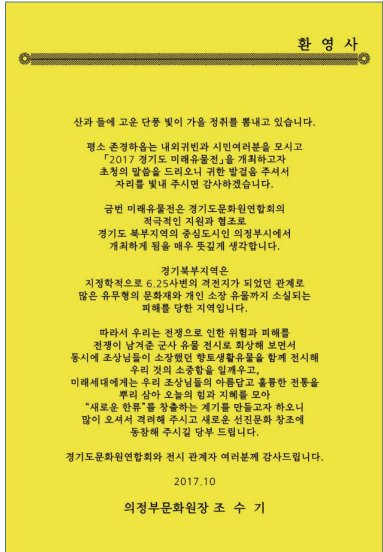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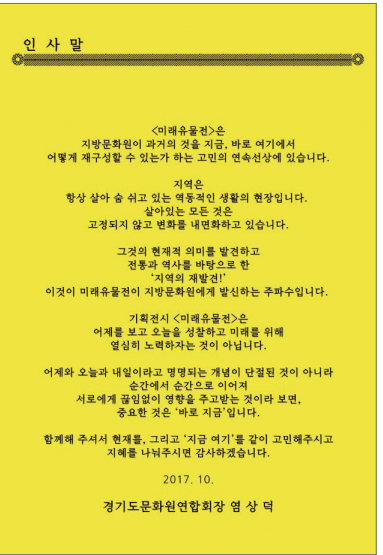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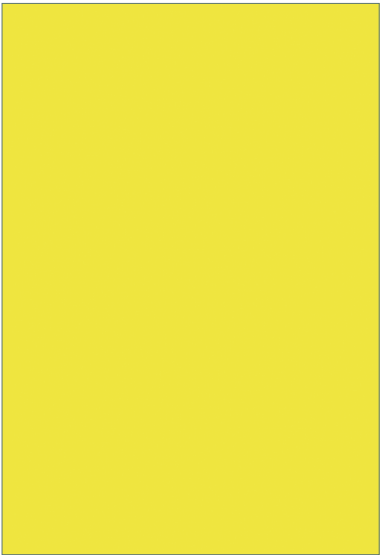
금각리 용소금각로 438-14번지 TEL 031-667-0011 / 031-667-1611
tp://www.wootdali.or.kr/) 사이트에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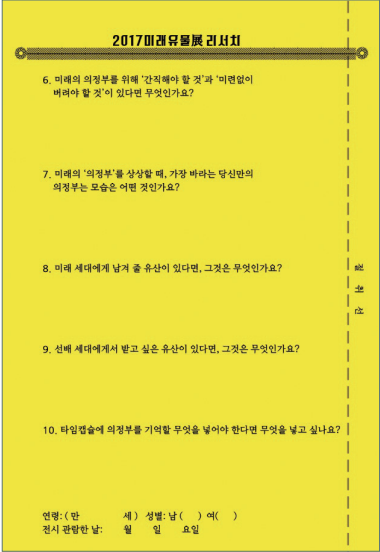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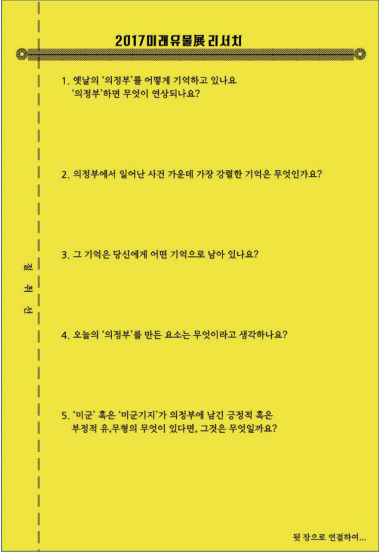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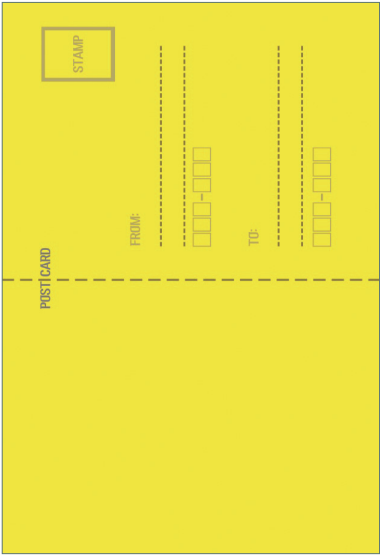
관람시간_오전 10:00 ~ 오후 6:00

전시해설_주말 오후 2시, 3시, 4시, 5시

평일 사전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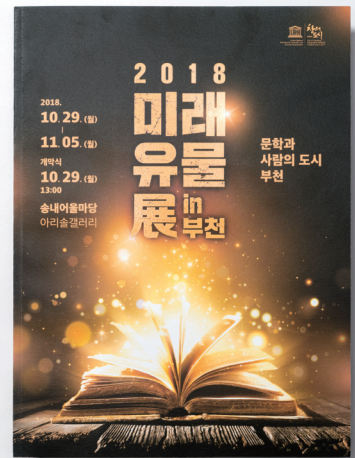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92번길 33, 송내어울마당
T. 032)651-3739 / www.bucheonculture.or.kr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천문화원
후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박물관  부천시의회





초대의 글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도내 31개 시·군 문화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며 각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유산을 발견하고 전시하여 우리들의 유의미한 유산의 의미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심사숙고하여, 새로운 유·무형의 유산을 축적하는 네 번째 전시를 진행합니다.

‘2018 미래유물전’은 풍부한 문학적 유산과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2017년 11월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받은 부천에서 ‘문화와 사람’을 주제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제4회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문화와 사람의 도시 부천”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1주년을 기념하며 여러 귀빈들과 함께 부천이 어떻게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되었는지, 그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자 하오니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올림
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문화와 사람의 도시 부천

- Part1. 복사골을 기억하다.
- Part2. 복사골에 살다.
- Part3. 복사골의 미래를 꿈꾸다.

오시는 길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92번길 33, 송내어울마당 아리솔갤러리(B1)
T. 032)651-3739 / www.bucheonculture.or.kr

생활문화공동체 네트워크사업 (2019 미래유물전 in 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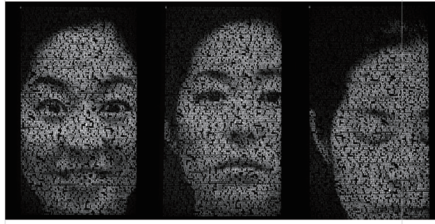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의 기록물을 토대로 역사를 그려왔다. 기록의 빈 공간은 기록들 간의 연계성에 의해 유추되기도 하고, 인간의 기억에 의존된 구술 자료를 통해 채워지기도 한다. 개인과 집단의 기억에 의해 구술된 자료들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연대를 통해 형성되고 지역의 정체성으로 연결시킨다. 다양한 방식에 의해 연구된 역사적 자료들과 생활 유물들은 언젠가 전시장 한편에 전시되고 있을 것이다. 어제의 물건이 내일의 유물이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시기 또한 점점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내일을 위해 무엇을 남겨야 할까?

'기록하고 연구할 것, 정리하고 보여줄 것, 남기고 보존할 것' 그동안 기록에 의해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그려왔던 것처럼, 현재의 삶을 기록하고 연구하며, 다양한 형태로 정리하고 보여주고, 남기고 보존해야 할 것이다.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생활문화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진행된다. '미래유물전'이라는 타이틀로 매번마다 진행되는 전시는 올해 '안산'에서 진행된다.

섬과 공단이 공존하는 도시 안산은 반농반어가 가능한 지리적 요건 덕분에 풍요로운 민속 문화를 형성하며 천년이라는 긴 역사를 거쳐 왔다.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이었던 안산지역은 1970년대 들어 반월공단 건설로 인해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공업 도시로 변하게 된다. 마을에서 도시로 급격히 변화하여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다양한 세대와 국적의 사람들로 인해 삶과 문화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됐고 이에 따라 지금의 풍경을 만들어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하나가 아닌 다채로운 문화들이 뒤섞여 있는 안산에 대해 정리하고 내일을 위한 아카이브를 구성하여, 동시에 지역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자 한다. 전시는 현재 안산의 대표적인 이미지라 할 수 있는 '공단(산업단지)과 섬-상태', 이 상반된 이미지의 공존에 대한 기록이다.

S1. 당신에게 안산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재형 face of city_안산, 가변설치, 2019

안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술조사를 진행하고 온라인상에서 서치가 가능한 안산의 이미지(단어)를 다수 수집하여 분석한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도출되는 안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해 본다.

이재형 작가의 <Face of City>는 소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감성적 표정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집단 감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얼굴의 표정 변화를 통해 보여주고 그 변화의 근거를 웹상에서 단어들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찾아낸다. <Face of City_안산>은 안산 지역 내에서 추출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데이터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감정단어로 분류하고 수치화시켜 이를 표정의 변화로 연결시키는 정보 시각화 프로젝트이다. 실시간 문자 데이터들은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 내고 이는 '표정'이라는 모호한 감성적 표현으로 시각화된다.

S2. 공단과 섬 사이 안산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한국인들 인식 속에 자리 잡힌 안산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무엇일까? 과거 반월공단에서 현재 반월스마트허브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비롯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 삶과 문화를 조사한 내용을 영상 및 생활 자료로 보여준다.

작가 김승택은 '오해와 편견'이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었던 안산과 안산의 다문화 인구들의 이미지에 관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사건 사고로 인해 한국인들은 외국인 근로자 혹은 이주외국인들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로 오해하고 편견을 갖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오해와 부정적인 시선으로 얼룩져버렸다. 이에 김승택은 외국인 근로자들, 이주 외국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바라본다.

김승택 콤비나트_kombinat, 120x200cm, 2019



S3. '당신과 내가 사는 곳, 우리가 꿈꾸는 안산'

작가 강효명의 설치 작업 <Green Concord_녹색화합>은 쌓여진 새장 위로 이끼를 곳곳에 얹어 전시 중 관람객들이 분무기로 물을 뿌려줄 수 있도록 한다. 작가의 작품에서 이끼는 소외를 상징하고 관람객들이 물을 뿌려주는 행위는 관심과 사랑의 의미한다.



강효명 Green Concord_녹색화합, 철재새장에 채색, 이끼, 가변설치, 2019

산업단지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안산의 섬, 그리고 자연환경, 높은 녹지율에 대한 이미지를 시각적, 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연출하고자 김동기 작가의 작업으로 공간을 구성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재 안산이 가지는 산업화·공업화로 인한 경제발전의 이면에 대해 지역이 스스로 고민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상태, 지형 그리고 섬, 그 안의 사람들을 주제로 한 작업들을 통해 안산의 풍경을 마주한다.



김동기, 박위성 Rocky Island, 실크스크린, 커팅 Silkscreen, Cutting, 가변크기, 2017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사진

공존(共存) 당신과 내가 사는 곳

전시기간 2019. 9.5(목) - 9.15(일)
전시작가 강효명
김동기
김승택
이재형

전시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동
화랑전시관 4전시실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고잔동 817)

관람시간 10:00~18:00
개막식 2019. 9.5(목) 14:00
관람료 무료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안산문화원
후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공동기획 안산문화원
안산여촌민속박물관
단원미술관

공존(共存) 당신과 내가 사는 곳



2019. 09. 05 - 09. 15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공존(共存) 당신과 내가 사는 곳

〈공존 비공존상설미술 610C〉 京畿道문화재단 京畿道美術館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안산문화원 후원 : 경기도 · 경기도의회

2019. 09. 05 - 09. 15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공존(共存) 당신과 내가 사는 곳

모시는 글

생활문화공동체 네트워크 사업-미래유물전 in 안산 〈공존 共存〉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안산은 전통적인 반농반어 마을에서 1970년대 반월공단과 도시계획이 진행되면서 급격한 산업화를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정착하며 문화와 삶에 많은 변화를 겪었고, 지금의 안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겹겹이 쌓인 시간의 공간 안에서 ‘공단과 섬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오늘의 안산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전시를 통해 ‘당신과 내가 사는 지금 이 곳’ 안산에서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안산’의 모습을 그려 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문화원 연합회장 염상덕
안산문화원장 김봉식

전시작가

강효명	전시기간	2019. 9.5(목) - 9.15(일)
김동기	개막식	2019. 9.5(목) 14:00
김승택	관람시간	10:00 - 18:00
이재형	전시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동 화랑전시관 4전시실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고잔동 817)
	관람료	무료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안산문화원
	후원	경기도 · 경기도의회
	공동기획	안산문화원 · 안산어촌민속박물관 · 단원미술관

공존(共存) 당신과 내가 사는 곳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
(2019 미래유물전 in 안산)

〈생활문화공동체 네트워크 사업〉
2020 미래유물전-IN 용인



「유물」이라는 말을 생각해!

방안에서부터부터 손에 넣

유물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일상의 흐름 속에서 놓여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일상의 흐름 속에서 놓여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일상의 흐름 속에서 놓여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일상의 흐름 속에서 놓여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일상의 흐름 속에서 놓여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일상의 흐름 속에서 놓여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일상의 흐름 속에서 놓여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2020.11.17(화)~11.19(목) 11

「유물」이라는 말을 생각해!

방안에서부터부터 손에 넣

유물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일상의 흐름 속에서 놓여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일상의 흐름 속에서 놓여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일상의 흐름 속에서 놓여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일상의 흐름 속에서 놓여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일상의 흐름 속에서 놓여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일상의 흐름 속에서 놓여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일상의 흐름 속에서 놓여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유물은 '가'가 사용되어 온 물건과 함께 만들어져 온 물건이다.

18 2020.11.17(화)~11.19(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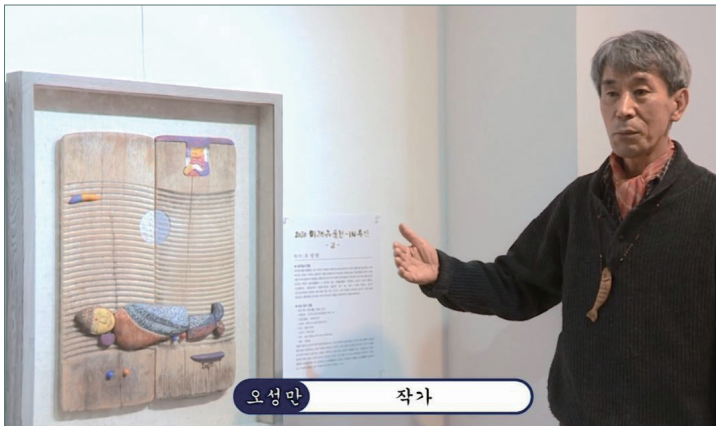
〈생활문화공동체 네트워크 사업〉

2020 미래유물전-IN 용인

2020.11.17(화)~11.19(목) 용인시 문화예술원 대전시실(2F)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 용인문화원, 한국미술협회용인지부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 전시 및 오픈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도록제작과 영상 촬영하여 유튜브방송으로 대체합니다.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미래유물전 6년 아카이브>

한눈에 보는 미래유물전 2015~2020

발행인_ 엄상덕

편집인_ 최영주

기획_ 박현미, 정지희

발행처_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6층)

전화_ 031-239-1020

팩스_ 031-239-3785

인쇄_ 2020년 12월 15일

발행_ 2020년 12월 31일

디자인·인쇄_ 클그림

이책은 '2020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